

서유기

西遊記 · 오승은 100회본

제2권 (제11회 ~ 제20회)

오승은 (吳承恩, 약 1500-1582)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5-26

책 정보

원전

오승은 『서유기(西遊記)』 世德堂本(1592년 명대), 10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西遊記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
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6

번역 정책

- 인명·지명은 한국 한자음(孫悟空 → 손오공, 玄奘 → 현장)
- 별칭·법명·도호는 본명으로 통일(美猴王 → 손오공, 八戒 → 저팔계, 三藏 → 당승)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卻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한편", 詩曰/偈曰 → 시·계송 형식 유지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11회 — 지옥을 유람하며 태종이 혼을 되찾고, 과일을 바치며 유전 이 혼인을 잇다	5
제12회 — 입력값이 불완전하여 번역이 어렵습니다. 전체 제목을 입력 해 주세요.	30
제13회 — 호랑이 굴에 빠진 위기를 금성태자가 해결하고, 쌍차령에서 백흠이 승려를 머물게 하다	63
제14회 — 마음의 원숭이가 바른 길로 돌아오고, 여섯 도둑은 흔적 없 이 사라지다	86
제15회 — 사반산에서 여러 신이 암암리에 돕고, 응수간에서 의마의 고삐를 거두다	118
제16회 — 관음원의 승려가 보물을 도모하고, 흑풍산의 괴물이 가사를 훔치다	143
제17회 — 손행자가 흑풍산에서 크게 소동을 피우고, 관세음보살이 응 비괴를 굴복시키다	171
제18회 — 관음원에서 당승이 난관을 벗어나고, 고로장에서 대성(손오 공)이 마귀를 물리치다	203
제19회 — 운잔동에서 손오공이 저팔계를 거두고, 부도산에서 현장이 심경을 받다	223
제20회 — 황풍령에서 당승이 난을 겪고, 산 중턱에서 저팔계가 앞다 투다	247

제11회 — 지옥을 유람하며 태종이 혼을 되찾고, 과일을 바치며 유전이 혼인을 잇 다

遊地府太宗還魂 進瓜果劉全續配

관음보살이 금선(金蟬)으로 화현하다

시로 이르되,

백 년의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평생의 업적은 물거품과 같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얼굴엔 복숭아꽃 같은 생기가 돌더니 오늘은 머리칼
에 흰 눈 같은 서리가 내려앉았네. 하얀 개미가 갇아먹은 흔적은 덧없
는 환상일 뿐이고 빠꾸기 슬픈 울음소리에 어느덧 돌아보니 세월만 덧
없구나. 예부터 선한 업을 쌓는 것이 수명을 늘리는 길이라 하였으니
선을 행하면 구하지 않아도 하늘이 스스로 보답하리라.

한편, 태종의 혼령은 아득하고 막연한 상태로 오봉루 앞을 지나게
되었다. 마침 어림군이 황제를 모시고 사냥을 나가기 위해 군마를 몰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태종은 기쁜 마음으로 그 뒤를 따랐으나, 어느덧 몸은 아득해지며 멀리 떠나버렸다. 한참을 가다 보니 사람도 말도 보이지 않았다. 태종은 홀로 황량한 들판과 풀숲 사이를 거닐게 되었다. 길을 잃어 당황하며 헤매고 있을 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나라 황제 폐하,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태종이 그 소리에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머리에는 검은 사모를 쓰고 허리에는 코뿔소 뿔로 만든 띠를 둘렀으니, 사모의 부드러운 끈이 휘날리고 허리띠의 금빛 장식이 번쩍었다. 손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서린 상아 홀을 들고 있었고, 몸에는 비단 도포를 입어 상서로운 빛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분홍빛 밑창이 달린 장화를 신고 구름과 안개를 딛고 서 있으며, 품 안에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생사부를 품고 있었다. 귀밑까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뺨을 스치는 수염이 휘날리는 모습이었다. 그는 예전에 당나라의 재상이었으나, 지금은 명부에서 염라대왕을 모시며 판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태종이 그곳에 이르니, 한 사람이 길가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폐하, 신이 미처 멀리까지 마중 나가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태종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데 이토록 급히 나를 맞이하러 왔는가?"

그가 대답했다. "소신은 보름 전 삼라전에서 경하의 귀룡이 폐하께 구원을 청했다가 오히려 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제1전의 진광대왕께서 귀신 사자를 보내 폐하께 삼조 대안(세 부서

가 대조하여 사건을 확인하는 절차)을 서두르라 명하셨기에, 신이 이를 알고 이곳에서 폐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뜻밖에 오늘 도착이 늦었으니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태종이 다시 물었다. "그대의 성명은 무엇이며, 어떤 관직을 맡고 있는가?"

그가 답했다. "소신은 예전에 양세에서 선왕의 곁을 모시며 이곳의 지현을 지냈고, 이후 예부시랑을 지냈던 최결이라 합니다. 지금은 음사에서 풍도의 판관을 맡고 있습니다."

태종은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다가가 황제의 손으로 급히 부축하며 말했다. "선생께서 멀리서 수고가 많으셨소. 짐의 곁에 있는 위징이 선생께 보내려던 서신 한 통이 있는데, 마침 잘 만났구려."

판관이 은혜에 감사하며 서신이 어디 있는지 묻자, 태종은 즉시 소매 속에서 서신을 꺼내 건네주었다. 최결은 절을 하며 서신을 받아 봉투를 뜯어 읽었다. 서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우 위징이 대도안의 최 노선생님께 머리 숙여 올립니다. 예전의 사귀를 떠올려 보니 그 목소리와 모습이 여전한 듯합니다. 어느덧 몇 해가 흘러 선생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명절이 되면 소박한 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내며 혹시라도 받으셨을지 궁금해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꿈속에 나타나 주시니, 비로소 형님께서 높은 관직에 오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양의 길이 갈라져 하늘과 땅처럼 멀리 떨어져 있으니 직접 뵙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저희 태종 문황제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

으니, 아마도 대안을 위해 삼조의 관리들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형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예전의 우정을 생각하시어 편의를 봐주시고, 저희 폐하를 다시 양세로 돌아가게 도와주신다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징 올림."

판관은 서신을 읽고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위징 관리가 요 전날 꿈에서 늙은 용을 베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과분한 칭찬입니다. 또한 그가 평소 저와 제 자손들을 살뜰히 보살펴 주었기에, 오늘 이렇게 서신까지 왔으니 폐하께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소신이 반드시 폐하를 양세로 무사히 모셔 다시 옥좌에 오르게 하겠습니다."

태종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두 사람이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편에서 청의를 입은 동자 한 쌍이 깃발과 보개를 들고 나타나 큰 소리로 외쳤다. “염왕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십니다!” 태종은 최결 판관, 그리고 두 동자와 함께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문득 성 하나가 나타났는데, 성문 위에는 ‘유명지부귀문관(幽冥地府鬼門關)’이라는 일곱 글자가 커다란 금색으로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었다. 청의를 입은 동자가 깃발을 흔들며 태종을 성 안으로 안내했고, 태종은 길을 따라 쪽 걸어 들어갔다. 길가에는 선왕 이연과 형 이견성, 그리고 죽은 동생 이원길이 서 있더니, 다가와 외쳤다. “세민아, 네가 왔구나! 세민아, 네가 왔구나!” 그러더니 이견성과 이원길이 태종을 붙잡아 목숨을 거두려고 달려들었다. 태종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붙잡히고 말았을 때, 다행히 최결 판관이 푸른 얼굴에 송곳니가 톱 튀어나온 귀신 사자를 불러 명령하여 이견성과 이원길을 물

리친 덕분에 태종은 간신히 몸을 빼낼 수 있었다. 몇 리쯤 더 나아가니 푸른 기와를 얹은 누각과 대가 건물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장엄했다.

만 겹의 채색 노을이 둥둥 떠다니고, 천 갈래 붉은 안개가 은은하게 피어오른다. 처마 끝에는 괴수의 머리가 번쩍이고, 다섯 겹의 원앙 무늬가 눈부시게 빛난다. 문에는 여러 갈래 붉은 금못이 박혀 있고, 난간에는 하얀 옥대가 가로로 놓여 있다. 창문과 문틈으로는 새벽 안개 같은 빛이 흘러나오고, 발과 휘장 사이로 붉은 번갯불 같은 광채가 스며든다. 누각과 대는 높이 솟아 푸른 하늘에 닿을 듯하고, 회랑은 평평하게 늘어서 보물 같은 뜨락으로 이어진다. 짐승 모양 향로에서는 향연이 피어올라 어의를 감싸고, 붉은 비단 등불은 궁궐의 부채를 밝힌다. 왼편에는 험악한 우두귀가 위엄 있게 버티고, 오른편 아래에는 기세 당당한 나마귀가 서 있다. 망자를 맞이하고 귀신을 보내며 금패를 돌리고, 넋을 불러 모으려 흰 비단을 드리웠다. 이곳을 음사총회문이라 부르니, 그 아래에 염라삼라전이 자리하고 있다.

태종이 밖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벽에는 옥 장신구가 부딪히며 쟁그랑 소리가 나고 신비로운 향기가 감돌았다. 밖에서는 등불을 든 두 쌍의 수행원이 앞장섰고, 그 뒤로 십대염왕이 계단을 내려오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바로 진광왕, 초강왕, 송제왕, 오관왕, 염라왕, 평등왕, 태산왕, 도시왕, 변성왕, 전륜왕이었다. 열 명의 왕은 삼라보전을 나서서 허리를 굽혀 태종을 맞이했다. 태종은 겸손하게 몸을 낮추며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열 명의 왕이 말했다.

"폐하는 양세의 인왕이시고 저희는 음세의 귀왕이니, 이는 마땅한 도리일 뿐인데 어찌 사양하십니까?"

태종이 대답했다.

"짐이 그대들께 죄를 지어 이곳에 온 몸이거늘, 어찌 감히 음양과 인귀의 도리를 따지겠습니까?"

태종은 계속해서 몸을 낮추며 예의를 갖추었다. 태종은 앞으로 나아가 삼라전 안으로 들어갔고, 열 명의 왕과 예를 나눈 뒤 손님과 주인으로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

잠시 후, 진광왕이 두 손을 모아 올리며 여쭙었다. "경하의 귀룡이 폐하게 살려달라고 간청해놓고는 오히려 폐하를 죽이려 들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태종이 대답했다. "짐이 밤에 꿈속에서 늙은 용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고, 아무 일 없도록 허락해 주었소. 그런데 뜻밖에도 그놈이 죄를 지어 형벌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 인조(人曹, 관리직)의 위징에게 참형을 당했더라는 말이오. 짐이 위징을 전각으로 불러 바둑을 두게 했는데, 그가 꿈속에서 용을 베어버린 것이오. 이는 그 관리의 실통한 재주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그 용왕이 죄를 지어 마땅히 죽어야 했던 것이니, 어찌 짐의 잘못이라 하겠소?"

열 명의 왕은 그 말을 듣고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그 용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남두성(南斗星)의 사부(死簿, 명부의 장부)에는 이미 인조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 기록되어 있었기에, 저희도 이미 알고 있었

습니다. 다만 그 용이 이곳에서 끝까지 따지고 들며 폐하께서 직접 오셔서 삼조(三曹)가 대조하여 판결하기를 요구하였기에, 저희가 그를 윤회장으로 보내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폐하를 번거롭게 해드렸으니, 저희가 서둘러 처결한 죄를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마친 왕들은 생사부를 관리하는 판관에게 명하여 급히 장부를 가져오게 한 뒤, 폐하의 양세(陽世) 수명과 천록(天祿, 하늘이 내린 복록)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게 했다. 최결은 급히 담당 관청(司房)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국왕들의 천록이 적힌 총장부를 하나하나 검열했다. 그러다 남섬부주 대당의 태종 황제의 기록이 정관 1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최결은 급히 진한 먹과 큰 붓을 가져와 '일(一)' 자 위에 두 획을 더 그어 '삼(三)' 자로 만든 뒤, 그 장부를 바쳤다.

열 명의 왕이 처음부터 훑어보니 태종의 이름 아래 수명이 33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염왕이 놀라 물었다. "폐하께서는 즉위하신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태종이 대답했다. "짐이 즉위한 지 이제 13년이 되었소." 염왕이 말했다. "폐하, 마음 놓으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양세의 수명이 20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로써 시시비비가 명백히 밝혀졌으니, 이제 본래의 몸으로 돌아가시옵소서."

태종은 그 말을 듣고 몸을 굽혀 감사를 표했다. 열 명의 염왕은 최결과 주태위 두 사람에게 명하여 태종을 배웅하게 했다. 태종은 삼라전을 나서며 다시 손을 들어 열 명의 왕에게 물었다. "짐의 궁궐에 있는 노

소(老少)들은 모두 안녕한가?" 왕들이 대답했다. "모두 평안합니다. 다만 폐하의 누이동생의 수명이 길지 않을까 걱정될 뿐입니다."

태종이 다시 절하며 사례했다. "짐이 양세로 돌아가면 보답할 물건이 마땅치 않으니, 그저 과일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소." 열 명의 왕이 기뻐하며 말했다. "저희에게 동과와 서과는 넉넉하나, 다만 호박이 부족합니다." 태종이 말했다. "짐이 돌아가자마자 바로 보내겠소, 바로 보내겠소."

이로써 서로 예를 갖추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주태위가 혼령을 인도하는 깃발인 인혼번을 들고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최결은 그 뒤에서 태종을 보살피며 저승의 관청을 빠져나왔다. 태종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예전에 다니던 길과는 전혀 달랐기에, 판관에게 물었다.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

판관이 대답했다.

"틀린 길이 아닙니다. 저승은 원래 이렇습니다. 가는 길은 있어도 돌아오는 길은 없지요. 지금 폐하를 전륜장(육도윤회의 세계)에서 모시고 나가는 것은, 첫째로는 폐하께서 저승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시게 하기 위함이고요, 둘째로는 폐하께서 다시 태어나실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태종은 하는 수 없이 두 사람을 따라 길을 나섰다.

몇 리를 더 가다 보니 갑자기 높은 산 하나가 나타났다. 먹구름은 땅까지 낮게 드리워져 있고, 검은 안개가 허공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태종이 물었다. "최 선생, 저쪽은 무슨 산인가?" 판관이 대답했다. "저곳은 저승의 음산(배음산)입니다." 태종이 겁에 질려 말했다. "짐이 어찌 저곳에 갈 수 있겠는가?" 판관이 말했다. "폐하, 안심하십시오. 저희가 인도하겠습니다." 태종은 벌벌 떨며 두 사람을 따라 산 바위 위로 올라갔다.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산은 울퉁불퉁하고 험준하기 그지없었으며, 축나라의 산맥처럼 가파르고 여암처럼 높았다. 이곳은 양세의 명산이 아니라 저승의 험악한 땅이었다. 가시덤불 사이사이에는 요괴들이 숨어 있고, 깎아지른 절벽에는 마물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꺾가에는 짐승이나 새의 울음소리 대신 귀신과 요괴들이 지나가는 모습만 보였다. 음산한 바람은 뽕뽕 불어대고 검은 안개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뽕뽕 부는 바람은 신병(神兵)들이 입으로 내뿜는 연기요, 자욱한 검은 안개는 귀신들이 어둠 속에서 내뿜는 기운이었다. 높고 낮은 풍경 어디에도 생동감은 없었고, 좌우를 둘러봐도 오직 미쳐 날뛰는 망령들뿐이었다. 산도 있고 봉우리도 있으며, 고개와 동굴, 계곡도 있었으나, 산에는 풀이 자라지 않고 봉우리는 하늘을 찌를 듯해도 고개에는 행인이 없으며, 동굴에는 구름이 들지 않고 계곡에는 물이 흐르지 않았다. 강가에는 도깨비들이 득실거리고 고개 아래에는 신과 마귀가 가득하며, 동굴 안에는 들귀신들이 갇혀 있고 계곡 바닥에는 사악한 혼령들이 숨어 있었다. 산 앞뒤로는 우두마면(소 머리에 말 얼굴을 한 저승의 하인들)이 소란스럽게 외쳐대고, 반쯤 가려진 곳에서는 굶주린 귀신과 궁핍한 혼령들이 서로 마주 보며 흐느끼고 있었다. 목숨을 거두러 온 판관들은 급히 서신을 전달하느라 분주

하고, 혼을 쫓는 태위는 큰 소리로 명령하며 공문을 재촉했다. 발이 빠른 심부름꾼들은 회오리바람처럼 몰아치고, 명부를 맡은 관리들은 검은 안개처럼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태종은 오로지 판관의 보호에 의지하여 겨우 음산을 통과할 수 있었다.

계속해서 여러 관청을 지나는데,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가 귀를 찢는 듯했고, 기괴하고 끔찍한 광경이 눈을 의심케 했다. 태종이 다시 물었다. "이곳은 대체 어디인가?" 판관이 대답했다. "이곳은 음산 뒷면에 있는 18층 지옥입니다." 태종이 놀라며 말했다. "그 악명 높은 18층 지옥이란 말인가?" 판관이 설명을 이어갔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매달아 고통을 주는 조근옥, 억울하게 가두는 유왕옥, 불구덩이인 화갱옥은 적막하고 쓸쓸한 가운데 번뇌와 괴로움만 가득하니, 모두 살아생전 지은 온갖 죄업 때문에 죽어서 이곳에 와 벌을 받는 것입니다. 풍도옥, 혀를 뽑는 발설옥, 가죽을 벗기는 박피옥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처참하기 그지없으니, 이는 오직 불충하고 불효하여 천리를 해치고 겉으로는 부처의 입을 가졌으나 속에는 뱀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살을 문지르는 마애옥, 절구로 찢는 퇴도옥, 수레로 짓누르는 차봉옥은 살이 터지고 피가 낭자하여 입술을 닦으며 신음하니, 이는 스스로를 속이고 공정하지 못하게 행동하며 교묘한 말로 남을 해친 자들의 몫입니다. 차가운 얼음 지옥인 한빙옥, 껍질을 벗기는 탈각옥, 창자를 뽑는 추장옥은 얼굴은 때에 절고 머리는 형클어진 채 수심 가득한 얼굴로 눈을 찌푸리고 있으니, 이는 모두 큰 저울과 작은 저울을 속이며 남을 기만한 어리석은 자들이 스스로 재앙을 쌓은 결

과입니다. 기름 솥에 넣는 유과옥, 칠흑 같은 어둠의 흑암옥, 칼산인 도산옥은 벌벌 떨며 슬프게 울부짖으니, 모두 강제로 남을 괴롭히고 선량한 이를 속인 자들이라 머리를 감추고 목을 움츠린 채 외롭게 고통받는 것입니다. 피웅덩이인 혈지옥, 아비지옥, 저울대로 치는 척간옥은 가족이 벗겨져 뼈가 드러나고 팔이 꺾이며 힘줄이 끊어지니, 이는 오직 재물을 탐해 남의 목숨을 해치고 짐승과 사람을 도살한 죄 때문입니다. 천 년이 지나도 변명할 길 없고 영원히 가라앉아 몸을 뒤척이지 못할 죄입니다. 죄인들은 저마다 밧줄과 포승줄에 뽕뽕 묶여 있고, 붉은 머리 귀신과 검은 얼굴 귀신들이 장창과 단검을 들고 있으며, 소 머리 귀신과 말 얼굴 귀신들이 철평과 구리 망치를 들고 나타나, 죄인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려대니,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도와줄 이 하나 없습니다."

시로 이르되, "사람은 마땅히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하니, 신과 귀신이 밝히 지켜보는데 그 누가 피하겠는가? 선과 악은 결국 반드시 되돌아오는 법이니, 다만 그 보응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일 뿐이라."

태종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몹시 두렵고 참혹함을 느꼈다.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니, 깃발을 든 귀졸 무리가 길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외쳤다. “다리 사자가 마중 나왔다!” 판관이 일어나라고 호통을 치더니, 태종을 앞장서서 인도하며 금교를 건너게 했다. 태종이 보니 저편에는 은교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위로는 충성스럽고 효도하며 어질고 선량한 이들, 그리고 공정하고 대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 역시 깃발을 든 이들의 영접을 받으며 가고 있었다. 그

런데 또 다른 쪽에는 다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곳은 찬 바람이 휘몰아치고 피의 물결이 넘실거렸으며, 통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태종이 물었다. “저 다리는 이름이 무엇인가?” 판관이 대답했다. “폐하, 저것은 나하교라 합니다. 만약 양세(陽世)로 돌아가신다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해 주셔야 합니다. 저 다리 아래는 이러합니다.

거세게 흐르는 넓은 물줄기와 험하고 좁은 길, 마치 긴 비단이 장강 위에 걸린 듯하나, 불덩이 구덩이가 하늘로 솟은 듯하구나. 음산한 기운은 뺏속까지 스며들 만큼 차갑고, 비린내 나는 바람은 코를 찔러 마음까지 파고드네. 물결이 소용돌이쳐 오가며 건너는 배 한 척 없으니, 맨발에 머리 풀어헤친 귀신들만이 드나들며 일에 매달리네. 다리 길이는 수 리에 달하고 폭은 겨우 석 자이며, 높이는 백 척이나 깊이는 천 겹이라. 위에는 붙잡을 난간 하나 없고, 아래에는 사람을 낚아채는 괴물들이 가득하니, 목에 칼을 쓴 채 나하의 험한 길을 매 맞으며 지나가네. 다리 가의 신장들은 어찌 이리 흉악하고 완악한지, 강 속의 죄 많은 영혼들은 참으로 괴롭구나. 나뭇가지에는 푸르고 붉고 노랗고 보라색인 비단 옷들이 걸려 있고, 절벽 앞에는 부모를 욕하고 음탕한 짓을 저지른 여인들이 웅크리고 있네. 구리 뱀과 쇠 개들이 제멋대로 잡아먹으니, 영원히 나하교에 떨어져 나갈 길을 찾지 못하리라.”

시로 이르되, “귀신의 울음과 신의 호통 소리 들려오고, 핏빛 물결은 만 길 높이로 넘실거리네. 수많은 우두마면(牛頭馬面)이 흉측한 모습으로, 나하교를 지키며 삼엄하게 지키고 있구나.”

한편, 다리에서 만난 사자들은 이미 돌아가고 없었다. 태종은 마음이 몹시 놀라고 두려워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탄식하고 말없이 슬퍼했다. 이어 판관과 태위를 따라 나하의 험한 물과 피가 낭자한 고통스러운 세계를 지나갔다. 다시 왕사성에 이르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히 "이세민이 왔다, 이세민이 왔다!"라고 외치는 소리였다. 태종은 그 외침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허리가 꺾이고 팔이 부러진 귀신들, 발은 있는데 머리가 없는 귀신들이 무리 지어 나타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내 목숨을 돌려다오! 내 목숨을 돌려다오!" 태종은 겁에 질려 몸을 숨기며 소리쳤다. "최 선생, 나를 좀 구해 주시오! 최 선생, 나를 좀 구해 주시오!"

그러자 판관이 말했다. "폐하, 저들은 모두 예순네 곳의 연기 속이나 일흔두 곳의 도적 떼 우두머리들이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입니다. 죄를 씻지도 못하고 다스림을 받지도 못한 채 다시 태어나지도 못하고 있으며, 길을 떠날 돈조차 없는 가련한 아귀들입니다. 폐하께서 저들에게 돈을 좀 나누어 주셔야 제가 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태종이 물었다. "과인이 빈손으로 이곳에 왔는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यो?"

판관이 대답했다. "폐하, 양세에 어떤 사람이 금은보화를 이 저승에 맡겨 두었습니다. 폐하께서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시고 소판이 보증을 서면, 그 사람의 창고 하나를 빌려 이 아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태종이 물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판관이 말했다. "하남 개봉부 사람인데, 성은 상이고 이름은 양입니다. 그가 이곳에 금은보화 열세 창고를 맡겨 두었습니다. 폐하께서 잠시 빌려 쓰신 뒤, 나중에 양세로 돌아가셔서 갚으시면 됩니다."

태종은 매우 기뻐하며 기꺼이 이름을 걸고 빌리겠다고 했다. 이에 문서를 작성하여 판관에게 전달하고, 금은보화 한 창고를 빌려 태위에게 저 아귀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라고 명했다.

판관이 다시 당부했다. "이 금은보화는 너희가 골고루 나누어 쓰고, 대당의 황제 폐하를 무사히 보내 드려라. 폐하의 수명은 아직 많이 남았다. 내가 십대염왕의 명을 받들어 폐하의 혼을 돌려보낼 것이니, 폐하께서 양세에 돌아가시면 수륙대재(불교식 재를 지내는 큰 잔치)를 열어 너희를 구제하고 다시는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청하겠다."

귀신들은 그 말을 듣고 금은보화를 얻자 모두 고개를 숙이며 물러갔다. 판관은 태위에게 인혼번(혼을 이끄는 깃발)을 흔들게 하여 태종을 이끌고 왕사성을 벗어나 평양대로로 나아가 유유히 떠나갔다.

한참을 나아가니 육도윤회(여섯 갈래의 윤회)가 이루어지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을 보니 구름을 타고 다니는 이들은 노을빛 비단 옷을 걸쳤고, 신령한 명부를 받은 이들은 허리에 금물고기 모양의 패를 차고 있었다. 승려와 비구니, 도사, 속인들은 물론이고 짐승과 날짐승, 그리고 온갖 요괴와 귀신들까지 도도히 흐르는 윤회의 길 아래로 저마다의 길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태종이 물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판관이 대답했다. "폐하께서 명철한 마음으로 진리를 보셨으니, 이 광경을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양세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육도윤회라 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신선이 되는 선도(仙道)로 오르고, 충성을 다한 자는 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귀도(貴道)로 오르며, 효도를 다한 자는 복을 누리는 복도(福道)로 다시 태어납니다. 공평무사한 자는 사람의 길인 인도(人道)로 돌아오고, 덕을 쌓은 자는 부유한 삶을 사는 부도(富道)로 전생하며, 악독한 자는 귀신이 되는 귀도(鬼道)로 떨어져 침륜하게 됩니다."

태종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탄식하며 시로 이르되,

"참으로 선하도다, 참으로 선하도다. 선을 행하면 재앙이 없으리니. 선한 마음을 늘 간절히 품으면, 선한 길이 활짝 열리리라.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모사나 간사함이 줄어든 것이니. 인과응보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신과 귀신이 이미 다 정해놓았느니라."

최결이 태종을 초생귀도(超生貴道)의 문까지 배웅한 뒤, 태종에게 예를 갖추어 절하며 말했다. "폐하, 이곳이 바로 [윤회를 벗어나] 솟아 나가는 곳입니다. 소관은 이만 물러가겠사오니, 주태위에게 명하여 폐하를 마지막 한 구간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종이 고마움을 표하며 말했다. "선생께서 멀리까지 오셔서 수고가 많으셨소." 최결이 다시 말했다. "폐하께서 양세(이승)로 돌아가시면, 반드시 수륙대재(물과 땅의 모든 영혼을 위로하는 큰 제사)를 열어 주인이 없는 원혼들을 달래 주어야 합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승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이승에서도 비로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잘못된 일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으시고, 백성

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폐하의 후손들이 번창하고 강산이 영원히 굳건할 것입니다."

태종은 모든 일을 하나씩 허가하여 처리한 뒤, 최결 판관에게 작별을 고하고 주태위를 따라 문 안으로 들어섰다. 주태위가 문 안에 안장과 장구가 완벽하게 갖춰진 붉은 말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급히 태종에게 말을 타라고 청하며 곁에서 부축했다. 말이 화살처럼 빠르게 달려 어느덧 위수 강가에 다다랐다. 강물 위에는 금빛 잉어 한 쌍이 물결을 일으키며 힘차게 뛰어놀고 있었다. 태종은 그 모습이 무척 마음에 들어 말을 멈추고 구경하느라 떠날 줄을 몰랐다.

주태위가 말했다. "폐하, 서두르셔야 합니다. 어서 서둘러 성 안으로 들어가셔야 할 시간이옵니다."

하지만 태종은 그저 구경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주태위가 태종의 발을 툭 치며 크게 외쳤다. "아직도 안 가시고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그러고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태종을 위수 강물 속으로 밀어버렸다. 그러자 태종은 저승을 벗어나 곧장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한편, 당나라 조정에는 서무공, 진숙보, 호경덕, 단지현, 마삼보, 정교금, 고사렴, 이세적, 방현령, 두여회, 소우, 부역, 장도원, 장사형, 왕규 등 문무백관이 모두 모여 있었다. 이들은 백호전에서 동궁 태자와 황후, 그리고 후궁과 궁녀, 시종들을 보좌하며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한쪽에서는 태자의 즉위를 돕기 위해 천하에 슬픈 소식을 알리는 조서를 전하고 있었다.

이때 곁에 있던 위징이 말했다. "여러분,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안 됩니다, 안 돼요. 만약 이 소식이 주와 현에까지 퍼져 소란이 일면 예측할 수 없는 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만 더 상황을 지켜봅시다. 우리 주상께서 반드시 혼을 되찾아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러자 아래에서 허경종이 잼싸게 나서며 말했다. "위 승상의 말씀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예부터 '엿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한 번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찌 그런 허망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시는 겁니까? 그게 대체 무슨 도리입니까?"

위징이 대답했다. "허 선생께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자면, 소관은 어릴 적부터 선술을 전수받아 점을 치는 데 매우 밝습니다. 폐하께서는 결코 돌아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한창 상을 치르던 중, 갑자기 관 속에서 "물에 빠져 죽겠다! 나를 빠뜨려 죽이는구나!" 하는 비명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그 소리에 문무백관은 혼비백산하고, 황후와 후궁들은 겁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사람들의 얼굴은 가을날 시든 뽕잎처럼 창백해졌고, 허리는 봄철 연약한 버들가지처럼 힘없이 꺾였다. 후계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상례를 돕는 지팡이조차 제대로 짚지 못한 채 슬픔에 잠겼고, 신하들은 낮이나간 듯하여 어찌 관을 받들고 효를 다할 수 있겠는가. 후궁들은 비틀거렸으니 마치 광풍에 쓰러지는 연꽃 같았고, 궁녀들은 몸을 가누지 못했으니 마치 소나기에 꺾이는 예쁜 연꽃 같았다. 모든 신하가 공포에 질려 뼈마디가 저리고 근육이 마비되는 듯했다. 그들은 벌벌 떨며 낮을

않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백호전은 마치 무너져 내리는 다리 같았고, 상례를 치르던 단은 마치 허물어지는 사찰처럼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때 궁인들은 겁에 질려 모두 달아나 버렸으니, 그 누가 감히 다가가 관을 붙들 수 있었겠는가. 다행히 강직한 서무공과 강단 있는 위징, 용맹한 진숙보와 기세 좋은 경덕이 앞으로 나서서 관을 붙들며 외쳤다. "폐하, 못내 마음 쓰이는 일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요괴가 나타나 가족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위징이 말했다. "요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폐하의 혼이 돌아오신 것이요! 어서 도구를 가져오시오!"

관 뚜껑을 열어보니, 과연 태종이 그 안에 앉아 소리치고 있었다.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다! 누가 나를 건져 구해주었느냐?"

서무공 등이 앞으로 나아가 태종을 부축하며 말했다. "폐하, 정신을 차리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저희 신하들이 모두 이곳에서 폐하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태종이 눈을 뜨며 말했다. "짐이 방금 참으로 고통스러웠다. 저승의 악귀들을 피하는 것도 어려웠거늘,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을 뻔한 재난까지 겪었구나."

신하들이 물었다. "폐하,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대체 어떤 수재를 당하신 것입니까?"

태종이 답했다. "짐이 말을 타고 위수 강가로 가던 중, 머리가 둘 달린 물고기가 노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주태위가 짐을 숙여 말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바람에 강물에 빠져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다."

위징이 말했다. "폐하, 아직 귀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위징은 서둘러 태의원에서 안신정백탕(안정을 되찾고 정신을 가라앉히는 탕약)을 가져오게 하고, 죽과 음식도 준비하게 했다. 태종이 탕약을 한두 번 마시고 나서야 비로소 기운을 차리고 정신을 되찾아 사람의 형색을 갖추게 되었다. 태종이 죽었다고 알려진 지 이미 사흘 밤낮이 지났는데, 다시 양세의 임금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를 두고 시로 이르되,

"만고의 강산은 몇 번이나 변하였고, 역대 여러 왕조는 화친과 전쟁을 거듭했네. 주, 진, 한, 진의 기이한 일은 많다지만, 죽었다 살아난 당나라 황제와 비길 자 누구인가?"

그날은 이미 날이 저물었기에, 신하들은 태종에게 침소로 물러가 쉬실 것을 청하고 각자 흩어졌다.

다음 날 아침, 상복을 벗어 던지고 화려한 관복으로 갈아입은 대신들이 저마다 붉은 도포에 검은 모자를 쓰고, 자줏빛 띠와 금빛 관장을 갖춘 채 조정 문 밖에서 황제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태종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혼을 달래는 약을 복용한 뒤 죽을 몇 그릇 더 먹고는, 대신들의 부축을 받으며 침실로 들어갔다. 그는 밤새 평온하게 잠을 자며 기력을 보충하였고, 날이 밝자 비로소 일어나

위엄 있는 차림새를 갖추었다. 그가 어떻게 몸단장을 했는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관을 쓰고, 붉은빛이 도는 황색 도포를 입었으며, 남전의 푸른 옥띠를 두르고 창엽의 근심을 잊게 해준다는 신발을 신었다. 그 모습은 당당하여 당대 최고의 군주와 같았고, 위엄은 드높아 오늘날의 위세를 다시 일으키는 듯했다. 참으로 태평성대를 다스리는 당나라의 왕이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이세민 폐하였다.

태종이 금란보전으로 올라가 문무백관을 불러 모았다. 산처럼 올려 퍼지는 만세 소리가 끝나자, 관리들은 품계에 따라 나누어 섰다. 그때 전령이 "보고할 일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고, 없으면 물러가라"는 명을 전했다.

동쪽 편에서는 서무공, 위징, 왕규, 두여회, 방현령, 원천강, 이순풍, 허경중 등이 움직였고, 서쪽 편에서는 은개산, 유흥기, 마삼보, 단지현, 정교금, 진숙보, 호경덕, 설인귀 등이 일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백옥 계단 아래 엎드려 여쭙었다.

"폐하, 지난밤 꿈속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기에 이토록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하셨나이까?"

태종이 대답했다.

"며칠 전 위징이 보낸 서신을 받은 뒤, 내 정신이 전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우림군이 나를 사냥에 모시러 온 것이 보였다. 한창 사냥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사람과 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니,

선왕이신 아바님과 형님들, 동생이 서로 다투는 모습이 보이더구나. 상황이 아주 난처할 때, 검은 모자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판관 최결이었다. 그가 나타나 내 형제들을 꾸짖어 물러나게 하기에, 나는 위징이 보낸 서신을 그에게 전달해 주었다.

서신을 보고 있는데,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깃발을 들고 나를 안내하여 삼라전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십대염왕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 나는 경하의 용이 나를 구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죽었다고 무고한 일에 대해, 내가 이전에 했던 말들을 차례로 설명했다. 염왕은 이미 삼조에서 대조를 마쳤으며, 즉시 생사부를 가져오게 하여 나의 양수(살아있는 동안의 수명)를 확인하라고 명했다. 마침 최결 판관이 장부를 올렸고, 염왕이 살펴보더니 말하기를, '이 사람의 천록(하늘이 내린 수명)은 삼십삼 년인데 이제 겨우 십삼 년을 지났으니, 아직 이십년의 수명이 남아 있구나'라며, 주태위와 최결 판관에게 나를 다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 나는 열 명의 왕과 작별하며, 감사의 표시로 과일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삼라전을 나와 저승을 둘러보니, 불충불효하고 예의와 의리가 없으며, 곡식을 낭비하고 남을 속이며, 저울질을 속이고 간사하고 음란한 무리가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들이 불에 달구어지고 맷돌에 갈리는 고통을 겪으며 형벌을 받는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또한 왕사성을 지나는데,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원혼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64곳의 도적 떼와 72곳의 반역자들의 영혼이었는데, 그들이 내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다행히 최결 판관이 보증을 서준 덕분에 하남의 상량이라는 노인이 저축해 둔 금은보화를 빌려 귀신들을 달래고 나서

야 겨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최결 판관은 내게 양세로 돌아가면 반드시 수륙대회(물과 육지의 영혼을 위해 여는 제사)를 열어 주인이 없는 외로운 영혼들을 천도해 주라고 신신당부하더구나.

육도윤회의 세계를 지나갈 때 주태위가 나를 말에 태워 주었는데, 마치 날아가는 듯했다. 위수 강가에 이르니 물 위에서 머리가 두 개 달린 물고기가 노니는 것이 보여 참으로 즐거웠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내 발을 붙잡고 물속으로 밀어 넣으니,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것이다."

신하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축하를 올렸다. 태종은 이 일을 천하에 널리 알리게 했고, 각 부와 현의 관리들은 모두 표문을 올려 경사를 축하했다.

한편, 태종은 천하의 죄인들을 사면한다는 교지를 내렸다. 또한 옥중에 있는 중죄인들도 조사하게 했다. 마침 형부에서 사형을 집행하려던 죄인 400여 명을 조사하여 보고하니, 태종은 이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죄인들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와 형제에게 작별을 고하고, 친척과 자식들에게 재산을 맡긴 뒤, 내년 오늘 다시 죄를 담당하는 관청에 가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기로 약속했다. 죄인들은 은혜에 감사하며 물러갔다. 태종은 또한 고아들을 구휼한다는 방을 내걸었다. 아울러 궁궐 안에 있는 노인과 어린아이, 그리고 궁녀 3,000명을 조사하여 군영으로 보내라는 교지를 내렸다. 이로부터 나라 안팎이 모두 선량해졌으니, 이를 시로 증명하면 다음과 같다.

시로 이르되,

대국 당나라 임금의 은덕이 넓고 깊어 요순시대의 도를 넘어 백성들이 풍요롭구나. 사형수 400여 명 모두 옥에서 풀려나고 궁궐의 여인 3,000명도 밖으로 나가는도다. 천하의 관리들은 황제의 장수를 빌고 조정의 대신들은 태종의 위엄을 찬양하네. 선한 마음 한 자락에 하늘이 응답하시니 그 복락이 열일곱 문중으로 이어지리라.

태종은 궁녀들을 물러가게 하고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일을 모두 마친 뒤, 직접 지은 방문을 내려 천하에 널리 전하게 했다. 방문의 내용은 이러하다.

"하늘과 땅은 끝없이 넓고, 해와 달은 세상을 밝게 비추니, 온 우주가 광활하여 간사한 무리가 숨을 곳은 없다. 피를 써서 남을 속이려 한들 그 과보는 반드시 이번 생에 돌아올 것이요, 적은 선이라도 베풀며 정성을 다한다면 그 복락을 어찌 다음 생까지 기다리겠는가. 온갖 잔피를 부려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제 분수에 맞게 사는 것만 못하고, 만 가지 강도 짓을 일삼는 것은 인연을 따라 검소하게 사는 것만 못하다. 마음속으로 자비로운 일을 행한다면 굳이 애써 경전을 읽을 필요가 없겠으나,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서 여래의 가르침을 읽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때부터 천하에 선행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한편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저승으로 보내는 현인을 모집한다는 방을 붙였고, 또 한편에서는 보물 창고에 가득한 금은보화를 내어 위치공과 호경덕을 하남 개봉부로 보내 상량에게 빛을 갚도록 하였다.

방이 붙은 지 며칠이 지났다. 명을 받들어 과일을 바치러 가는 현자가 있었으니, 본래 균주 사람으로 성은 유 씨요 이름은 전이라, 집에 만관의 재산을 가진 부자였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아내 이취련이 집 앞 문턱에서 금비녀를 뽑아 스님에게 시주한 일 때문이었다. 유전이 이를 보고 여인의 도리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문밖을 나선다며 몇 마디 꾸짖자, 이씨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 자결하고 말았다. 어린 남매는 남겨진 채 밤낮으로 슬프게 울었다. 유전도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가족과의 인연도 끊으며 어린 자식들도 뒤로한 채, 오로지 죽어서 과일을 바치겠다는 일념으로 임금의 방을 보고 당태종을 찾아온 것이었다. 태종이 전한 뜻에 따르면, 그는 금정관으로 가서 머리에는 호박 한 쌍을 이고 소매에는 누런 종이돈(황전, 黃錢)을 지니며 입에는 독약을 물고 가야 했다.

한편, 유전은 독을 마시고 죽었으나, 그의 혼령은 과일을 머리에 이고 일찌감치 귀문관에 도착했다. 문을 지키던 귀신이 호통을 쳤다. "네놈은 누구길래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이느냐?" 유전이 대답했다. "나는 당나라 태종 황제의 명을 받든 친임(欽差)으로서, 십대염왕께 올릴 과일을 특별히 가져왔소." 귀신은 기쁜 마음으로 그를 안내했다. 유전은 곧장 삼라보전에 이르러 염왕을 뵈고, 과일을 올리며 말했다. "당나라 황제의 뜻을 받들어, 십대염왕께서 베풀어 주신 너그러운 은혜에 감사드리고자 멀리서 과일을 가져왔나이다." 염왕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믿음과 덕을 두루 갖춘 태종 황제라니, 참으로 훌륭하도다!" 염왕은 과일을 거두어들인 뒤, 과일을 가져온 이의 성함과 고향이 어디인지 물었다. 유전이 대답했다. "소인은 균주 성의 백성으로, 성은 유요 이름은 전이라 합니다. 아내 이씨가 목을 매 자살하는 바람에 남겨진 자

식들을 돌볼 사람이 없기에, 저는 차마 집과 자식을 버려두고 갈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바쳐 나라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황제 폐하를 대신해 과일을 진상하여 여러 대왕님의 두터운 은혜에 감사드리고자 하나이다." 열 명의 왕은 이 말을 듣고 즉시 유전의 아내 이씨를 조사하라고 명했다. 귀신이 재빨리 조사하여 결과를 가져오자, 삼라보전 아래에서 유전 부부가 서로를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부부는 지난 사연을 다 이야기한 뒤, 십대염왕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그런데 염왕이 생사부를 살펴보니, 부부 모두 신선이 될 만큼 수명이 길게 기록되어 있었다. 염왕은 급히 귀신에게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명했다. 귀신이 여쭙었다. "이취련은 죽은 지 오래되어 시신조차 남아 있지 않은데, 혼령을 어디에 붙여야 합니까?" 염왕이 말했다. "마침 당나라 황제의 누이동생인 이옥영의 수명이 다해가니, 그녀의 시신을 빌려주어 그 몸에 혼을 돌려보내도록 하라." 귀신은 명을 받들어 유전 부부의 혼을 돌려보내고, 함께 저승을 떠났다.

결국 부부 두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돌아왔는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2회 — 입력값이 불완전하여 번역이 어렵습니다. 전체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另}}

제12회

현장은 정성을 다해 큰 법회를 세우고 관세음보살은 모습을 드러내어 금선자(金蟬子)를 교화하다

한편, 귀사가 유전과 취련 부부를 데리고 음사에서 나오니, 음산한 바람이 휘몰아치며 곧장 장안에 이르렀다. 귀사는 유전의 혼령을 금정관으로 밀어 넣고, 취련의 혼령은 황궁 안뜰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마침 옥영 궁주가 꽃그늘 아래 이끼 낀 길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는데, 귀사가 달려들어 그녀를 덱석 껴안고 바닥에 쓰러뜨리더니, 옥영의 혼을 산 채로 붙잡아 빼내고 그 자리에 취련의 혼령을 옥영의 몸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귀사는 다시 음사로 돌아갔으니, 이 일은 더 말하지 않는다.

한편, 궁궐의 시녀들은 이옥영이 쓰러져 죽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금란전으로 달려가 삼궁 황후에게 보고했다. "마마께서 쓰러져 돌아가셨나이다!" 황후는 크게 놀라 즉시 태종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태종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탄식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다. 내가 예전에 염라대왕에게 '노인과 아이들은 모두 안녕한가?'라고 물었더니, '모두 안녕하나 황제의 누이의 수명이 짧을까 걱정됩니다'라고 답한 적이 있었지. 과연 그 말이 맞았구나." 궁궐의 모든 사람이 슬퍼하며 꽃그늘 아래로 달려가 살펴보니, 다행히 마마에게 미세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었다. 태종이 말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마마께서 놀라시겠다." 그러고는 앞으로 나아가 마마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외쳤다. "누이여, 정신을 차리시오, 정신을 차려!" 그때 마마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소리쳤다. "여보, 천천히 가요, 나 좀 기다려줘요!" 태종이 말했다. "누이여, 우리가 여기 있소." 마마가 고개를 들어 눈을 뜨고 살펴보며 말했다. "당신은 누구인데 감히 나를 잡아당기는 거요?" 태종이 말했다. "네 황오라비와 황형수란다." 마마가 말했다. "내게 무슨 황오라비와 황형수가 있단 말입니까? 친정 성은 이씨이고, 어릴 적 이름은 이취련입니다. 남편은 성은 유씨 이름은 전이라, 부부 모두 군주 사람입니다. 석 달 전 제가 금비녀를 뽑아 문앞에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더니, 남편이 제가 함부로 문밖을 나선 것이 여자의 도리에 어긋난다며 몇 마디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답답해져 흰 비단띠를 들보에 매달아 목을 매 죽었습니다. 어린 남매를 남겨두고 떠나니 밤낮으로 울며 슬퍼했지요. 이제 제 남편이 당나라 임금님의 명을 받아 음사에 과일을 바치러 갔다가, 염라대왕께서 가련히 여겨 저희 부부를 다시 살려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은 앞서가는데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따라잡지 못해 발을 헛디뎠을 뿐입니다. 당신들은 예의도 없이 이

름도 모르면서 어찌 감히 나를 잡아당기는 거요?" 태종은 그 말을 듣고 궁녀들에게 말했다. "아마 누이가 넘어져 정신이 혼미해져 헛소리를 하는 모양이다." 그러고는 태의원에 명하여 약을 지어 오게 하고, 이옥영을 궁 안으로 부축해 들였다.

당나라 황제가 대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명을 받드는 관리가 들어와 아뢰었다.

“폐하, 과일을 바치러 갔던 유전이 혼을 되찾아 돌아와, 조정 문밖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황제는 깜짝 놀라 급히 어명을 내려 유전을 불러들였다. 유전은 대궐 뜰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태종이 물었다.

“과일을 바치러 갔던 일은 어찌 되었느냐?”

유전이 대답했다.

“신이 과일을 받들어 귀문관까지 단숨에 달려가 삼라전에 이르렀나이다. 그곳에서 십대 염군을 뵈고, 우리 폐하께서 정성껏 감사의 뜻을 전하셨다는 말과 함께 과일을 올렸나이다. 염군께서 무척 기뻐하시며 우리 폐하를 향해 ‘참으로 신의가 있고 덕이 높은 태종 황제이시다!’라며 거듭 칭송하셨나이다.”

태종이 다시 물었다.

“음사에서 다른 것은 무엇을 보았느냐?”

유전이 말했다.

“멀리 가지는 못해 별다른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염왕께서 신의 고향과 성명을 물으시는 것을 들었나이다. 그래서 신이 집과 자식을 버리고, 아내가 목을 매 죽게 된 사연과 과일을 바치러 오게 된 일을 모두 말씀드렸나이다. 그러자 염왕께서 급히 귀사를 보내 제 아내를 데려오게 하여 삼라전 아래에서 만나게 하셨나이다. 또한 생사부의 기록을 살펴보시더니, 저희 부부 모두 신선이 될 만큼 장수할 운명이라며 귀사를 시켜 다시 돌려보내 주셨나이다. 신이 앞장서 가고 아내가 뒤따라오다가 다행히 혼을 되찾아 돌아올 수 있었으나, 아내가 어느 몸을 빌려 환생했는지는 아직 알지 못하겠나이다.”

태종이 놀라며 물었다.

“염왕께서 네 아내에 대해 따로 하신 말씀은 없었느냐?”

유전이 대답했다.

“염왕께서는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으나, 귀사가 하는 말을 들었나이다. ‘이취련은 죽은 지 오래되어 시신조차 남아 있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염왕께서 ‘당나라 황제의 누이인 이옥영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 이취련에게 이옥영의 몸을 빌려 환생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은 ‘당나라 황제의 누이’가 어느 곳에 사는지, 집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여 아직 찾아 나서지 못하였나이다.”

태종은 보고를 듣고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며 여러 신하를 향해 말했다. “짐이 염라대왕에게 궁궐의 일을 물은 적이 있소. 그가 ‘노인과

아이들 모두 평안하나, 다만 짐의 누이동생의 수명이 짧을까 걱정되오'라고 답하더군. 그런데 마침 누이동생 옥영이 꽃그늘 아래에서 쓰러져 죽더니, 짐이 급히 살펴보고 나니 순식간에 깨어나 '서방님, 천천히 가세요, 나 좀 기다려줘요!'라고 외치지 않겠소? 짐은 그저 정신을 잃어 헛소리를 하는 줄로만 알았소. 다시 자세히 물어보니 그 말이 유전이 했던 말과 똑같구려." 위징이 아뢰었다. "공주님의 수명이 짧아 잠시 깨어나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면, 이는 유전의 아내인 이취련이 남의 몸을 빌려 환생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기도 하니, 공주를 밖으로 나오게 하여 무슨 할 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심이 어떠하옵니까?" 태종이 말했다. "짐이 방금 태의원에 약을 지어 오라고 명했으니, 어찌 되는지 지켜보자." 그러고는 후궁들을 궁 안으로 들여보내 공주를 모셔 오게 했다. 그러자 궁 안에 있던 공주가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웠다. "내가 무슨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집은 시원한 기와집인데, 여기는 누렇게 칠해 병색이 도는 집에다, 문짝은 알록달록 요란하게 꾸며 놓았잖아요! 나를 내보내 줘요! 당장 내보내 달란 말이에요!"

한창 소란스러운 가운데, 네다섯 명의 여관과 두세 명의 내관이 그를 부축하여 전각 위로 모셨다. 태종이 물었다. "그대의 남편을 알아보겠느냐?" 이옥영이 대답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어릴 적부터 부부의 인연을 맺어 아이들까지 낳고 기르며 살아온 사이인데, 어찌 모르겠습니까?" 태종은 내관에게 그를 부축해 내려가게 했다. 공주가 보전을 내려와 백옥 계단 앞까지 내려왔을 때, 유전을 보자마자 그를 덥석 붙잡으며 말했다. "여보,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시나요? 나를 기다려주지도 않고! 내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저 무례한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떠들어대는데,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요?" 유전은 그녀의 말투가 분명 아내의 것이었으나, 눈앞의 얼굴이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감히 아내라고 알아보지 못했다. 태종이 말했다.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산 사람을 잡아 죽이고 죽은 이를 대신하게 하는 일은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과연 도를 아는 군주였다. 태종은 황제의 누이였던 이옥영의 화장품과 옷가지, 장신구들을 모두 유전에게 하사하니, 마치 혼수를 보내는 것과 같았다. 또한 유전에게는 다시는 부역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어지를 내리며, 이옥영을 데리고 돌아가게 했다. 부부는 계단 앞에서 은혜에 감사 인사를 올린 뒤,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를 기리는 시로 이르되,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전생의 인연이니, 짧은 삶과 긴 삶은 저마다 정해진 세월이라. 유전은 과일을 바치러 갔다가 양세(陽世)로 돌아왔고, 이취련은 남의 몸을 빌려 혼을 되살렸네.

두 사람은 황제에게 작별을 고하고 곧장 군주 성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예전의 가업과 자식들이 모두 잘 지내는 것을 확인한 부부는, 자신들이 행한 선한 결과에 대해 널리 알리며 살았다.

한편, 울지공은 금은보화가 가득 든 창고를 가지고 하남 개봉부로 가서 상량을 찾아갔다. 상량은 본래 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내 장씨와 함께 집 앞에서 옹기그릇을 팔며 살고 있었다. 그가 버는 돈은 겨우 여비를 충당할 정도였으나, 그는 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하며, 남는 돈으로는 금은보화 모양의 종이를 사서 저승에 보낼 기록을 남기며 태워 보냈다. 덕분에 이런 선한 업보가 쌓

여 몸에 복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이승에서는 선량한 가난뱅이였으나, 저승에서는 금과 옥이 산처럼 쌓인 부자였던 셈이다.

울지공이 그 집 문 앞에 금은보화를 가져다 놓자, 상량과 장씨 부부는 혼비백산하여 어안이 빙빙해졌다. 게다가 그 지역 관리들까지 몰려들어 초가집 밖에는 수레와 말들이 줄을 이었다. 노부부는 낮이 나간 듯 멍하니 있다가 바닥에 엎드려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렸다.

울지공이 말했다. "어르신, 어서 일어나십시오. 제가 비록 임금님의 명을 받은 흠차관이지만, 우리 폐하께서 보내시는 금은보화를 가져와 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상량이 벌벌 떨며 대답했다. "소인은 빌린 금은보화가 전혀 없는데, 어찌 감히 이런 출처도 모를 재물을 받겠습니까?"

울지공이 말했다. "제가 알아보니 당신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스님들에게 공양하고 보시를 할 때마다 가진 것을 아낌없이 쓰고, 금은보화 모양의 종이를 사서 저승에 기록을 남기며 태웠다고 하더군요. 저승에 당신이 쌓아둔 돈과 재물이 있습니다. 우리 태종 황제께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저승에서 당신의 금은보화 한 창고를 빌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만큼을 그대로 돌려드리러 왔으니, 하나하나 다 받으십시오. 그래야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상량 부부는 하늘을 향해 절만 올릴 뿐, 감히 재물을 받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들이 말했다. "소인이 만약 이 금은보화를 받는다면 당장 죽고 말 것입니다. 비록 종이를 태워 저승에 기록을 남긴다 해도 그것

은 보이지 않는 저승의 일이 아니옵니까? 하물며 폐하께서 저승에서 금은보화를 빌리셨다니,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울지공이 말했다. "폐하 말씀으로는, 당신에게 빌린 물건에 대해 최판관이 보증을 서서 증명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서 받으십시오."

상량이 말했다. "죽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울지공은 상량이 완강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상소를 올려 보고했다. 태종은 상소를 읽고 상량이 금은보화를 받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선량한 어른이다"라고 감탄하며 말했다.

태종은 즉시 명을 내려, 호경덕에게 금은보화를 상량에게 전달하되, 그 돈으로 절을 수리하고 사당을 세우며 승려들을 청해 선행을 베풀게 함으로써 상량의 뜻을 대신 받들도록 하였다. 명을 받은 호경덕이 궁을 향해 절하며 은혜에 감사하고 교지를 선포하자,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어 호경덕은 금은보화로 성 안의 군민들이 거주하는 데 지장이 없는 넓은 땅을 샀는데, 그 넓이가 주변으로 50무(畝)에 달했다. 그곳에 공사를 시작하여 절을 세우고 이름을 '칙건상국사'라 하였다. 절의 왼쪽에는 상량과 장씨를 기리는 사당을 세우고 비석을 새겨 '울지공이 감독하여 지음'이라고 적어 넣었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상국사'이다.

공사가 마무리되자 태종은 매우 기뻐했다. 이어 여러 관리를 불러 모으고 방을 붙여 승려를 모집하니, 이는 수륙대회를 열어 저승의 외로운 혼령들을 천도하기 위함이었다. 방이 천하에 퍼지자 각지의 관리들은 도가 높은 고승을 추천하여 장안으로 보냈다. 한 달도 못 되어 천하의 많은 승려가 모두 모여들었다. 태종은 태사승 부혁(傅奕)에게 명하여 고승을 선출하고 불사를 준비하게 했다. 부혁은 명을 받자마자 즉시 상소를 올려 불교(浮圖)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처란 없다고 말했다. 상소의 내용은 이러했다. “서역의 법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의 도리가 없으며, 삼도육도(三塗六道)를 내세워 어리석은 이들을 현혹합니다. 지나간 죄를 들추고 다가올 복을 엿보며, 범어(梵言)를 외우는 것은 그저 죄를 면해보려는 속셈일 뿐입니다. 또한 삶과 죽음, 장수와 단명은 본래 자연의 이치이며, 형벌과 은덕, 위엄과 복은 군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속의 무리가 거짓을 일삼아 모두 부처 덕분이라 합니다. 오제와 삼왕의 시대부터 불법 따위는 없었으며, 임금이 명철하고 신하가 충성하니 나라의 운수가 길고 오래갔습니다. 한나라 명제 때에 이르러 비로소 오랑캐의 신을 세웠으나, 이는 서역의 사문(沙門)들이 제 교리를 전파한 것일 뿐입니다. 실로 오랑캐가 중국을 침범하는 것이니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태종은 이 말을 듣고 상소를 신하들에게 던지며 논의하게 했다. 이때 재상 소우가 나서서 허리를 굽히며 아뢰었다. “불법은 여러 왕조를 거치며 흥성해 왔습니다. 선을 널리 펴고 악을 막으며 보이지 않게 나라를 도우니 결코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는 성인이십니다. 성인을 부정하는 자는 법도가 없는 자이니, 청컨대 (부혁을) 엄한 형벌에 처하시옵소서.” 부혁이 소우와 논쟁하며 말했다. “예법의 근본은 부모를 섬기고 임금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부모를 등지고 출가하여, 한낱 필부의 몸으

로 천자에게 대항하고 예법을 어겨 부모를 거스르게 만듭니다. 소우는 공상(空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면서 부모 없는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니, 그야말로 효를 부정하는 자는 부모도 없다는 말과 같습시다.” 그러자 소우는 다만 합장하며 말했다. “지옥이 만들어진 까닭은 바로 이런 사람 때문입니다.” 태종은 태복경 장도원과 중서령 장사형을 불러 불사로 복을 짓는 일이 어떠할지 물었다. 두 신하가 대답했다. “부처는 맑고 깨끗하며 어질고 너그러우니, 그 정과(正果)는 부처의 공(空)에 있습니다. 북주(北周)의 무제(武帝)는 삼교의 차례를 매겼고, 대혜선사는 그 그윽하고 깊은 도를 찬탄하였으며, 수많은 공양을 거치면서도 그 영험이 드러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오조(五祖)가 환생하고 달마가 모습을 나타낸 일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삼교는 지극히 존귀하여 훼손하거나 폐할 수 없다고 해왔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성스러운 지혜로 살펴 결정해 주시옵소서.” 태종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경들의 말이 이치에 맞다. 다시 이를 반대하여 아뢰는 자가 있다면 죄를 물을 것이다.” 이에 태종은 위징과 소우, 장도원을 시켜 여러 부처를 모시게 하고, 덕행이 높은 자 한 명을 선출하여 단주(壇主)로 삼아 도량을 세우게 했다. 모든 신하가 머리를 조아려 은혜에 감사하며 물러갔다. 이때부터 법이 제정되었으니, 승려를 헐뜯거나 부처를 비방하는 자는 그 팔을 자르게 하였다.

다음 날, 세 명의 조정 대신과 여러 승려가 산천단에 모여 처음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며 선발한 끝에, 덕행이 높은 고승 한 명을 찾아냈다. 그가 누구인지 아는가? 시로 이르되,

본래 이름은 금선(金蟬)이라, 오직 무심하게 부처님의 법을 들었을 뿐이라. 속세로 몸을 옮겨 고통을 겪으며, 세상에 내려와 그물에 걸린 듯 살았구나. 태어나 땅에 떨어지자마자 흉한 일을 만나고,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악당을 마주했네. 아버지는 해주(海州)의 진 장원이요, 외할아버지는 조정의 총관이시라. 타고난 운명은 강물에 떨어지는 별과 같아, 물결을 따라 흘러 흘러 떠내려갔네. 해도(海島) 금산사와 큰 인연이 있어, 천안(遷安) 화상이 그를 길러냈구나. 열여덟 살에 친어머니를 알아보고, 외할아버지를 찾고자 장안으로 향했네. 총관 은개산(殷開山)이 대군을 일으켜, 홍주에서 도적을 소탕하고 악당을 베었도다. 장원 광예(光蕊)가 하늘의 그물을 벗어났으니, 부자가 서로 만남은 참으로 경사로다. 다시 황제를 뵈어 은혜를 입으니, 능연각의 어진 이름이 드높구나. 관직의 은혜는 사양하고 승려가 되기를 원하니, 홍복사의 사문으로서 도를 닦으려 하네. 어릴 적 이름은 강류(江流)라 옛 부처의 자식이라 불리고, 법명은 진현장(陳玄奘)이라 하느니라.

그날 모인 사람들 앞에서 현장 법사를 고승으로 추천하였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승려의 길을 걸었으며,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재계를 지키고 계율을 받았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당시 한 지방의 총관이던 은개산이었고, 아버지 진광예(陳光蕊)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문연전 대학사가 된 인물이었다. 그는 부귀영화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정진하며 적멸(寂滅)을 즐겼다. 조사해 보니 그의 근본은 매우 훌륭하고 덕행 또한 높았으며, 수많은 경전과 법문에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신령한 소리 또한 모르는 것이 없었다.

세 사람이 황제 앞에 나아가 먼지를 일으키며 춤추듯 예를 갖추어 절을 올린 뒤 아뢰었다. “저희 소우 등이 성스러운 명을 받들어 고승 한 분을 선발하였으니 바로 진현장입니다.” 태종이 그 이름을 듣고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그가 혹 학사 진광예(陳光蕊)의 아들 현장이냐?” 강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신이 바로 그러하옵니다.” 태종이 기뻐하며 말했다. “과연 틀림없이 잘 뽑았구나. 참으로 덕행이 높고 선심(禪心)이 깊은 스님이로다. 짐이 네게 좌승강(左僧綱)과 우승강(右僧綱), 그리고 천하의 대천도승강(大闡都僧綱) 직위를 내리노라.” 현장은 머리를 조아려 은혜에 감사하며 대천(大闡)의 관직을 받았다. 또한 오색 비단에 금실을 짜 넣은 가사 한 벌과 비로모(毘盧帽) 한 정을 하사받았다. 태종은 현장에게 마음을 다해 다시 명승들을 모으고 아사리(闍黎)들의 서열과 우두머리를 정하게 한 뒤, 황제의 뜻을 적은 문서를 들려 화생사로 보내 길일과 길시를 택하여 경전을 설파하는 법회를 열도록 명했다.

현장은 다시 한번 황제의 명을 받들고 물러나 화생사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 수많은 승려를 모으고, 참선할 때 앉을 선탑을 만들며, 공덕을 쌓기 위한 시설을 정비하고 음악을 준비했다. 크고 작은 명망 있는 승려 천이백 명을 선발하여 상·중·하 세 법당으로 나누어 배치했다. 모든 불단 앞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빠짐없이 갖추어 순서대로 정돈했다. 마침 올해 9월 초사흘이 길한 날인 것을 확인하고, 마흔아홉 날 동안 이어질 수륙대회를 시작하기로 정했다. 곧바로 황제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는 표문을 올렸다. 태종 황제와 문무백관, 그리고 황실의 친인척들이 약속한 날에 모두 모여 향을 피우며 법문을 들었다. 이 광경을 시로 읊으면 다음과 같다. 시로 이르되,

정관(貞觀) 13년 바로 그 해에 사람들이 모여드니, 임금의 대중을 불러 경전을 논하게 하네. 도량에는 끝없는 법문이 펼쳐지고, 구름과 안개 사이로 대원(大願)의 빛이 감도네. 황제의 은혜로 큰 사찰을 수리하니, 금선이 허물을 벗듯 서방으로 향하려 하네. 선한 과보를 널리 베풀어 침잠한 영혼을 구하고, 가르침을 받들어 전후 세대에 널리 알리리라.

정관 13년 기사년 9월 갑술 초사흘, 계묘의 길한 시각에 진현장 대창 법사가 장안성 화생사에서 천이백 명의 고승을 모아놓고 여러 종류의 묘한 불경을 설파하는 법회를 열었다. 황제는 조회를 마치자마자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봉련과 용차를 탄 채 금란보전을 나서서 곧장 절로 향해 향을 피우려 했다. 그 황제의 행렬이 어떠했는가? 참으로 이려하였다.

시로 이르되,

하늘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고 만 갈래 길에는 상서로운 빛이 쏟아지네. 어진 바람은 은은하게 감돌고 밝은 햇살은 더할 나위 없이 눈부시구나. 천 명의 관리들은 앞뒤로 줄을 지어 서 있고 오위의 깃발은 양옆으로 늘어섰네. 금과를 든 자와 도끼를 든 자들이 짝을 지어 위엄 있게 서 있고, 붉은 비단 등불과 향로의 연기는 장엄하게 피어오르네.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듯한 기세로 기운이 드높게 솟구치니, 성스러운 천자는 바르고 총의로운 대신들은 어질도다. 천 년의 복은 순과우의 시대를 지나 만대 태평성대는 요와 탕의 시대를 넘어서리라.

또한 구부러진 자루의 우산과 용이 수놓아진 곤룡포가 빛을 내뿜으며 서로 부딪치고, 옥으로 만든 연환과 채색 봉황이 그려진 부채가 상서로운 안개 속에 휘날렸다. 주관과 옥띠를 두르고 자색 띠와 금빛 장식을 찬 황제의 행렬을 호위하는 군사 천 대가 뒤따르고, 가마를 드는 장수들이 두 줄로 늘어섰다. 황제는 몸을 깨끗이 씻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공경하며, 선한 과보를 믿고 기쁜 마음으로 향을 피웠다.

당나라 왕이 일찍 절 앞에 도착하여, 악기와 악기 소리를 멈추라고 명령했다. 왕은 수레에서 내려 여러 관리들을 거느리고 불단 앞에 엎드려 향을 피우며 절을 올렸다. 세 번의 절을 모두 마치고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과연 훌륭한 도량이 펼쳐져 있었다.

시로 이르되,

깃발은 바람에 펄럭이며 허공에 오색 구름을 흔들고, 보배로운 덮개는 빛을 발하며 햇살 아래 붉은 번개처럼 번쩍이네. 부처님 금빛 형상은 온화하고 아름다우며, 나한의 옥 같은 얼굴은 위엄이 넘치네. 병에는 신령한 꽃이 꽃혀 있고, 향로에서는 백단향이 타오르니, 꽃 꽃힌 병은 비단 나무처럼 찬란하게 불국토를 수놓고, 향 피우는 연기는 맑은 하늘 끝까지 아스라이 피어오르네. 붉은 쟁반에는 싱싱한 과일이 쌓여 있고, 채색 상 위에는 진귀한 과자들이 가득하구나. 고승들이 줄지어 앉아 진경을 외우니, 외로운 영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비노라.

태종은 문무백관과 함께 향을 피우고 부처님의 금신과 나한들에게 절을 올렸다. 이어 대창도강 법사 진현장이 스님들을 이끌고 당나라 왕

에게 예를 갖추어 절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 예가 끝나자 각자 자리에 나누어 앉아 참선에 들었다. 법사가 태종에게 고혼을 구제하기 위한 방을 올리며 다음과 같이 적어 보였다.

"지극한 덕은 아득하고 선종의 도는 고요히 잠들었으나, 맑고 깨끗한 영험함은 삼계에 두루 흐르나이다. 천만 가지 변화로 음양을 다스리며, 참된 본체와 작용은 끝이 없나이다. 저 외로운 녀들을 살펴보니 가련하고 애처롭기 그지없사옵나이다. 이에 태종 황제 폐하의 성명을 받들어 여러 승려를 선발하여 참선과 법문을 펼치고자 하나이다. 편안한 문을 활짝 열어 자비의 배를 띄움으로써, 고통의 바다에 빠진 중생들을 널리 구제하고 육도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나이다. 참된 길로 인도하여 혼돈의 세상을 깨우치고, 움직임과 머무름이 무위의 경지에 이르러 순수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좋은 인연을 빌려 저승의 보상을 받고, 이 성스러운 모임을 타서 지옥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일찍이 극락에 올라 마음껏 노닐며, 서방 세계를 자유로이 오가게 하소서."

시로 이르되,

"한 솔 가득 영생의 향기 피어나고, 몇 권의 명부록으로 삶을 초월하네. 끝없는 미묘한 법을 널리 펼치니, 가없는 하늘의 은혜를 듬뿍 받도다. 원한과 업보는 모두 사라지고, 외로운 녀들은 모두 옥에서 나오리니, 부디 우리 나라를 보살펴 주시어, 만백성이 평안하고 복을 누리게 하소서."

태종이 이를 보고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며 승려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정성을 다해 마음을 세웠으니, 부디 불사를 게을리하지 말라. 훗날 공덕을 다 쌓아 복이 돌아올 때가 되면, 짐이 반드시 큰 상을 내릴 것이니 결코 헛된 수고를 하게 하지 않겠다.” 그러자 천이백 명의 승려가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다. 그날 삼재(三齋, 세 번의 공양)를 모두 마친 뒤 태종은 궁으로 돌아갔다. 칠 일 뒤에 있을 큰 법회를 기다리며 다시 향을 피워 올리기로 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가고 모든 관리도 물러갔다. 날이 얼마나 저물었는지 시로 이르되,

만 리 허공에는 노을빛이 흐릿하고 기어가는 까마귀 몇 마리 등지를 찾아 내려앉네 성안 가득 등불은 밝아도 인가에는 정적이 흐르니 바로 선승들이 선정에 드는 때로다

밤이 깊어 지나가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법사는 다시 자리에 올라 태종과 함께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한편, 남해 보타산의 관세음보살은 여래의 뜻을 받들어 장안성 안에서 경전을 구하러 떠날 선한 사람을 찾아다녔으나, 오랫동안 참된 덕을 갖춘 이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던 중 태종이 선한 업보의 결과를 널리 알리고 고승을 선출하여 큰 법회를 열 계획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또한 법회의 단주가 될 법사가 바로 강류야 스님인데, 그가 극락에서 내려온 불자이자 보살 자신이 직접 인도하여 환생시킨 장로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관세음보살은 매우 기뻐하며, 부처님께 받은 보물들을 들고 큰 거리로 나가 목차(木叉)와 함께 팔기 시작했다. 그 보물이 무엇인지 궁금한가? 하나는 비단처럼 화려하고 신비로운 가사요, 다른 하나는 아홉 개의 고리가 달린 석장이다. 또한 금(金)·긴(緊)·금(禁) 세

개의 고리(籠兒)도 나중에 쓸 것에 대비해 은밀히 잘 챙겨 두고, 우선은 가사와 석장만을 내놓아 팔았다.

장안 성 안에는 선발되지 못한 어리석은 승려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마을 돈 몇 꿰미가 있었다. 관세음보살이 오미 오른 듯 초라한 모습으로 변신하여, 해진 가사를 받쳐 들고 맨발에 까까머리인 채로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서 있자, 그 승려가 다가가 물었다. “이 문둥이 같은 스님, 그 가사는 얼마에 팔 건가?” 보살이 대답했다. “가사는 은 오천 냥이고, 석장은 은 이천 냥이라오.” 그러자 어리석은 승려가 웃으며 말했다. “이 문둥이 중 두 명은 미쳤거나 바보가 분명하군! 이 거친 물건 두 개를 은 칠천 냥이나 받고 팔겠다고? 입기만 하면 불로장생하고 부처나 조사(祖師)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이상, 이만한 값어치는 없지! 가져가 버려! 절대 못 팔아!”

보살은 다투지 않고 목차와 함께 앞으로 나아갔다. 한참을 걷다 보니 동화문 앞에 이르렀는데, 마침 재상 소우가 조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 수많은 하인이 길을 터주며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있었다. 보살은 이를 피하지 않고 길 한복판에서 가사를 든 채 당당히 재상을 향해 마주 나아갔다. 소우가 말을 멈추고 살펴보니 가사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수하에게 가사를 파는 자가 얼마를 부르는지 물었다. 보살이 말했다. “가사는 오천 냥, 석장은 이천 냥이오.” 소우가 물었다. “무슨 좋은 점이 있기에 이토록 비싸게 받는 것이오?” 보살이 대답했다. “가사에는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으며,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소.” 소우가 다시 물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지 않다는 말이오?” 보살이 말했다. “내 가사를 입

으면 침륜에 빠지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도 않으며, 악독한 재난이나 호랑이와 이리의 재앙을 겪지 않으니 이것이 좋은 점ियो. 하지만 음란하고 화를 즐기는 어리석은 승려, 재계와 계율을 지키지 않는 중, 경전을 훼손하고 부처를 비방하는 범부는 내 가사를 볼 수조차 없으니, 이것이 좋지 않은 점ियो.” 이어 소우가 물었다. “돈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는 무엇ियो?” 보살이 말했다. “불법을 따르지 않고 삼보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가사와 석장을 사려 한다면 반드시 칠천 냥을 받을 것이니 이것이 돈을 받는 경우요, 만약 삼보를 공경하고 선을 보면 기뻐하며 우리 부처님께 귀의하여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면, 내 기꺼이 가사와 석장을 드려 선한 인연을 맺을 것이니 이것이 돈을 받지 않는 경우요.” 소우는 이 말을 듣고 얼굴에 기쁜 빛이 가득해지며 보살이 참으로 좋은 사람임을 알아보았다. 그는 곧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어 보살을 맞이하며 말했다. “대법장로님, 저 소우의 결례를 용서하십시오. 우리 당나라 황제께서는 선행을 몹시 좋아하시어 조정의 문무백관이 모두 이를 받들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수륙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이 가사는 대도천(大都闡) 진현장 법사께서 입으시기에 딱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입궐하여 폐하를 뵙도록 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은 기쁘게 응하며 발걸음을 돌려 곤장 동화문 안으로 들어갔다. 황문관이 보고를 올리자, 보살은 황제의 명을 받아 보전(寶殿)으로 안내되었다. 전각 아래 계단에는 소우가 옴이 오른 듯 초라한 모습의 승려 두 명을 데리고 서 있었다. 태종이 물었다. “소우는 무슨 일로 왔는가?” 소우가 계단 앞에 엎드려 말했다. “신이 동화문 밖을 나서다가 우연히 두 승려를 만났는데, 가사와 석장을 파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현장 법사라면 이 옷을 입기에 마땅할 듯하여, 승

려들을 데리고 와 뵙게 하려 합니다.” 태종은 크게 기뻐하며 그 가사의 값이 얼마인지 물었다. 관세음보살은 목차(木叉)와 함께 계단 아래 서서 예도 갖추지 않은 채 가사의 값을 묻자 대답했다. “가사는 오천 냥이고, 석장은 이천 냥입니다.” 태종이 다시 물었다. “그 가사가 대체 무엇이 그리 좋기에 이토록 비싼 것인가?” 그러자 관세음보살이 대답했다. “이 가사는 용의 기운 한 줄기가 감돌아 대붕이 삼키려는 재앙을 면하게 하고, 학의 기운 한 가닥이 걸려 초범입성(超凡入聖)의 묘함을 얻게 합니다. 그저 앉아만 있어도 만 신이 경배하며, 움직일 때마다 일곱 부처님이 곁을 지키는 듯합니다. 이 가사는 얼음 누에가 뽑은 실을 정교한 장인이 엮은 뒤, 선녀들이 짜고 신녀들이 베틀로 완성하여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수놓은 것입니다. 조각조각 비단이 겹쳐져 찬란한 빛을 발하며, 색은 밝고 영롱하여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입으면 온몸에 붉은 안개가 감도는 듯하고, 벗으면 무지갯빛 구름이 날아오르는 듯합니다. 삼천문(三天門) 밖까지 원대한 빛이 뻗고, 오악산 앞에는 보배로운 기운이 서립니다. 서역의 연꽃 문양이 겹겹이 새겨져 있고, 별빛처럼 빛나는 구슬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네 귀통이에는 야명주가 박혀 있고, 정수리에는 에메랄드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비록 본래의 형체를 온전히 다 보여주지는 않으나, 그 자체로 여덟 가지 보물의 빛을 발합니다. 이 가사는 평소에는 정갈하게 접어 두었다가 성스러운 이를 만났을 때 입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접어 두면 천 겹이 무지개 빛을 머금고, 성스러운 이가 입으면 하늘과 땅의 신과 귀신들이 모두 놀랍니다. 가사 위에는 여의주, 마니주, 벽진주, 정풍주가 있으며, 붉은 마노와 자색 산호, 야명주, 사리(舍利子)까지 갖추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 하얗고 햇살을 다투는 듯 붉습니다. 가닥마다 신령한 기운이 허공을 가득 채우고, 송이마다 상서로운 빛이 성인을 받듭니다. 신령한 기운은

하늘의 문을 환히 비추고, 상서로운 빛은 온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산천을 비추면 호랑이와 표범이 놀라고, 바다와 섬을 비추면 물고기와 용이 요동칩니다. 가사의 가장자리에는 금으로 만든 두 줄의 사슬이 둘러져 있고, 옷깃에는 백옥 종(琮)이 고리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시로 이르되, “삼보의 위엄은 높고 높아 존귀하니, 사생육도(四生六道)의 모든 이들이 우러러 논하네. 마음을 밝혀 인천(人天)의 법을 기르고, 본성을 깨달아 지혜의 등불을 전하리. 몸을 지키는 장엄함은 금빛 세계와 같고, 몸과 마음은 옥병의 얼음처럼 맑구나. 부처님이 가사를 만드신 이래로, 만 겹의 세월 동안 누가 감히 승려를 끊으리오?”

태종은 보전 위에서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다시 물었다. “그 스님이 가진 구환장(九環杖)은 대체 어떤 이점이 있소?” 그러자 관세음보살이 대답했다. “이 석장은 이러합니다.

구리 테를 두른 철제 지팡이 아홉 개의 고리, 신령한 등나무 아홉 마디는 젊은 얼굴을 영원히 지켜주네. 손에 쥐면 푸른 뼈가 드러나도록 수척해 보여도, 산을 내려올 땐 흰 구름을 가볍게 거느리고 돌아오리라. 마하(摩訶)와 오조(五祖)가 천계의 궁궐을 노닐고, 나복(羅卜)이 어머니를 찾아 지옥의 문을 깨뜨리듯, 속세의 더러움에 조금도 물들지 않은 채, 신령한 스님을 모시고 기쁘게 옥산으로 올라가리라.”

태종은 그 말을 듣고 즉시 가사를 펼쳐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다. 과연 예사 물건이 아니었다. 태종이 말했다. “대법장로, 사실대로 말하겠소. 짐이 지금 선교(善敎)를 크게 열어 널리 복전(福田)을 일구려 하는데, 화생사에 많은 승려가 모여 경전을 설파하는 것을 보았소. 그들 가운데 덕행이 매우 높은 자가 있으니 법명이 현장이라오. 짐이

그대의 이 보물 두 점을 사서 그에게 주어 쓰게 하고 싶소. 도대체 값을 얼마로 치겠소?” 관세음보살은 그 말을 듣고 목차(木叉)와 함께 합장하며 불호를 외우더니, 몸을 굽혀 아뢰었다. “덕행이 높은 분이라면 이 빈승이 기꺼이 그분께 드리고 싶으니, 결코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보살은 곧장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태종이 급히 소우를 시켜 붙잡게 하고, 몸을 굽혀 전각 위에 서서 물었다. “그대가 아까는 가사가 오천 냥, 석장이 이천 냥이라고 하지 않았소? 짐이 사겠다고 하니 갑자기 돈을 안 받겠다고 하니, 혹시 짐이 황제의 권세를 믿고 그대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고 여기는 것이오? 그럴 리가 있겠소. 짐이 원래 말한 값대로 갚아줄 터이니 부디 거절하지 마시오.” 보살이 손을 들어 대답했다. “빈승에게는 이미 세운 서원이 있습니다. 원래 삼보를 공경하고 선을 보면 기뻐하며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폐하께서 밝은 덕으로 선을 권하시고 우리 불문을 공경하시며, 더구나 고승이 덕과 행실을 갖추어 큰 법을 널리 펴고 있으니, 마땅히 바쳐야 할 일이라 결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빈승은 이 물건을 두고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태종은 보살의 이토록 간곡하고 정성스러운 태도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즉시 광록시(光祿寺)에 명하여 성대한 채식 잔치를 베풀어 보답하게 했다. 그러나 보살은 다시 한번 단호히 거절하고는 유유히 떠나, 예전처럼 도성의 토지 신당에 숨어들었으니 더는 말하지 않는다.

한편, 태종이 낮 조회(午朝)를 열고 위징에게 명을 내려 현장을 불러들이게 했다. 마침 법사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단 위에 올라 경전을 읽고 계송을 읊고 있던 차였다. 황제의 명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현장은 곧바로 단에서 내려와 옷매무새를 정돈한 뒤, 위징과 함께 황제

를 알현하러 나아갔다. 태종이 말했다. “선한 일을 이루는 데 법사께서 애를 써주시니, 보답할 물건이 마땅치 않아 송구할 따름이오. 아침에 소우가 두 스님을 맞이하였는데, 비단으로 만든 보물 같은 가사 한 벌과 아홉 고리가 달린 석장 하나를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사를 특별히 불러 이 보물들을 받아 쓰게 하려는 것이오.” 현장이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에 감사했다. 태종이 다시 말했다. “법사께서 괜찮다면, 그것을 직접 입고 짐에게 한 번 보여주시오.” 그러자 법사는 가사를 펼쳐 몸에 걸치고 석장을 손에 든 채 계단 앞에 섰다. 이를 지켜보던 군신들은 모두 기뻐하며 감탄했다. 참으로 여래의 제자다운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보라. 시로 이르되,

위엄 있는 얼굴은 더없이 우아하고, 불가의 가사는 몸에 꼭 맞게 재단된 듯하구나. 눈부신 빛은 온 천지에 가득하고, 화려한 비단 무늬는 우주를 머금었네. 맑게 빛나는 명주가 위아래로 늘어섰고, 겹겹이 수놓은 금실은 앞뒤로 꿰어졌네. 사방을 두른 도라면(兜羅) 비단 테두리에는 만 가지 기이한 무늬가 수놓아져 있구나. 여덟 가지 보물로 장식하고 비단실로 단추를 묶었으며, 금고리로 옷깃을 여미고 융단추를 달았네. 하늘의 부처들이 크고 작게 높낮이로 늘어서고, 별자리의 존비가 좌우로 나뉘었네. 현장 법사가 참으로 인연이 깊어 눈앞의 이 물건을 감당할 만하도다. 마치 극락의 살아 있는 아라한 같으니 서방 정토의 참된 깨달음보다 빼어나구나. 석장의 아홉 고리는 짤랑이며 부딪치고, 비로모(毘盧帽)는 빛나고도 풍성하도다. 참으로 부처님의 제자라는 말이 헛되지 않으니 보리(菩提)보다 더하여 거짓이 없도다.

문무백관들이 앞다투어 환호하며 축하했다. 태종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즉시 법사에게 가사와 석장을 입혀 주었다. 또한 두 팀의 수행단을 붙여 많은 관리가 그를 배웅하며 궁궐 문 밖으로 나가게 했다. 마치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한 이가 행차하듯, 큰길을 따라 절까지 당당하게 행진하게 한 것이다.

현장은 태종에게 거듭 절하며 은혜에 감사했다. 그는 장안의 큰길을 위풍당당하게, 또 활기차게 걸어 나갔다. 장안 성안의 장사꾼과 상인, 귀한 집 자제들, 문인과 시인,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길가에 모여들어 구경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대단한 법사로드! 마치 살아있는 나한이 내려온 듯하고, 살아있는 보살이 세상에 나타난 것 같구나!"

현장이 절에 도착하자 스님들이 마중을 나왔다. 그가 가사를 걸치고 석장을 짊고 있는 모습을 보자, 모두들 지장보살이 오신 줄로 알고 각자 그에게 귀의하며 좌우를 모셨다. 현장이 전각에 올라 향을 피우고 불공을 드린 뒤, 성스러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모두에게 전하고 각자 참선하는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붉은 해가 서쪽으로 저물었다.

시로 이르되,

해는 지고 안개는 풀과 나무 사이로 번지는데, 황제의 도읍에는 종과 북소리가 처음 울려 퍼지네. 땡땡 세 번 울리는 종소리에 사람들의 발길 끊기고, 앞뒤 거리에는 적막만이 감도네. 사찰은 등불로 찬란하

게 빛나는데, 외딴 마을은 고요하여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네. 선승은 참선에 들고 남은 경전을 읽으니, 마귀를 물리치고 본성을 기르기에 딱 좋은 때로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7일째 되는 날이 되었다. 현장은 다시 표문을 올려 당 태종에게 향을 피워 달라고 청했다. 이때 현장의 훌륭한 설법 소리가 천하에 가득 울려 퍼졌다. 태종은 즉시 가마를 준비하고 문무백관과 황후, 왕실 친척들을 거느린 채 서둘러 절로 향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나이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절로 모여들어 법문을 듣고자 했다.

이때 한 보살이 목차라와 함께 말했다. "오늘은 수륙대회가 열리는 날이니, 일곱 번의 일곱 번을 거듭하는 길일이라 참으로 좋은 날이로구나.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첫째로는 법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둘째로는 금선자가 복이 있어 내 보물을 입게 될지 지켜보며, 셋째로는 그가 어떤 경법을 설하는지 들어보자꾸나." 두 사람은 곧장 사찰로 들어갔다. 인연이 닿아 옛 지인을 만나게 되었으니, 반야의 도가 본래의 도량으로 돌아온 격이었다. 사찰 안으로 들어가 구경하니 참으로 이러하였다.

시로 이르되, "하늘 아래 큰 나라는 과연 사바세계보다 뛰어나구나. 기원정보다 훌륭하고 상찰 조제에도 뒤지지 않네. 신령스러운 소리는 울려 퍼지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드높구나."

보살이 다보대 곁에 이르니, 과연 명지금선의 모습이었다. 시로 이르되,

만물이 맑고 밝아 티끌 하나 없으니, 현장이 높은 대 위에 앉아 법을 설하도다. 외로운 혼백도 어둠을 뚫고 찾아와, 시냇물 흐르듯 높은 법음을 듣는구나. 인연 따라 물건을 베풀어 길을 닦으니, 뜻을 따라 태어나 문이 열리도다. 한량없는 법을 설하며 마주하니, 남녀노소 모두 기쁜 마음 품는구나.

또 시로 이르되,

법계의 강당을 노닐다 보니, 속되지 않은 벗을 만나니 반갑구나. 눈앞의 천만 가지 일을 다 이야기하고, 세월의 억겁에 쌓인 공덕도 논하네. 법의 구름은 산맥처럼 장엄하게 펼쳐지고, 가르침의 그물은 온 하늘에 가득하도다. 인생의 선한 마음을 돌아보게 하니,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려 흠날리네.

그 법사가 법단 위에서 한참 동안 《수생도망경》을 읽고, 또 한참 동안 《안방천보전》을 설한 뒤, 다시 한참 동안 《권수공》을 선포했다. 이때 보살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보석으로 장식된 법단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엄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이봐, 스님! 그대는 소승(小乘, 부처의 가르침 중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가르침)의 교법만 설할 줄 알지, 대승(大乘,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큰 가르침)의 교법도 설할 줄 아는가?"

현장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법단 아래로 뛰어 내려와 보살에게 예를 갖추며 말했다.

"스승님, 제자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죄가 큼니다. 방금 전까지 여러 승려가 설하는 것을 보았으나, 모두 소승의 교법만을 이야기할 뿐 대승의 교법이 어떠한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보살이 말했다.

"그대가 말하는 소승의 교법으로는 죽은 이를 구제하여 저세상으로 건너가게 할 수도 없고, 그저 세속의 흐름에 맞춰 적당히 어울리며 빛을 감출 뿐이다. 나에게는 죽은 이를 초월시켜 하늘로 올리고, 고통에 빠진 이를 구제하며, 무량한 수명을 지닌 몸을 닦게 하고, 나고 죽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승 불법의 삼장(三藏)이 있다."

법회가 열리고 있는 곳에서 향을 관리하는 순당의 관리가 급히 달려와 태종에게 고했다. "법사님께서 묘법을 설하고 계시는데, 피부병에 걸린 떠돌이 승려 둘이 나타나 엉뚱한 소리를 하며 법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서 잡아 오겠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 두 승려를 뒤쪽 법당으로 밀어 넣었다. 태종이 그들을 마주하자, 승려들은 손을 들지도, 절을 하지도 않은 채 고개를 치켜들고 말했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저에게 물으십니까?"

태종은 그를 알아보았다. "그대는 며칠 전 내게 가사를 가져다준 그 스님이 아닌가?" 보살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태종이 말했다. “그대가 이곳에 와서 법을 듣고자 한다면 그저 재를 받으며 조용히 있으면 될 것을, 어찌하여 우리 법사님과 실없는 소리를 나누며 경당을 어지럽히고 불사에 방해를 준단 말이냐?”

그러자 보살이 말했다. “폐하의 법사가 설하는 것은 소승(小乘)의 교법이라, 죽은 이들을 구제하여 하늘로 올릴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대승(大乘)의 불법과 삼장(三藏)이 있으니, 죽은 이를 구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태종은 안색을 바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물었다. “그대가 말하는 대승의 불법은 어디에 있단 말이냐?”

보살이 답했다. “서쪽 하늘 천축국의 대뇌음사에 계시는 여래 부처님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백 가지 원한의 매듭을 풀어주고, 억울한 재앙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태종이 다시 물었다. “그곳을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종이 크게 기뻐하며 명령했다. “법사를 불러 저 스님을 모셔 오너라. 그리고 저 스님을 단상 위로 모셔 법을 설하게 하라!”

관세음보살은 정병과 버들가지를 받쳐 들고 높은 대 위로 날아올라 상서로운 구름을 밟고 구소(九霄)까지 올라가,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본모습을 드러냈다. 왼쪽에는 목차혜안(木叉惠岸)이 몽둥이를 쥐고 기운차게 서 있었다. 이 광경을 본 당 태종은 기뻐하며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고, 문무백관은 땅에 엎드려 향을 피우며 경배했다. 절 안에

모인 승려와 비구니, 도사와 속인, 선비와 장인·상인 등 그 누구도 절하며 빌지 않는 이가 없이 “좋으신 보살님! 좋으신 보살님!” 하고 외쳤다. 이를 찬양하는 글이 있어 증거로 삼으니, 그 모습을 보라.

상서로운 안개가 어지러이 흩날리고 길상한 빛은 법신을 보호하네. 구소의 은하 속에서 여진인(女真人)의 모습이 나타나도다.

그 보살은 머리에 금빛 잎사귀와 비취꽃으로 장식하여 금광과 상서로운 기운을 내뿜는 구슬 영락을 드리우고, 몸에는 은은한 빛깔에 금룡과 채색 봉황이 어우러진 흰 바탕의 푸른 도포를 입었다. 가슴에는 달빛을 마주하고 맑은 바람에 흔들리며 온갖 보주와 비취옥을 꿰 향기로운 옥패를 걸었고, 허리에는 빙잠 실로 짜고 금박을 두른, 채운을 밟고 요해(瑤海)에 다가서는 듯한 화려한 비단 치마를 둘렀다. 앞에는 동양 바다를 날고 온 세상을 다니며 은혜에 감응하여 효를 행하는, 노란 털에 붉은 부리를 가진 흰 앵무새 한 마리를 거느렸다. 손에는 은혜를 베풀어 세상을 구제하는 보배 병을 받쳐 들었는데, 그 병 안에는 푸른 하늘을 적시고 큰 악을 흽으며 남은 안개를 쓸어내는 버들가지가 꽂혀 있었다. 옥 고리는 수놓은 듯한 매듭을 꿰고, 발아래에는 금련(金蓮)이 깊이 어렸다. 삼천(三天)을 마음대로 드나드시니, 이분이야말로 고통과 재난에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세음보살이시다.

당 태종은 나라(강산)도 잊은 채 기뻐했고, 문무백관 또한 조정의 예법을 잊은 채 모두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쳤다. 태종은 즉시 명을 내려, 그림 솜씨가 뛰어난 화공에게 보살의 진상(眞像)을 그리게 했다. 명이 떨어지자, 신을 그리고 성인을 그려내는 식견 높고 안목이 밝은 오도자(吳道子, 훗날 능연각에 공신을 그린 바로 그 사람)가 뿔혀 나왔

다. 그는 곧 묘한 붓을 펼쳐 그 참모습을 그려냈다. 보살이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점점 멀어지더니 순식간에 금빛도 사라졌다. 그때 허공에서 종이 한 장이 뱅글뱅글 돌며 내려왔는데, 그 위에는 몇 구절의 송(頌)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송에 이르되,

대당의 임금께 올리나니, 서방에 묘한 경문이 있도다. 그 길은 십만 팔천 리, 대승의 법을 정성껏 구하라. 이 경전을 가져와 나라에 전하면, 귀신을 구제하여 무리에서 벗어나게 하리니. 기꺼이 가려는 자가 있다면, 정과(正果)를 이루어 금신(金身)을 얻으리라.

태종은 송을 보고 승려들에게 명했다. “이 성대한 법회를 잠시 거두어 두었다가, 내가 사람을 보내 대승의 경전을 가져오게 하면, 그때 다시 정성을 다해 선과(善果)를 닦도록 하겠다.” 모든 관리도 그 명을 따랐다. 그때 절 안에서 태종이 물었다. “누가 짐의 뜻을 받들어 서천으로 가서 부처님께 경전을 구해오겠느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곁에서 한 법사가 나서며 황제 앞에 예를 갖추어 말했다. “재주 없는 소승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여, 폐하를 위해 진경(眞經)을 구해와 우리 임금의 강산이 영원히 굳건하기를 빌고자 하옵니다.” 당 태종은 크게 기뻐하며 다가가 어수(御手)로 그를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다. “법사가 참으로 이렇게 충성과 어짙을 다하여, 길이 멀고 산천을 헤쳐가야 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짐은 기꺼이 그대와 의형제를 맺고 싶소.” 현장이 머리를 조아려 은혜에 감사했다. 당 태종은 참으로 어질고 덕이 높아, 절의 불단 앞으로 가서 현장과 네 번 절을 나누며 “어제 성승(御弟聖僧)”이라 불렀다. 현장은 감격해 마지않으며 말했다. “폐하, 소승이 무슨 덕과 능력이 있기에 이토록 하늘 같은 은혜를 입겠습니까

까? 제가 이번에 가서 반드시 몸을 바쳐 노력하여 서천에 이를 것이며, 만약 서천에 닿지 못하고 진경을 얻지 못한다면 죽어도 감히 나라로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침륜의 지옥에 떨어지겠습니다.” 그러고는 불단 앞에서 향을 피우며 이로써 맹세를 삼았다. 당 태종은 매우 기뻐하며 즉시 행차를 거두게 하고, 좋은 날을 골라 통첩을 내어 길을 떠나게 하기로 한 뒤, 이에 가마를 돌려 모두 헤어졌다.

현장은 다시 흥복사로 돌아왔다. 그 절에는 많은 승려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미 서방 취경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모두 그를 맞이하러 나왔다. 제자들이 물었다.

"서천으로 떠나겠다는 서원이 정말이십니까?"

현장이 대답했다.

"정말이다."

그러자 제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스승님, 듣기로 서천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여 호랑이와 표범, 그리고 온갖 요괴가 들끓는다고 합니다. 가더라도 돌아오지 못할까 두렵고,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듯하여 걱정됩니다."

현장이 말했다.

"나는 이미 큰 서원을 세웠으니, 진경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해매게 될 것이다. 또한 황제의 은혜를 입었으니, 마땅

히 충성을 다해 나라에 보답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번 여정은 참으로
아득하고 막막하여 길흉을 예측하기 어렵구나."

현장이 이어 말했다.

"제자들아, 내가 떠나고 나서 3~2년이 지나든, 혹은 5~7년이 지나
든, 만약 절 문 앞 소나무 가지가 동쪽을 향해 있다면 내가 돌아온 것이
니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다.

다음 날 아침, 태종은 문무백관을 불러 모아 조회를 열고, 서방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데 필요한 통행증을 작성한 뒤 통행 보인을 찍어
완성했다. 이때 흠천감에서 보고하기를, "오늘은 길을 떠나기에 아주
좋은 길한 날입니다"라고 하였다. 태종은 크게 기뻐했다. 이어 황문관
이 들어와 "의제 법사께서 문밖에서 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라고 보
고했다. 태종은 즉시 법전을 향해 그를 불러들여 말했다.

"의제, 오늘은 먼 길을 떠나기에 아주 좋은 날이오. 여기 통행증을
주겠소. 그리고 여행 중에 공양을 올릴 때 쓰라고 자금으로 만든 발우
도 하나 더 챙겨주겠소. 수행을 함께할 수행자도 두 명쯤 골라보시오.
또한 먼 길을 달릴 수 있도록 말 한 필도 하사할 테니, 이 물품들을 가
지고 바로 길을 떠나시오."

진현장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은혜에 감사 인사를 올리고 물품들을
챙겼다. 조금도 지체할 마음이 없었다. 태종은 가마를 내어 여러 관리
와 함께 관문 밖까지 배웅하러 나갔다. 흥복사의 스님들과 제자들이 이

미 관문 밖에서 기다리며 진현장의 여름과 겨울 옷가지들을 모두 챙겨 놓았다. 태종은 그 모습을 보고 먼저 짐과 말을 정돈하게 한 뒤, 관리에게 명하여 술병을 들고 술을 따르게 했다.

태종은 술잔을 들어 올리며 다시 물었다. "의제의 법명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겠소?"

진현장이 대답했다. "빈승은 출가한 몸이라 감히 이름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태종이 말했다. "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천에는 경전을 간직한 삼장법사가 있다고 하셨소. 의제가 경전의 이름을 따서 '삼장'이라는 호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소?"

진현장은 다시 한번 은혜에 감사하며 황제가 내린 술을 받아 들고 말했다. "폐하, 술은 승려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계율이기에, 빈승은 사람됨을 생각하여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태종이 말했다. "오늘 떠나는 길은 다른 일과는 다르지 않소. 이것은 평소 마시는 술이 아니니, 딱 이 한 잔만 마셔서 나의 송별하는 마음을 받아주시오."

삼장법사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술을 받아 들었다. 막 술을 마시려는데, 태종이 고개를 숙여 손가락으로 흠 한 줌을 집어 술 속에 톹 하고 털어 넣는 것이 아닌가. 삼장법사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태종이 웃으며 말했다.

"의제, 이번에 서천까지 갔다가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소?"

삼장법사가 답했다. "넉넉히 3년이면 다시 이 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태종이 말했다. "길고 긴 세월 동안 산은 멀고 길은 험할 것이니, 의제는 이 술을 마시고 명심하시오. '고향의 흙 한 줌을 그리워할지언이, 타향의 황금 만 냥을 탐내지 말라'고 말ियो."

삼장법사는 그제야 흙 한 줌에 담긴 깊은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은혜에 감사하며 술을 단숨에 비웠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올린 뒤 관문을 나섰다. 태종은 가마를 돌려 궁으로 돌아갔다.

결국 이번 여정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3회 — 호랑이 굴에 빠진 위기를 금성 태자가 해결하고, 쌍차령에서 백함이 승 려를 머물게 하다

陷虎穴金星解厄 雙叉嶺伯欽留僧

관음보살이 금선(金蟬)으로 화현하다 제14회: 마음의 원숭이가 바른
길로 돌아오고, 여섯 도둑은 자취를 감추다

시로 이르되,

대당의 왕이 어명을 내려 봉하니, 임명을 받은 현장은 선종의 진리
를 묻는구나. 굳은 마음 같고 닦아 용의 굴을 찾듯 정진하며, 지극한 뜻
으로 수련하여 영취봉(靈鷲峰)에 오르네. 변방을 지나 수많은 나라를
유람하고, 구름 낀 산천을 지나 만 갈래 길을 넘어가리라. 이제 수레를
몰아 서쪽으로 떠나니, 부처의 가르침을 받들어 대공(大空)의 도를 깨
달게 되리라.

한편, 이야기는 이러하다. 현장이 정관 13년 9월 보름을 사흘 앞둔 날(열이튿날), 당나라 황제와 여러 관리의 배웅을 받으며 장안 성문을 나섰다. 말은 쉬지 않고 하루 이틀을 달려 곧 법문사에 도착했다. 이 절의 주지인 상방장로가 오백여 명의 승려를 거느리고 양옆으로 늘어서 현장을 맞이하며 정중히 차를 대접했다. 차를 마신 뒤 공양을 올리고 나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

시로 이르되,

그림자는 은하수에 닿을 듯 움직이고 달빛은 티 없이 맑게 비치네.
기러기 울음소리 은하수 너머 멀리 들려오고 다듬이질 소리는 이웃집에 울려 퍼지네. 돌아온 새들은 마른 나무에 깃들고 선승들은 모여 앉아 범어 소리 읊조리니 방석 깔린 평상 위에 앉아 밤이 깊도록 정진하네.

승려들이 등불 아래 모여 불문의 가르침과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떠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이는 길이 멀고 산이 높아 힘들 것이라 말했고, 어떤 이는 호랑이와 표범이 출몰하는 험한 길이라 말했으며, 또 어떤 이는 가파른 절벽과 험준한 고개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독한 마물과 악한 요괴를 물리치기 힘들 것이라 말했다.

삼장법사는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손가락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리키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승려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해 합장하며 여쭙었다.

"법사님, 어찌하여 마음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이시는지요?"

삼장법사가 대답했다.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마물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마물도 사라지는 법입니다. 제자가 일찍이 화생사에서 부처님 앞에 큰 서원을 세웠기에, 이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여정은 반드시 서천에 도달하여 부처님을 뵙고 경전을 구해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법륜이 쉽 없이 돌아가게 하고, 성스러운 주군과 대당의 국운이 영원히 굳건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승려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가 감탄하며 입을 모아 외쳤다.

"참으로 충성스럽고 담대하며, 불법을 크게 펼치시는 법사님이시로다!"

그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삼장법사를 잠자리로 정중히 모셔 안락히 잠들 수 있도록 도왔다.

대나무를 두드리는 소리에 잔달이 지고, 닭 울음소리와 함께 새벽 구름이 피어오르는 아침이 밝았다. 승려들이 일어나 차를 준비하고 아침 공양을 차렸다. 현장은 가사를 걸쳐 입고 정전으로 올라가 불전 앞에 절하며 말했다.

"제자 현장은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떠납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은 어리석고 미혹되어 살아있는 부처님의 참된 모습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에 오늘 서원을 세우나니, 길을 가다 사찰을 만나면 향을 피우고, 부처님을 만나면 절을 올리며, 탑을 만나면 정성껏 쓸겠습니다. 부디 부처님의 자비로 하루빨리 장육신(丈六身, 2.88미터 높이의 거대한

불상 모습)을 나타내시어, 참된 경전을 내려주시어 동방의 땅에 전하게 하소서."

축원을 마친 현장은 방장실로 돌아가 공양을 들었다. 공양을 마친 후 두 수행자가 말과 안장을 정돈하며 서둘러 길을 떠나자 재촉했다. 삼장법사는 산문을 나서며 승려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승려들은 차마 헤어지기 아쉬워 십 리 길을 눈물 흘리며 배웅하고 돌아갔다. 삼장법사는 곧장 서쪽을 향해 나아갔다. 때는 마침 늦가을이라 풍경은 이리했다.

몇몇 마을엔 낙엽이 지고 갈대꽃이 흩날리며, 몇몇 나무엔 단풍잎이 붉게 떨어지네. 길 위엔 안개비 내리고 옛 친구는 드문데, 노란 국화는 곱고 산줄기는 가냘프며, 물은 차갑고 연꽃은 저 가니 사람의 모습 초췌하구나. 물가엔 흰 사초와 붉은 마디풀이 서리 맞은 하늘 아래 피어 있고, 지는 노을 사이로 외로운 오리가 드넓은 하늘을 가로지르네. 어스레한 들구름은 희미하게 날아다니고, 제비는 떠나고 기러기가 찾아오니, 밤을 깨우는 울음소리만 처량하게 들려오네.

스승과 제자 일행이 며칠을 나아가 공주성에 이르니, 이미 공주성의 관리와 백성들이 마중 나와 성 안으로 안내했다. 하룻밤 편히 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성을 나섰다. 길 위에서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며, 밤에는 머물고 새벽에는 길을 떠나기를 이삼 일 만에 다시 하주위에 도착했다. 이곳은 대당의 산하가 끝나는 변방이었다.

마침 변방을 지키던 총병과 이곳의 승려, 도사들은 임금의 명을 받든 어제(御弟, 황제의 의동생)인 법사가 서천으로 부처님을 뵈러 간다

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했다. 그들은 일행을 안으로 모셔 대접하며, 승관(僧綱)을 통해 복원사로 가서 쉬도록 안내했다. 복원사의 승려들도 한 명씩 나와 인사를 올리고 저녁 공양을 준비했다. 공양을 마친 뒤에는 두 수행자에게 말에게 먹이를 충분히 주라고 일러두고, 날이 밝기도 전에 길을 떠날 채비를 했다.

닭이 울자 현장은 수행자들을 불러 깨우고, 사찰의 승려들을 놀라게 하며 차와 공양물을 정성껏 준비하게 했다. 공양을 마친 뒤에는 국경을 떠났다. 현장은 마음이 급해 너무 일찍 일어난 탓이었다. 때는 이미 가을이 깊어 닭이 아주 일찍 울었으니, 겨우 사경(四更, 새벽 두 시 무렵)이었다. 세 사람에게 말 한 마리, 모두 합쳐 네 식구는 차가운 서리를 맞으며 밝은 달빛 아래 길을 나섰다. 수십 리쯤 갔을까, 눈앞에 산등성이가 나타났다. 길을 찾으려 풀을 헤치며 나아갔으나 길은 말할 수 없이 험하고 굽이져 있었고, 혹시 길을 잘못 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한창 의구심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세 사람과 말이 모두 구덩이 속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현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수행자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겨우 공포를 추스르려는데, 안쪽에서 무시무시한 포효와 함께 "잡아라! 잡아라!"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며 오륙십 명의 요괴가 떼 지어 나타나 현장과 수행자들을 낚아채 갔다. 현장은 벌벌 떨며 눈치를 살피며 위를 올려다보았는데, 그곳에 앉아 있는 마왕의 모습이 실로 흉악했다.

시로 이르되, "웅장한 위엄은 서슬 퍼렇고, 사나운 기세는 당당하구나. 번뜩이는 눈빛은 번개 같고, 호통치는 목소리는 천둥처럼 사방을

뒤흔드네. 톱날 같은 이빨을 드러내고, 끌로 판 듯한 치아를 흰히 보여주며, 화려한 무늬로 몸을 감싸고, 얼룩진 무늬로 등줄기를 덮었네. 강철 같은 수염 사이로 살점이 보이고, 갈고리 같은 발톱은 서리처럼 날카롭구나. 동해의 황공(黃公)도 두려워할 만하니, 바로 남산의 백액대왕(白額大王, 이마 흰 호랑이)이로다."

그 기세에 현장은 혼비백산하였고, 두 수행자는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마왕이 호통을 치며 묶으라고 명령하자, 요괴들이 일제히 밧줄로 세 사람을 꽂꽂 묶었다. 이제 막 잡아먹으려던 찰나,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누군가 달려와 보고했다. "웅산군과 특처사, 두 분께서 오셨습니다!" 현장이 그 소리에 고개를 들어 보니, 앞장서 오는 이는 검은 빛을 띤 사내였다. 그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용맹하고 담력이 크며, 몸집은 탄탄하고 날렵하도다. 물속에서는 힘이 넘치고, 숲속을 달릴 때는 위엄이 대단하구나. 예부터 길몽을 불러오더니, 이제 홀로 영웅의 자태를 드러내네. 푸른 나무도 꺾을 수 있으니, 추위가 닥칠 때를 잘 아는구나. 신령한 기운이 나타나는 곳에 있으니, 이름하여 웅산군이라 하도다."

그 뒤를 따라오는 이는 뚱뚱한 사내였다. 그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우뚝 솟은 두 뺨은 관 같고, 어깨와 등은 엄숙하게 솟았도다. 푸른 옷을 입어 성격은 차분하나, 발걸음은 무겁고 느릿하구나. 아비 쪽은 그 이름을 고(牯, 황소)라 하고, 어미 쪽은 본디 자(牝, 암소)라 부른다네. 밭을 가는 데 공이 크니, 이름하여 특처사라 하도다."

두 요괴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가자, 요괴 왕이 허둥지둥 달려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웅산군이 말했다. "인장군께서 그동안 기세가 등등하셨다니, 정말 축하할 일이오, 축하할 일이야." 특처사도 거들었다. "인장군의 풍채가 예전보다 더욱 뛰어나니, 참으로 기쁜 일이구려, 참으로 기뻐." 요괴 왕이 물었다. "두 분께서는 요 며칠 어떻게 지내셨소?" 웅산군이 답했다. "그저 평소처럼 지냈을 뿐이라오." 특처사가 말했다. "그저 때에 맞춰 움직였을 뿐이지요." 세 사람은 인사를 나누고 는 각자 자리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수행자는 뽕뽕 묶인 채 고통에 겨워 비명을 질러댔다. 그러자 검은 피부의 사내가 물었다. "이 세 놈은 어디서 온 자들이냐?" 마왕이 대답했다. "제 발로 찾아온 놈들입니다." 특처사가 웃으며 말했다. "손님 대접은 좀 할 수 있겠소?" 마왕이 말했다. "그럼요, 아주 잘 모셔야지요." 웅산군이 거들었다. "다 먹어 치우지는 말고, 둘은 잡아먹고 하나는 남겨둡시다." 마왕이 그 말을 듣고는 즉시 좌우의 부하들을 불러 두 수행자의 배를 가르고 심장을 꺼내게 한 뒤, 시신을 갈가리 찢게 했다. 그러고는 머리와 심장, 간을 두 손님에게 바치고, 팔다리는 자신들이 먹었으며, 남은 살점과 뼈는 각 요괴에게 나누어 주었다. 우드득 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치 호랑이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듯하더니 순식간에 깨끗이 먹어 치웠다. 그 와중에 현장은 공포에 질려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이것이 바로 장안을 떠나 처음으로 맛닥뜨린 커다란 고난이었다.

정신없이 당황해하는 사이, 어느덧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두 요괴는 날이 밝아올 무렵에야 흩어지며, "오늘은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조만간 반드시 정성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물러났다.

어느덧 붉은 해가 높이 솟아올랐으나, 현장은 정신이 혼미하여 동서남북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죽을 고비에 처해 있던 그때, 갑자기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노인이 다가와 손으로 한번 휘두르자 현장을 묶고 있던 밧줄이 모두 끊어졌다. 노인이 현장을 향해 입김을 한 번 불어넣자 그제야 정신이 든 현장은 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 못난 승려의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이 답례하며 물었다.

"그만 일어나게. 혹시 잃어버린 물건은 없는가?"

현장이 대답했다.

"제 수행자들은 이미 괴물들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다만 짐과 말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이 지팡이로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에 말 한 마리와 짐 보따리 두 개가 있지 않은가?"

현장이 뒤를 돌아보니 과연 자신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어 잃어버린 것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겨우 마음을 놓았다. 현장이 노인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이곳에 계시는지요?"

노인이 말했다.

"이곳은 쌍차령이라네. 호랑이와 이리가 득실거리는 굴이지. 자네는 어찌하여 이런 곳에 빠졌는가?"

현장이 말했다.

"답이 올 때 하주위 경계를 나섰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길을 나선 탓에 이슬 맺힌 서리를 맞으며 걷다 보니 어느덧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 마왕을 만났는데 그 성정이 너무나 흉악하여, 저와 두 수행자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검은 얼굴을 한 자가 나타나 자신을 웅산군이라 하고, 뚱뚱한 자가 나타나 자신을 특처사라 하며, 그들이 인장군이라는 마왕을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 세 놈이 제 수행자들을 잡아먹고 나서야 겨우 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무슨 복이 있어 할아버님 같은 분을 만나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특처사라는 자는 들소 정령이고, 산군이라는 자는 곰 정령이며, 인장군이라는 자는 호랑이 정령이라네. 주변에 널린 요괴들은 모두 산신령이나 나무 귀신, 괴물이나 늑대 같은 것들이지. 다만 자네의 본성이 맑고 밝아 그들이 차마 잡아먹지 못한 것이라네. 자, 나를 따라오게. 길을 안내해주리다."

삼장은 감격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짐 꾸러미를 말 안장에 얹고 고삐를 쥔 채, 노인을 따라 굽이진 길을 벗어나 큰길로 올라섰다. 길가 풀밭에 말을 매어 둔 삼장은 몸을 돌려 노인에게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자 노인은 곧 한 줄기 맑은 바람으로 변하더니, 머리가 붉은 백학 한 마리를 타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 버렸다. 바람이 흩날리며 남기고 간 것은 종이 한 장이었는데, 거기에는 네 구절의 계송이 적혀 있었다.

계송에 이르되,

"나는 서천의 태백금성이라, 그대의 목숨을 구하러 특별히 왔노라. 앞으로 가는 길엔 신령한 제자가 도울 것이니, 험난한 고난을 만나다 해도 원망하지 말지어다."

삼장이 이 광경을 보고 하늘을 향해 절하며 말했다. "태백금성님, 이 난관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을 마친 삼장은 말들을 끌고 홀로 쓸쓸하고 처량하게 앞을 향해 힘겹게 나아갔다. 그 고개 위 풍경은 참으로 이러했다.

찬바람은 으스스하게 불고 숲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며, 시냇물은 졸졸졸 소리를 내며 흘러가네. 들꽃은 향긋한 내음을 풍기며 피어 있고, 덩불 사이에는 거친 바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구나. 사슴과 원숭이는 떠들썩하게 돌아다니고, 노루와 고라니 떼는 짝을 지어 다니네. 새들의 지저귀는 소란스럽기 그지없는데, 사람의 흔적은 고요하기만 하여 보이지 않네. 스님은 두려움에 떨며 마음을 잡지 못하고, 말은 기운이 다해 발걸음을 떼기조차 어렵구나.

삼장법사는 목숨을 걸고 험준한 고개를 넘었다. 반나절을 더 걸었으나 마을이나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배는 고파 오는데 길마저 험난하기 짝이 없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그때, 앞에서는 맹호 두 마리가 포효하며 달려들고 뒤에서는 커다란 뱀들이 몸을 파리 틀며 다가왔다. 왼쪽에는 독충이, 오른쪽에는 괴수가 나타났다. 삼장법사는 홀로 남겨져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었기에, 결국 마음을 비우고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말마저 기운이 빠져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없으니,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보아도 도저히 일어설 수도, 말을 끌고 갈 수도 없었다. 법사는 몸 둘 바를 몰라 처량하기 이를 데 없었고,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한편, 그는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다행히 구원자가 나타날 운명이었다. 생사가 오가는 절박한 순간, 갑자기 독충들이 허겁지겁 달아나고 요괴와 짐승들이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사나운 호랑이는 몸을 숨기고 커다란 뱀은 자취를 감췄다. 삼장법사가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한 사내가 강철로 만든 삼지창을 손에 들고 허리에는 활과 화살을 찬 채 산비탈 너머에서 나타났다. 과연 기개가 넘치는 장사였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머리에는 쑥 빛깔 무늬가 섞인 표범 가죽 모자를 쓰고, 몸에는 양털로 짠 비단 옷을 입었으며, 허리에는 사자 가죽띠를 두르고 발에는 노루 가죽 장화를 신었다. 부릅뜬 눈은 마치 상주처럼 형형하고, 형클어진 수염은 거칠게 휘날렸다. 허리에는 독약과 화살이 든 주머니를 매달았고, 손에는 강철로 만든 커다란 삼지창을 들고 있었다. 그 기세가 천

둥소리처럼 산속 벌레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용맹함이 들쭉의 혼을 빼놓을 정도였다.

삼장이 그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길가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아 높이 외쳤다. "대왕님, 살려주십시오! 대왕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사내가 다가와 들고 있던 강철 삼지창을 내려놓고, 손으로 삼장을 부축하며 말했다. "스님, 겁내지 마십시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산에서 사냥을 하는 유백흠이라고 합니다. 별명은 진산태보지요. 방금 산짐승 두 마리라도 잡아먹으려고 나온 길인데, 뜻밖에 스님을 만나 결례를 범했습니다." 삼장이 말했다. "빈승은 대당 황제 폐하의 명을 받은 특사로, 서천에 가서 부처님을 뵙고 불경을 구해오려는 승려입니다. 방금 이곳에 이르렀을 때 늑대와 호랑이, 뱀과 벌레 같은 짐승들이 사방을 에워싸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태보께서 오시니 짐승들이 모두 달아나 제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참으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유백흠이 대답했다. "이곳에 살면서 주로 늑대나 호랑이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뱀이나 벌레를 잡아 끼니를 때우다 보니, 짐승들이 저를 무서워해서 달아나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당나라에서 오셨다면 저와는 같은 고향 사람이나 다를 없습니다. 이곳 역시 대당의 땅이고 저 또한 당나라 백성이니, 우리는 같은 나라의 물과 흙을 먹고 사는 한 식구 아닙니까. 그러니 겁내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 집에서 말도 쉬게 하고 하룻밤 묵어 가시면, 내일 아침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장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며, 유백흠에게 감사를 표하고 말을 끌며 그를 따라갔다.

산등성이를 넘어가자 다시금 바람이 뽕뽕 부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백흙이 말했다. "스님, 가지 마시고 여기 잠시 앉아 계십시오. 바람 소리가 나는 것을 보니 산고양이가 나타난 모양인데, 제가 얼른 잡아다가 스님 대접하는 데 쓰겠습니다." 삼장법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감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유백흙은 삼지창을 움켜쥐고 발을 넓게 벌린 채 맞서 싸우려 나아갔다. 그런데 마침 무늬가 화려한 호랑이 한 마리가 정면에서 마주쳤다. 호랑이는 유백흙을 보자마자 급히 뒤돌아 달아나려 했다. 그러자 유백흙이 벼락같은 소리로 꾸짖었다. "이 업보 쌓은 짐승아, 어디를 도망가느냐!" 호랑이는 다급해지자 몸을 돌려 발톱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유백흙은 두 손으로 삼지창을 높이 치켜들고 적을 맞이했다. 그 광경을 본 삼장법사는 겁에 질려 풀밭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 스님은 태어나서 이토록 험악한 광경은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다. 유백흙과 호랑이는 산등성이 아래에서 서로 맞서며 한바탕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시로 이르되,

분노는 맹렬하게 치솟고 광풍은 거세게 몰아치네. 분노가 치솟으니 유백흙은 힘차게 용기를 내고, 광풍이 몰아치니 호랑이는 기세를 떨치며 흙먼지를 일으키네. 한쪽은 발톱을 세워 날뛰고, 한쪽은 몸을 돌려 맞서네. 삼지창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들렸고, 꼬리는 구름을 헤치듯 휘날리네. 한쪽은 가슴을 향해 마구 찌르고, 한쪽은 얼굴을 향해 집어삼키려 드네. 스치기만 해도 사람 목숨 위태롭고, 부딪히면 염라대왕을 만나리라. 호랑이의 포효는 천지를 울리고, 유백흙의 호통은 매서워라. 호랑이의 울음은 산천을 뒤흔들어 산짐승을 놀라게 하고, 유백

흙의 호통은 하늘을 뒤흔들어 별들을 깨우는 듯하네. 금빛 눈을 부릅뜨고 분노를 터뜨리니, 용맹을 떨치며 맞서 싸우네. 산을 지키는 유백흙은 참으로 대단하여, 맹수의 왕과 맞설 만하구나. 사람과 호랑이가 서로 이기려 다투다간,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시진 동안이나 격렬하게 싸우더니, 마침내 호랑이의 앞발이 느려지고 허리가 늘어졌다. 그 틈을 타 유백흙이 창을 높이 들어 호랑이의 가슴을 단숨에 찔러 쓰러뜨렸다. 가엾기도 하지, 날카로운 창끝이 심장과 간을 꿰뚫는 바람에 순식간에 피가 땅바닥을 가득 메웠다. 유백흙은 호랑이의 귀를 움켜쥐고 길가로 끌어냈다. 과연 사내 대장부라, 숨 하나 헐떡이지 않고 안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삼장에게 말했다.

"운이 좋습니다, 운이 좋아요. 이 산고양이 한 마리면 스님께서 하루는 든든히 드실 수 있겠습니다."

삼장법사는 연신 감탄하며 말했다. "진산태보님은 정말 산신령이 분명하십니다!"

유백흙이 대답했다. "대단한 재주가 있기는요, 과찬이십니다. 다 법사님의 복덕 덕분이지요. 자, 어서 가서 가족을 벗기고 고기를 삶아 대접하겠습니다."

그는 한 손에는 갈퀴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호랑이를 끌며 앞장 서서 길을 인도했다. 삼장법사는 말을 끌며 그 뒤를 따랐다. 그렇게 산비탈을 따라 한참을 걷다 보니, 문득 산장 한 채가 나타났다. 그 문 앞의 풍경은 참으로 이려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고목과 길 위로 어지럽게 뻗은 덩굴들. 만 개의 골짜기에는 쓸쓸한 바람과 먼지가 감돌고, 천 개의 절벽은 기이한 기상을 뿜낸다. 오솔길에는 들꽃 향기가 몸에 배어들고, 몇 줄기 그윽한 대나무는 푸릇푸릇하게 서 있다. 초가집 문과 울타리 친 마당은 그림을 그려 넣은 듯 아름답고, 돌다리와 하얀 흙벽은 참으로 소박하고도 귀한 멋이 있다. 가을 풍경은 쓸쓸하면서도 서늘한 기운이 드높다. 길가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고개 위에는 흰 구름이 흘러간다. 성긴 숲속에서는 산새들이 지저귀고, 장원 문밖에서는 작은 개들이 짖어댄다.

유백흠은 문 앞까지 와서 죽은 호랑이를 내던지며 외쳤다. "애들아, 다들 어디 있느냐?" 그러자 생김새가 험상궂은 집안 하인 서너 명이 달려 나와, 호랑이를 질질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유백흠은 호랑이 가죽을 서둘러 벗겨두고 나중에 손님 대접할 때 쓰라고 일렀다. 그러고는 다시 뒤를 돌아 삼장법사를 맞이하며 안으로 모셨다. 두 사람이 마주하자, 삼장법사는 자신을 구해준 유백흠의 두터운 은혜와 자비로움에 다시 한번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유백흠이 말했다. "고향 사람끼리 어찌 이런 말씀입니까,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차를 마시며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한 노파가 머느리를 데리고 나와 삼장법사에게 예를 갖추었다. 유백흠이 소개했다. "이분은 저희 어머니와 아내입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어르신, 어서 앉으십시오. 소승이 절을 올리겠습니다." 노파가 말했다. "멀리서 오신 귀한 손님인데, 절은 무슨요. 부디 몸조심하며 편히 계십시오." 유백흠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분은 당나라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시는 분입니다. 조금 전 고개 위에서 우연히 뵈게

되었는데, 같은 나라 사람으로서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저희 집에 모셔 쉬게 하고 내일 길을 떠나보내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노파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종구나, 참으로 좋아. 마침 잘 되었구나. 내일이 네 아버지의 기일인데, 마침 잘됐다. 스님께서 좋은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나. 경전이라도 좀 읽어주시고 모레 쯤 보내드리렴." 유백흠은 비록 호랑이를 잡는 산속의 사냥꾼이자 산을 지키는 태보였으나, 효심만큼은 지극했다. 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그는 곧장 향과 종이를 준비하게 하고 삼장법사를 머물게 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갔다. 유백흠의 일행은 탁자와 의자를 늘어놓고, 잘 익은 호랑이 고기 몇 접시를 김이 모락모락 나게 상 위에 올렸다. 유백흠이 현장에게 권하며 음식이 더 필요하면 새로 차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장은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빈승이 진산태보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태어나서 줄곧 승려로 살았기에 고기를 먹는 법을 전혀 모릅니다."

유백흠은 이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스님, 저희 집안은 대대로 채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죽순이나 목이버섯, 말린 나물이나 두부를 조금 곁들인다 해도, 그것들조차 사슴이나 호랑이 같은 짐승의 기름에 볶은 것이라 채소라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부엌의 솥과 화로조차 기름기가 가득하니 어찌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스님께 결례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이 대답했다. "태보께서는 마음 쓰지 마시고 편히 드십시오. 저는 사나흘 정도 밥을 못 먹어도 배고픔은 참을 수 있지만, 감히 계율을 어겨 고기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유백흠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혹시라도 굶어 죽기라도 하시면 어찌합니까?"

현장이 말했다. "태보께서 호랑이와 늑대 떼가 득실거리는 곳에서 저를 구해 주신 은혜가 하늘과 같으니, 설령 굶어 죽는다 해도 호랑이의 먹이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유백흠의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는 외쳤다. "아들아, 스님과 한담을 나누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내게 쓸만한 음식이 있으니 대접해 드릴 수 있단다."

유백흠이 물었다. "어머니, 쓸만한 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했다.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내게는 다 준비된 것이 있으니."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작은 솥을 내려오라고 시켰다. 며느리는 불을 지펴 기름기를 닦아내고, 또 닦고, 또 씻어내며 정성껏 솥을 손질한 뒤 다시 아궁이에 걸어 두었다. 먼저 솥에 물을 반쯤 채워 끓여 두었는데, 이는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나서 산에서 채취한 느릅나무 잎을 물에 넣어 차를 달였다. 또한 황금빛 조를 넣어 밥을 짓고, 말린 채소도 푹 삶았다. 정성껏 두 그릇을 담아 상 위에 차려냈다.

어머니가 삼장법사에게 말했다. "스님, 어서 식사하십시오. 이 음식은 저와 며느리가 직접 손을 깨끗이 씻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주 깨끗하고 정갈한 차림입니다."

삼장법사는 내려와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에야 자리에 앉았다.

유백흠은 자리를 따로 마련하여 소금과 간장도 없이 호랑이 고기, 노루 고기, 구렁이 고기, 여우 고기, 토끼 고기를 차려내고, 말린 사슴 고기까지 곁들여 상 가득 삼장법사가 먹을 채식을 준비했다. 막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려는데, 삼장법사가 합장하고 경을 읽는 것이 아닌가. 그 기세에 놀린 유백흠은 감히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급히 일어나 옆에 서 있었다. 삼장법사가 몇 구절을 읽지 않아 경이 끝나자 식사를 권했다. 유백흠이 물었다. "스님은 그저 짧은 경전이나 외우는 승려입니까?" 삼장이 대답했다. "이것은 경전이 아니라, 공양을 올릴 때 외우는 주문입니다." 그러자 유백흠이 투덜거렸다. "출가한 이들은 참으로 계산이 복잡하군요. 밥 먹는 것조차 그렇게 주문을 외워야 합니까?"

채식을 마친 뒤 그릇을 거두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갔다. 유백흠은 현장을 안내하여 안채를 나와 뒤편으로 산책을 나섰다. 좁은 길을 지나니 초가 정자가 하나 나타났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방 벽에는 강궁과 쇠뇌가 몇 장 걸려 있고 화살통도 몇 개 꽂혀 있었다. 대들보에는 피비린내 나는 호랑이 가죽 두 장이 걸려 있었고, 벽 구석에는 창과 칼, 쇠몽둥이 같은 무기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정자 한가운데에는 앉을 수 있는 자리 두 개가 마련되어 있었다.

유백흠이 현장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하지만 현장은 주변의 살벌하고 험악한 분위기에 겁이 나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서둘러 정자를 나왔다. 다시 뒤쪽으로 더 걸어가니 커다란 정원이 나타났는데, 노란 국화꽃이 뭉게뭉게 피어 있고 단풍나무와 양버즘나무가 붉게 물들어 있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때 어디선가 '훅' 하는 소리가 나더니 살찐 사슴 열댓 마리와 노란 노루 떼가 달려 나왔다. 짐승들은 사람을 보고도 겁을 내기는커녕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현장이 보고 말했다. "이 노루와 사슴들을 보니, 마치 귀한 집안에서 기르는 가축 같군요?"

그러자 유백흠이 대답했다. "장안 성안의 사람들처럼, 부유한 집은 보물을 모으고 농사짓는 집은 곡식을 모으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사냥꾼들은 그저 이런 들짐승들을 모아 기르며 비바람이 부는 날을 대비할 뿐입니다."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가로이 걷다 보니 어느덧 황혼이 저서, 다시 앞채로 돌아와 쉬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유백흠의 가족들은 모두 일어나 정성껏 채식 음식을 준비하여 현장을 대접하고,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청했다. 현장은 손을 깨끗이 씻고 유백흠과 함께 집안의 사당 앞에 향을 피우며 조상님들께 절을 올렸다. 현장이 목어(나무로 만든 북)를 두드린 뒤, 먼저 입으로 짓는 죄를 씻어내는 진언을 외우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신묘한 주문을 읊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이의 영혼을 인도하는 《도망경》 한 권을 읽기 시작했다.

경전을 다 읽자 유백흠은 죽은 이의 넋을 기리는 축문을 써 오라고 청했고, 현장은 이어서 《금강경》과 《관음경》을 펴서 소리 높여 낭랑하게 읽어 내려갔다. 경전 읽기를 모두 마친 뒤 점심 공양을 들었고, 다시 《법화경》과 《미타경》을 몇 권씩 읽은 뒤 《공작경》 한 권을 더 읽었다. 그러면서 비구(승려)가 업보를 씻어낸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니, 어느덧 아침이 지나고 다시 저녁이 되었다.

현장은 여러 종류의 향을 피우고, 신령들에게 바칠 종이 말과 각종 제물을 태우며 축문을 불태워 올렸다. 모든 불교 의식이 끝나자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한편, 유백흠의 부친은 덕분에 고통스러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와 가족들에게 꿈을 통해 이렇게 전했다. "내가 저승에서 고통을 겪으며 헤어 나오지 못해 오랫동안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성스러운 스님이 경전을 읽어주신 덕분에 나의 죄업이 사라졌다. 염라대왕께서 사람을 보내 나를 중원의 풍요로운 땅으로 보내주셨으니, 그곳의 부유한 집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너희는 스님께 정중히 감사를 표하고, 절대로 소홀히 대접해서는 안 된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다."

시로 이르되, 모든 법의 장엄함이 참뜻을 품었으니, 망자를 천도하여 고통을 벗고 윤회를 끊게 하도다.

온 가족이 꿈에서 깨어나니 어느덧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었다. 유백흠의 아내가 말했다. "여보, 오늘 밤 꿈에 아버님께서 집에 오셨어요. 저승에서 고통을 겪느라 오랫동안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있었는

데, 다행히 스님께서 경전을 읽어주신 덕분에 죄업을 씻고 중원의 부유한 집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스님께 정성껏 감사를 표하고 절대 소홀히 대접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문밖으로 유유히 나가버리셨는데, 우리가 불러도 대답도 없고 붙잡지도 못했어요. 깨고 보니 꿈이었나 봐요."

유백흠이 대답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꿈을 꾸었소. 어서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러 갑시다."

부부가 막 말을 하려는데, 노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백흠아, 이리로 좀 오너라. 할 말이 있다." 두 사람이 다가가자 노모가 침상에 앉아 말했다. "얘야, 내가 오늘 밤 아주 기쁜 꿈을 꾸었다. 네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스님의 천도 덕분에 죄업을 다 씻고 중원의 부유한 집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시더구나."

부부는 서로 마주 보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와 제 아내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마침 어머니께 말씀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먼저 불러주시니 정말 신기합니다. 꿈속 내용도 모두 같습니다."

그들은 즉시 온 가족을 불러 모아 감사의 뜻을 전할 준비를 하고, 스님을 모실 말들을 정돈한 뒤 모두 앞으로 나아가 절을 올리며 말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을 구제하여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스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삼장법사가 겸손하게 말했다. "빈승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감히 이런 과분한 인사를 받겠습니까?"

유백흠은 가족들이 꾸민 꿈 이야기를 삼장법사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들려주었고, 삼장법사 또한 매우 기뻐했다. 삼장법사는 정성껏 채소 음식을 대접한 뒤, 감사의 표시로 은 한 냥을 내놓았다. 그러나 삼장법사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유백흠의 어머니와 아내가 간곡히 청하며 다시 한번 절을 올렸으나, 삼장법사는 끝내 돈을 받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를 배웅해 주시니,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유백흠의 어머니와 아내는 어쩔 수 없이 거친 밀가루로 만든 구운 떡과 마른 음식을 준비해 주었고, 유백흠에게 멀리까지 배웅을 나가라고 일렀다. 삼장법사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챙겨 들었다. 유백흠은 어머니의 명을 받들어 하인 두세 명을 불러 모으고, 사냥 도구들을 챙겨 들고 큰길로 나섰다. 길을 가는 동안 산속의 아름다운 경치와 고갯마루의 풍광이 끝없이 펼쳐졌다.

반나절을 더 나아가니 맞은편에 거대한 산 하나가 보였다. 그 모습이 실로 구름 위까지 닿을 듯 높고 험준했다. 삼장법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산기슭에 다다랐다. 유백흠은 이 산을 오르는 것이 마치 평지를 걷는 것처럼 쉬웠으나,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돌연 몸을 돌려 길 아래에 서서 말했다.

"스님, 먼저 앞서 가십시오.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삼장법사는 말에서 내려와 울먹이며 말했다.

"태보께서 다시 한번 배웅해 주시려니, 어찌 이리 큰 폐를 끼친단 말입니까."

유백흠이 대답했다.

"스님께서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산은 양계산이라 하여, 동쪽 절반은 우리 대당의 관할이지만 서쪽 절반은 타타르의 땅입니다. 저쪽은 늑대와 호랑이조차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는 곳이라 저 또한 경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가십시오."

삼장법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유백흠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렇게 애뜻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산 아래에서 천둥 같은 외침이 들려왔다.

"스승님이 오신다! 스승님이 오신다!"

그 소리에 삼장법사는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고, 유백흠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결국 누군가 외치는 소리였는지 알 수 없으나,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4회 — 마음의 원숭이가 바른 길로 돌아오고, 여섯 도둑은 흔적 없이 사라지다

心猿歸正 六賊無蹤

시로 이르되,

부처가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부처이니, 마음과 부처가 본래 무엇인가를 구하려 하는구나. 만약 만물이 없고 또한 마음도 없음을 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마음이자 법신불이라네.

법신불은 형체가 없으나, 둥근 빛 하나가 온 세상 만물을 머금고 있네. 형체 없는 형체가 곧 참된 형체요, 모습 없는 모습이 곧 실상이라네.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며, 공하지도 않으니, 오지도 않고 향하지도 않으며 되돌아오지도 않네. 다름도 없고 같음도 없으며 있고 없음도 없으니, 버리기도 어렵고 취하기도 어려우며 듣고 보기도 어렵도다.

안팎의 신령한 빛은 어디서나 같으니, 하나의 불국토가 모래알 하나 속에 있네. 모래 한 알에 온 우주가 담겨 있고, 한 몸과 마음이 만 가지 법과 하나가 되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심(無心)의 비결을 깨달아야 하니, 물 들지 않고 머물지 않는 것이 곧 깨끗한 업이라네. 선과 악의 수만 가지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무석가모니불이라네.

한편, 유백흠과 당삼장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스승님, 오셨습니까!"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하인들이 말했다. "저건 분명 산 아래 바위 틈에 갇힌 늙은 원숭이가 부르는 소리일 겁니다." 그러자 유백흠이 맞장구를 쳤다. "그놈이 맞습니다, 그놈이에요!" 당삼장이 물었다. "그게 대체 어떤 늙은 원숭이입니까?" 유백흠이 대답했다.

"이 산의 옛 이름은 오행산입니다. 우리 대당의 왕께서 서쪽을 정벌하고 나라를 평정하신 뒤에 양계산으로 이름을 바꾸었지요. 예전에 어르신들께 듣기로는, 왕망이 한나라의 왕위를 찬탈할 무렵에 하늘에서 이 산이 내려와 신령한 원숭이 한 마리를 짓눌렀다고 합니다. 그 원숭이는 추위와 더위도 느끼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토지신들의 감시 아래 쇠구슬을 먹어 허기를 달래고 구리물을 마셔 갈증을 해소하며 버텼다고 합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굶주림이나 추위로 죽지도 못한 채 지내왔으니, 저 소리는 틀림없이 그놈일 것입니다. 스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산 아래로 내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삼장은 그 말에 따라 말을 끌고 산을 내려갔다. 몇 리쯤 갔을까, 과연 바위 틈 사이에 원숭이 한 마리가 머리만 내밀고 손을 휘저으며 다급하게 손짓하고 있었다.

"스승님, 어찌 이제야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저를 여기서 꺼내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반드시 스승님을 서천까지 모시겠습니다!"

당삼장이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 모습이 이러했다.

입술은 뽀족하고 턱은 움푹 들어갔으며, 눈은 금빛으로 번뜩이며 불꽃을 머금은 듯했다. 머리에는 이끼가 두껍게 쌓였고 귀에는 덩굴이 엉켜 있었으며, 관자놀이에는 머리카락 대신 푸른 풀이 돋아나 있었고 턱 밑에는 수염 대신 초록빛 풀잎이 무성했다. 눈썹 사이에는 흙이 끼고 코에는 진흙이 박혀 물골이 말이 아니었으며, 손가락은 굵고 손바닥은 두툼한 데다 먼지와 때가 잔뜩 묻어 있었다. 그 와중에도 눈동자는 또렷하게 움직이고 목소리는 힘차게 울려 퍼졌다. 말솜씨는 매우 능청스러웠으나 몸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었다. 바로 오백 년 전의 손오공이었으나, 오늘에야 비로소 하늘의 그물을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유백흙은 참으로 담력이 컸다. 그는 앞으로 걸어가 원숭이 귀 옆에 붙은 풀을 떼어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물었다.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그러자 원숭이가 말했다. “할 말은 없습니다. 저 스님을 이리로 오게 해주십시오. 스님께 여쭙어볼 것이 있습니다.” 삼장법사가 물었다. “나에게 무엇을 묻겠다는 말이냐?” 원숭이가 대답했다. “당신이 동

토의 대왕님 명을 받들어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그 스님입니까?” 삼장법사가 말했다. “그렇다. 무엇 때문에 묻느냐?” 원숭이가 말을 이었다. “저는 오백 년 전 천궁을 어지럽혔던 제천대성입니다. 단지죄를 지은 탓에 여래님께 이곳에 눌러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관세음보살님께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동토로 경전을 구할 사람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보살님께서 저를 구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보살님께서 다시는 흉한 짓을 저지르지 말고 불법에 귀의하여 정성껏 경전을 구하는 스님을 보호하며 서천으로 가서 부처님을 뵈도록 권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덕을 쌓은 뒤에 저절로 좋은 보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밤낮으로 마음을 다잡고 아침저녁으로 용기를 내며 스님께서 저를 구해 탈출시켜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어 경전을 구하는 길을 보필하고 싶습니다.”

삼장법사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비록 그대가 선한 마음을 품고 있고 보살님의 가르침까지 받았다니 참으로 다행이다. 나 또한 그대가 불문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하지만 내게는 도끼나 정 같은 연장도 없는데, 어찌 그대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 원숭이가 말했다. “연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저를 구해주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저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삼장법사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내가 어떻게 구해야 그대가 나올 수 있단 말이냐?” 원숭이가 대답했다. “이 산 정상에 우리 여래님의 금자압첩(금빛 글자가 새겨진 압축 부적)이 있습니다. 그저 산에 올라가 그 부적을 떼어내기만 하면 저는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삼장법사는 원숭이의 말에 따라 고개를 돌려 유백흠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태보님, 저와 함께 산에 한 번 올라가 주시겠습니까?” 유백흠이 물었다.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자 원숭이가 크게 외쳤다. “참입니다! 결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백흠은 어쩔 수 없이 하인을 불러 말을 끌어오게 했다. 그리고는 당삼장을 부축하며 다시 높은 산을 올랐다. 덩굴과 칙녕쿨을 붙잡고 간신히 산꼭대기에 다다르니, 과연 만 갈래의 금빛 광채와 천 줄기 상서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곳에는 사방으로 넓적한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바위 위에는 가죽 한 장이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옴 마니 반메 흠'이라는 여섯 글자가 금빛으로 새겨져 있었다. 당삼장은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바위에 새겨진 금빛 글자를 향해 몇 번이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는 서쪽을 향해 간절히 빌었다. '제자 진현장은 특별히 어명을 받들어 경전을 구하러 왔나이다. 만약 저에게 제자의 인연이 있다면, 이 금빛 글자가 새겨진 압첩을 떼어내어 신령한 원숭이를 구해냄으로써 함께 영산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요, 만약 제자의 인연이 없다면 저들은 그저 제자를 속여 복을 가로채는 흉악하고 고집센 괴물일 뿐이니, 결코 이 압첩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축원을 마친 당삼장은 다시 한번 절을 올렸다. 절을 끝낸 뒤 앞으로 나아가 여섯 글자가 새겨진 압첩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러자 갑자기 향기로운 바람이 한차례 휘몰아치더니, 압첩을 공중으로 휙 낚아채며 소리쳤다. '우리는 대성(大聖)을 감시하던 자들이다! 오늘 그의 고난이 다 끝났으니, 우리는 여래를 뵈러 돌아가 이 봉인을 반납하러 가겠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당삼장과 유백흠 일행은 허공을 향해 절을 올렸다. 산 정상에서 내려와 바위 틈에 이르자, 당삼장이 원숭이에게 말했다. '압첩을

떼어냈으니 이제 그만 나오너라.' 그러자 원승이가 기뻐하며 외쳤다.
'스승님, 잠시 저쪽으로 비켜나 계세요! 제가 나올 테니 놀라지 마시고
요!'

유백흠은 그 말을 듣고 당삼장을 이끌고 일행과 함께 동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오륙 리쯤 걸어갔을까, 다시 저 원승이가 '더 가세요, 더 가세요!' 하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삼장이 한참을 더 가서 산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일행은 모두 겁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때 보니, 손오공이 어느새 당삼장의 말 앞으로 달려와 벌거벗은 몸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저 나왔습니다!' 손오공은 당삼장에게 네 번 절을 올린 뒤 급히 일어나 유백흠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형님, 저희 스승님을 배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형님께서 제 얼굴에 난 풀까지 뽑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마친 손오공은 곧바로 짐을 챙기고 말에 안장을 엮었다. 그런데 그 말을 보더니 말이 허리가 꺾이고 발을 헛디디며 벌벌 떨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는 손오공이 원래 천계에서 말을 돌보는 필마온(弼馬溫) 직책을 맡아 용마들을 길들였던 법도가 있었기에, 말들이 그를 보자마자 겁을 집어먹은 것이었다.

삼장이 그의 태도를 보니 참으로 마음씨가 착하고 진실하여, 정말이지 수행자다운 모습이 느껴졌다. 이에 삼장이 물었다. "제자야, 네 성은 무엇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제 성은 손 씨입니다."

삼장이 말했다. "내가 네게 법명을 하나 지어주어야 부르기 편할 것 같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게는 이미 손오공이라는 법명이 있습니다."

삼장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 법명 또한 우리 종파와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네 생김새를 보니 꼭 어린 수행자 같으니, 내가 너를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행자'라는 이름을 따로 지어주어도 되겠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때부터 그는 손행자라고 불리게 되었다.

유백흠은 손오공이 마음을 굳게 먹고 떠나려 하는 것을 보고는, 몸을 돌려 당삼장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스님, 이곳에서 이토록 훌륭한 제자를 얻으셨으니 참으로 기쁘고 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친구는 분명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줄 것입니다.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삼장도 허리를 굽혀 예의를 갖추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번거롭게 해 드려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면 닥의 노부인과 부인께도 제 인사를 꼭 전해주시시오. 제가 머무는 동안 폐를 끼친 것이 많으니, 나중에 다시 찾아뵙고 제대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유백흠도 답례를 한 뒤, 두 사람은 그렇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한편, 손오공은 삼장법사에게 말에 오르라고 청한 뒤, 앞장서서 짐을 등에 지고 발가벗은 차림으로 꺽충꺽충 걸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계산을 지나는데, 갑자기 맹호 한 마리가 포효하며 꼬리를 흔들며 달려들었다. 말 위에 앉아 있던 삼장은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자 손오공이 길가에서 기뻐하며 말했다. '스님, 겁내실 것 없습니다. 저놈은 저에게 입을 옷을 가져다주는 놈이니깐요.' 손오공은 짐을 내려 놓더니 귀에서 바늘 같은 것을 하나 뽑아냈다. 그것을 바람을 향해 휘두르자, 어느새 그 크기가 사발만큼 굵은 쇠몽둥이로 변했다. 손오공은 그것을 손에 쥐고 웃으며 말했다. '이 보물도 오백 년 넘게 쓰지 못했구나. 오늘 꺼내서 옷 한 벌 해 입어야겠다.' 손오공은 성큼성큼 걸어가 맹호를 향해 마주하며 외쳤다. '이 짐승 놈아! 어디를 가느냐!' 그러자 호랑이는 몸을 웅크린 채 먼지 구덩이 속에 엎드려 감히 움직이지도 못했다. 손오공이 호랑이의 머리를 향해 몽둥이를 내리치자, 머리통이 깨지며 뇌수가 복숭아 빛깔처럼 사방으로 튀고 이빨이 구슬처럼 흩뿌려졌다. 이 광경을 본 당삼장은 말에서 떨어지며 손가락을 깨물고 탄식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유백흠 태보가 엿그제 얼룩무늬 호랑이를 잡을 때도 반나절이나 씨름을 하더니, 오늘 손오공은 싸울 필요도 없이 단 한 방에 저 호랑이를 박살을 내버리는구나. 정말 강한 사람 위에 더 강한 사람이 있도다!'

손오공이 잡아 온 호랑이를 끌고 오며 말했다. "스님, 잠시 앉아 계십시오. 제가 이 녀석의 가죽을 벗겨 옷으로 만들어 입고 가겠습니다."

삼장법사가 물었다. "저 짐승에게 무슨 옷이 있다고 그러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님께서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손오공은 털 한 가닥을 뽑아 입으로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털 한 가닥이 소 귀 모양의 날카로운 칼로 변하더니, 호랑이의 배를 갈라 아래로 속 벗겨내어 통째로 가죽을 벗겨냈다. 손톱을 다듬고 머리 부분을 잘라내어 네모뚱하게 호랑이 가죽을 만들었다. 손오공은 가죽을 들어 올려 길이를 재보더니 말했다. "좀 넓네. 이거 하나로 두 벌을 만들 수 있겠어."

손오공은 칼을 가져와 가죽을 두 폭으로 나누었다. 한 폭은 챙겨두고, 나머지 한 폭은 허리에 둘렀다. 길가에 있는 찰덩굴을 꺾어와 하체를 가릴 정도로 단단히 묶은 뒤 삼장법사에게 말했다. "스님, 어서 갑시다. 마을에 도착하면 바늘과 실을 좀 빌려서 그때 꿰매면 됩니다."

손오공은 철봉을 살짝 비틀어 다시 바늘처럼 작게 만든 뒤 귀 뒤에 꽂았다. 그리고는 짐을 짊어지고 스님을 말에 태웠다.

두 사람이 길을 재촉하며 나아가는데, 당삼장이 말 위에서 물었다. "손오공, 아까 호랑이를 때려잡을 때 쓰던 그 쇠몽둥치는 어디 갔느냐?"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스승님,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몽둥이는 본래 동해 용궁에서 얻은 것으로, ‘천하진저철’이라 부르기도 하고 ‘여의금고봉’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전에 천궁을 어지럽힐 때 아주 큰 공을 세운 물건이지요. 마음먹은 대로 크기를 바꿀 수 있어서, 크게 하면 우주만큼 커지고 작게 하면 아주 작아집니다. 방금 전에는 자수 놓는 바늘 모양으로 변하게 해서 귀 뒤에 넣어 두었으니,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됩니다.”

당삼장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무척 기뻐하며 다시 물었다. “그런데 아까 그 호랑이는 너를 보고 왜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냐? 네가 마음껏 때리게 내버려 두다니, 어찌 된 일이냐?”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께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건 고작 호랑이일 뿐이지, 설령 용이라 할지라도 저를 보면 감히 무례하게 굴지 못할 것입니다. 저 손오공에게는 용을 굴복시키고 호랑이를 제압하는 수단이 있고, 강과 바다를 뒤흔드는 신통력도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도 본질을 꿰뚫어 보며, 소리만 듣고도 이치를 알아차리지요. 크게 하면 온 우주를 아우르고, 작게 하면 머리카락 한 올 속에 들어갈 수 있으며, 변화무쌍하여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니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호랑이 가죽 하나 벗기는 게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나중에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제 실력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삼장은 이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을 놓게 되어, 아무 걱정 없이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갔다.

스승과 제자가 길을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저물어가는 줄도 몰랐다. 풍경은 이러하였다.

붉은 노을이 비스듬히 비치며 되돌아오고, 하늘 끝과 바다 끝에는 구름이 모여든다. 온 산에는 새들이 짹 지어 지저귀는 소리가 빈번하고, 등지를 찾아 숲으로 들어가는 새 떼가 줄을 이룬다. 들짐승들은 짹을 지어 짹을 맞추고, 무리 지어 제 굴로 돌아가는데, 초승달 하나가 황혼을 깨뜨리며 떠오르고 만 개의 별들이 빛의 테두리를 두른다.

손오공이 말했다. "스님, 어서 움직이지요.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저기 나무가 우거진 곳을 보니 분명 사람 사는 장원이 있는 모양인데, 서둘러 가서 묵을 곳을 찾아봅시다."

당삼장은 곧바로 말을 몰아 장원을 향해 달렸고, 장원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 손오공은 짐을 내팽개치고 앞으로 달려 나가 외쳤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러자 안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오더니 급히 문을 열었다. 노인은 손오공의 험악한 물골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허리에 호랑이 가죽을 차고 있는 모습이 마치 뇌공(천둥의 신) 같아 보여, 다리가 후들거리고 몸이 떨려 헛소리를 내뱉었다.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당삼장이 다가가 노인을 부축하며 말했다. "노보살님, 두려워 마십시오. 이 아이는 제 제자이지 귀신이나 괴물이 아닙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보니 당삼장의 용모가 맑고 수려하여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절에서 오신 스님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악한 자를 데리고 우리 집 문 앞까지 오셨습니까?"

당삼장이 대답했다. "저는 대당에서 온 승려로, 서천에 가서 부처님을 뵙고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마침 이곳을 지나던 중에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 가고자 찾아뵈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바로 떠날 터이니 부디 편의를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인이 말했다. "스님은 대당 사람이라지만, 저 악한 자는 대당 사람이 아닌 것 같소."

그러자 손오공이 벼락같은 소리로 외쳤다. "이 영감탱이가 눈이 멀었구나! 대당 사람은 내 스승님이고, 나는 그분의 제자다! 나 또한 대당 사람도 아니고, 달콤한 꿀사람도 아니다. 나는 바로 제천대성이다! 이 근처 사람 중에도 나를 알아보는 이가 있단 말이다. 나도 예전에 당신을 본 적이 있어!"

노인이 되물었다. "자네가 나를 어디서 보았던 말인가?"

손오공이 말했다. "자네 어릴 때 내 앞에서 땀나무를 줍지 않았나? 내 얼굴 앞에서 채소를 골라내지 않았느냐 말이다!"

노인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이놈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자네가 어디 살고 내가 어디 사는데, 내가 자네 앞에서 땀나무를 줍고 채소를 고른단 말인가?"

손오공이 말했다. "내 아들놈이 헛소리를 하는군. 당신이 나를 못 알아보는 모양인데, 나는 원래 이 양계산 석갑(돌함) 속에 갇혀 있던 대성이다. 다시 한번 잘 보란 말이다!"

그제야 노인이 깨달은 듯 말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분과 닮긴 닮았구려. 그런데 어찌 그곳에서 나왔단 말이요?"

손오공은 관세음보살께서 선한 일을 권하며 당삼장이 압첩을 떼어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던 일을 노인에게 자세히 들려주었다.

노인은 절을 마친 뒤 당삼장을 안으로 모셨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아 앞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니, 모두가 기뻐하며 반겼다. 노인은 차를 내오라고 명했다. 차를 다 마신 뒤 노인이 손오공에게 물었다.

"대성, 당신도 이제 나이가 꽤 드셨구려?"

손오공이 되물었다.

"어르신은 올해 몇 세이십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바보같이 백서른 살이나 먹었지."

손오공이 말했다.

"저에게는 자식의 자식인 증손주뻘이시군요. 제가 태어난 지는 정확히 몇 년이 흘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산기슭에 갇혀 있었던 것만 해도 벌써 오백 년이 넘었습니다."

노인이 맞장구를 쳤다.

"그렇고말고, 그렇고말고. 우리 조상님 말씀이, 이 산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신령한 원숭이를 눌러버린 것이라고 하셨지. 이제야 비로소 몸을 벗어나는구려. 내가 어릴 적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는 머리에는 풀이 자라 있고 얼굴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조차 무섭지 않았네. 그런데 지금 보니 얼굴에 진흙도 없고 머리에 풀도 없구먼. 다만 조금 야윈 것 같고 허리에 커다란 호랑이 가죽까지 두르고 있으니, 귀신이나 괴물과 다를 게 무엇이겠나?"

가족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하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이 노인은 꽤 어진 사람이라, 곧바로 정성껏 공양을 준비했다. 식사를 마친 후 손오공이 물었다. '어르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내 성은 진 씨라네.' 그 말을 들은 당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며 말했다. '노보시주님, 저와 보시주님은 성이 같습니다.' 그러자 손오공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스승님, 스승님 성은 당 씨인데 어째서 이 노인과 성이 같다고 하십니까?' 당삼장이 설명했다. '나도 속세의 성은 진 씨란다. 대당의 해주 홍농군 취현장에 사는 사람이지. 내 법명은 진현장이다. 다만 대당 태종 황제께서 나를 황제의 아우(御弟)인 삼장으로 봉해주셨기에, 당 씨를 성으로 삼아 당승이라 불리는 것이란다.' 노인은 자신과 성이 같다는 말을 듣고는 매우 기뻐하며 반가워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어르신,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백 년 넘게 씻지 못해서 말입니다. 물을 좀 끓여 주시면 저희 스승님과 제가 깨끗이 씻겠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꼭 사례를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즉시 물을 끓여 대야를 가져오게 하고 등불을 밝게 켜다. 스승과 제자가 목욕을 마친 뒤 등불 앞에 앉자,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어르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바느질 도구 좀 빌려주시요."

노인이 "있고말고, 있지요."라고 대답하며 아내를 불러 바느질 도구를 가져오게 한 뒤 손오공에게 건네주었다. 손오공은 눈치를 살피다가 스승이 목욕하며 벗어 놓은 짧은 흰 천 옷을 보고는 껌싸게 가져다 몸에 걸쳤다. 그러고는 아까 벗어둔 호랑이 가죽을 가져와서 하나로 이어 붙였다. 가죽을 말 모양처럼 접어 허리에 두른 뒤 대나무 띠로 단단히 묶고는 스승 앞으로 다가와 말했다. "오늘 제 차림새가 어제보다 좀 어떨습니까?"

삼장법사가 대답했다. "종구나, 아주 좋아. 그래야 행자답지." 이어 삼장이 말했다. "제자야, 옷이 좀 낡았어도 괜찮다면 그 흰 옷을 입도록 하거라."

손오공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쾌활하게 대답하며, 다시 가서 말에게 먹일 풀을 찾아주었다. 모든 일을 마친 뒤, 스승과 제자 그리고 노인도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손오공은 일어나 스승을 모시고 길을 나설 채비를 했다. 당삼장은 옷을 챙겨 입었고, 손오공은 잠자리 도구와 짐을 정리했

다. 막 작별 인사를 나누려는데, 주인 노인이 일찍부터 세숫물을 준비해 두고 또 채식 밥상까지 차려 내왔다. 식사를 마친 뒤에야 두 사람은 길을 떠났다. 당삼장은 말에 올라탔고, 손오공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그들은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며, 밤에는 쉬고 새벽에는 다시 길을 재촉했다. 마침 초겨울로 접어드는 시기라 풍경은 이러했다.

서리 내려 붉은 잎 떨어진 숲은 수척하고, 고개 위 소나무와 측백나무만 푸르구나. 매화꽃은 아직 피지 않았으나 그윽한 향기 머금었고, 낮은 झा아지고 날씨는 초봄처럼 변해간다. 국화는 지고 연꽃도 사라졌으나 동백은 무성하고, 찬 다리 위 고목들은 가지를 서로 다투듯 뻗었네. 굽이치는 계곡에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눈이 올 듯한 열은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구나. 북풍이 매섭게 불어 옷소매를 잡아채니, 저물녘의 차가운 기운을 어찌 견뎌낼 수 있으랴?

스승과 제자가 길을 한참 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길가에서 휘파람 소리가 한 번 울리더니, 장창과 단검, 날카로운 칼과 강궁을 든 여섯 명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크게 호통을 치며 소리쳤다.

“거기 스님, 당장 멈추시오! 얼른 말과 짐을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 주겠소!”

이 기세에 당삼장은 혼비백산하여 말에서 떨어졌고, 너무 놀라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다. 손오공이 손으로 당삼장을 부축하며 말했다.

“스승님, 걱정 마세요. 별일 아닙니다. 저들은 그저 우리에게 옷이랑 여비나 좀 주려는 모양이에요.”

그러자 당삼장이 말했다.

“오공아, 너는 귀가 먹은 게냐? 저들이 말과 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찌 옷과 여비를 달라고 묻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은 옷이랑 짐, 말이나 잘 지키고 계세요. 이놈이랑 내가 한바탕 붙어보고 올 테니까요.”

당삼장이 걱정스레 말했다.

“아무리 뛰어난 무사라도 두 주먹으로는 여섯 명을 당할 수 없고, 두 주먹도 네 손을 당해내기 어려운데, 저들은 건장한 장정 여섯 명이고 너는 이리 작은 몸뚱이로 어찌 감히 맞서겠다는 말이냐?”

손오공은 원래 담력이 남다른 자라, 일일이 설명할 것도 없이 성큼 성큼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정중히 예를 갖추는 척하며 여섯 명에게 물었다. '여보시오들, 무슨 이유로 이 가난한 승려의 길을 막는 것이요?' 그러자 산적 우두머리가 대답했다. '우리는 길목을 지키는 왕이자,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산주들이라네. 우리의 명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니 자네도 모를 리 없겠지. 어서 가진 것을 내놓고 순순히 지나가게나. 만약 「아니오」라는 소리가 한 마디라도 나온다면,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 버리겠다!' 손오공이 대꾸했다. '나 또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왕이자 오랫동안 이 산을 다스려 온 주인인데, 당신들의 대단한 명성은 들어본 적이 없구려.' 산적이 말했다. '자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로군. 내가 알려주지. 첫째는 「눈으로 보고 기

빠하는 자」요, 둘째는 「귀로 듣고 화를 내는 자」며, 셋째는 「코로 냄새 맡아 사랑을 느끼는 자」요, 넷째는 「혀로 맛보며 생각을 하는 자」이며, 다섯째는 「뜻으로 욕망을 품는 자」요, 여섯째는 「몸으로 근심을 짊어진 자」라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알고 보니 그저 좀 도둑 여섯 놈이로군! 당신들은 나 같은 수행자가 당신들의 주인인 줄도 모르고 감히 길을 막다니. 그 약탈한 보물들을 다 내놓으시오. 내가 일곱 뿔으로 똑같이 나눠줄 테니 목숨만은 살려주겠소.' 그 말을 듣자마자 기빠하는 놈, 화내는 놈, 사랑에 빠진 놈, 생각에 잠긴 놈, 욕망에 눈먼 놈, 근심에 찬 놈까지 여섯 산적이 일제히 달려들어 소리를 질러댔다. '이 스님이 무례하기 짝이 없구나! 가진 것도 없으면서 오히려 우리 물건을 나눠 갖자고 하다니!' 그들은 창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며 한꺼번에 달려들어 손오공의 머리를 마구 내리쳤다. 쟁강쟁강 소리가 나며 칠팔십 번이나 되는 공격이 쏟아졌으나, 손오공은 그저 가만히 서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버티고 있었다. 산적 하나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이 스님, 머리가 정말 돌덩이처럼 단단하구먼!'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저 봐줄 만한 정도라네. 당신들도 이제 손이 아파서 힘들 텐데, 이 몸이 바늘 하나를 꺼내서 좀 놀아줘야겠군.' 그러자 산적이 비웃으며 말했다. '이 스님은 침을 놓는 의사라도 된 모양이지? 우리는 아무 병도 없는데 무슨 침 타령이란 말이냐!'

손오공이 손을 뻗어 귀 속에서 자수 바늘 하나를 쑥 뽑아내더니, 바람을 향해 휘두르자 그것이 어느새 사발만큼 굵직한 쇠몽둥이로 변했다. 손오공은 몽둥이를 손에 쥐고 외쳤다.

"어디 가느냐! 이 몸이 매운맛을 좀 보여줄 테니 가만히 있어 보아라!"

그 호통에 산적 여섯 명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손오공은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겨 그들을 뒤쫓았고, 결국 한 놈도 남김없이 때려죽였다. 손오공은 산적들의 옷을 벗겨 챙기고 여비까지 빼앗은 뒤, 싱글벙글 웃으며 다가와 말했다.

"스승님, 어서 가세요. 저 도둑놈들은 제가 다 소탕했습니다."

그러자 삼장법사가 꾸짖었다.

"네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저들이 비록 길을 가로막는 강도라 할 지라도, 관가에 넘겨야지 어찌 죽여도 된다는 말이나? 네게 재주가 있다면 그저 물리치기만 하면 될 것을, 어찌 모두 죽여버린단 말이나? 이것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니, 어찌 승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출가한 이는 마당을 쓸 때도 개미나 쥐가 다칠까 조심하고, 등불을 켤 때도 나방이 날아들까 망을 치는 법이다. 그런데 너는 앞뒤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때려죽였으니, 자비롭고 선한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구나. 산속이라 다행이지, 만약 도성 안이었다면 누군가 너와 부딪혔을 때 네가 몽둥이를 휘둘러 사람을 해쳤다면 내가 어찌 죄 없는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손오공이 대꾸했다.

"스승님, 제가 저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저들이 스승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삼장법사가 다시 말했다.

"나는 출가한 몸이니 차라리 죽을지언정 결코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은 내 목숨 하나뿐이지만, 너는 여섯 명이나 죽이지 않았느냐? 이것을 어찌 도리에 맞다 하겠느냐? 만약 이 일이 관가에 알려진다면, 네 아버지가 관직에 있다 한들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께 숨김없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백 년 전 화과산에서 왕 노릇 하며 요괴로 살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만약 스승님 말씀대로 관가에 신고한다 해도, 그저 고소당하는 정도로 끝날 테니 제가 '제천대성'이 될 수도 없었겠지요."

삼장법사가 탄식하며 말했다.

"네가 법도를 모르고 세상을 어지럽히며 하늘과 임금을 기만했기에, 오백 년 전의 그 고초를 겪은 것이다. 이제 비로소 승려의 길에 들어섰으니, 만약 그때처럼 여전히 살생을 일삼고 흉악하게 군다면 서천에 갈 수도 없고 승려가 될 수도 없을 것이다. 참으로 악하구나! 너무나 악해!"

알고 보니 이 원숭이는 남의 잔소리를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성미였다. 삼장이 끊임없이 조잘거리며 잔소리를 늘어놓자, 화를 참지 못한 손오공이 소리쳤다.

"당신이 정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스님이 될 자격도 없고 서천에 갈 수도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시끄럽게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나는 그냥 돌아가 버릴 테니!"

하지만 삼장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손오공은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몸을 휙 날리며 외쳤다.

"이 몸은 이만 가겠소!"

삼장이 급히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손오공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회억 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동쪽으로 달려가 버린 흔적뿐이었다. 홀로 남겨진 삼장은 외롭고 쓸쓸하게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슬프고 원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탄식했다.

"이놈이 어찌 이리도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저 몇 마디 타이른 것뿐인데, 어찌 저리 형체도 없이 순식간에 가버린단 말인가. 에휴, 참으로 허망하구나. 제 팔자에 제자가 생겨 입을 늘릴 운명이 아니었나 보다. 이제 가서 찾으려 해도 찾을 길이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가버렸구나, 정말 가버렸어!"

시로 이르되,

"목숨 걸고 서천으로 향하려 했건만, 남에게 의지해 제멋대로 행동해서야 되겠는가."

결국 삼장은 짐을 챙겨 말에 싣고는 말에 올라타는 대신, 한 손에는 석장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고삐를 쥔 채 쓸쓸하고 외로이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쯤 갔을까, 산길 앞에 나이 지긋한 노모 한 분이
숨옷 한 벌과 꽃무늬가 수놓아진 모자 하나를 받쳐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삼장은 노모가 가까이 다가오자 황급히 말을 끌어 오른쪽 길가
에 세워 길을 양보했다.

노모가 물었다. "스님은 어디서 오시는 길인데, 이 외딴곳을 이렇게
홀로 쓸쓸히 지나가십니까?"

삼장이 대답했다. "소승은 동토 대당에서 명을 받들어, 서천의 살아
있는 부처님을 뵈고 참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노모가 말했다. "서방의 부처님은 대륙음사 천축국 경계에 계시는
데, 여기서 거기까지는 십만 팔천 리나 되는 먼 길입니다. 스님처럼 말
한 마리에 의지해 동행도 없고 제자도 없이 어떻게 그 먼 길을 가시겠
습니까?"

삼장이 말했다. "얼마 전에 제자를 하나 얻었습니다만, 성격이 워낙
사납고 거칠더군요. 제가 몇 마디 훈계를 했더니 도무지 듣지도 않고는
홀쩍 떠나버렸습니다."

노모가 말했다. "여기 면포로 만든 겹옷 한 벌과 금실로 꽃을 수놓은
모자가 있습니다. 원래 제 아들이 쓰던 것인데, 스님이 된 지 사흘 만에
불행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금 아들의 절에 가서 한바탕 울며 스승님
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아들을 추억하고자 이 옷과 모자를 챙겨 나왔
습니다. 스님, 제자가 있다고 하시니 이 옷과 모자를 스님께 드리겠습
니다."

삼장이 말했다. "노모님의 너그러운 베품에 감사하오나, 제자가 이미 떠나버렸으니 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모가 물었다. "그 아이가 어디로 갔습니까?"

삼장이 대답했다.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동쪽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노모가 말했다. "동쪽 멀지 않은 곳에 저희 집이 있으니, 분명 우리 집 쪽으로 갔을 겁니다. 마침 저에게 '정심진언'이라 불리는 주문이 하나 있는데, '긴고주(머리테 조이는 주문)'라고도 합니다. 스님께서는 이 주문을 남몰래 익히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되,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서 그 아이를 불러 스님께 돌아오게 할 테니, 그때 이 옷과 모자를 입혀주십시오. 만약 그 아이가 스님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려 들면, 이 주문을 조용히 외우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다시는 흥포하게 굴지도 못할 것이고, 감히 떠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삼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여 감사의 절을 올렸다. 그러자 노모는 한 줄기 금빛 광채로 변하더니 동쪽을 향해 사라졌다. 삼장은 이것이 관세음보살께서 진언을 전해주신 것임을 깨닫고, 급히 흠을 모아 향을 피운 뒤 동쪽을 향해 간절히 절을 올렸다. 절을 마친 삼장은 옷과 모자를 거두어 짐 꾸러미 사이에 잘 넣어두었다. 그리고 길가에 앉아 그 정심진언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외웠다. 주문이 입에 붙어 완전히 익을 때까지, 그는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반복해서 읊조렸다.

한편, 손오공은 스승을 남겨두고 구름을 타고 단숨에 동쪽 바다로 달려갔다. 구름을 멈추고 물길을 가르며 나아가니 어느덧 수정궁 앞이었다. 이에 용왕이 깜짝 놀라 마중을 나와 궁 안으로 모셔 앉혔다. 인사를 마친 후 용왕이 말했다. '최근 대성께서 고난을 겪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 드리지 못해 송구했습니다! 아마도 신선의 산을 다시 정비하고 예전의 동굴로 돌아가신 모양이지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저도 그럴 마음이 있었지만, 어찌다 보니 또 스님이 되었습니다.' 용왕이 물었다. '스님이라니요? 어째서입니까?' 행자가 말했다. '남해 관음보살님께서 선행을 권하며 깨달음을 얻으라고 가르치시는 바람에, 동토의 당삼장을 따라 서천으로 가서 부처님을 뵈고 승려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자라고 불립니다.' 용왕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것 참 경사스러운 일이군요,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이제야말로 나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와 선한 마음을 되찾으셨군요. 그런데 일이 이쯤 되었으면 바로 서천으로 떠나면 될 것을, 어찌하여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신 겁니까?' 행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건 당삼장이 사람의 본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길목을 지키던 도둑놈 몇 놈을 제가 때려죽였더니, 당삼장이 옆에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제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답답한 소리를 참고만 있을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버려두고 제 본래 산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먼저 용왕님께 인사도 드리고 차 한 잔 대접받으러 들른 것입니다.' 용왕이 말했다. '왕립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러자 용왕의 아들과 손자들이 향긋한 차를 받들어 올렸다.

차를 다 마신 손오공이 고개를 돌려 뒤를 보니, 벽에 '이교진리'라는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었다. 손오공이 물었다.

"이것은 무슨 풍경입니까?"

용왕이 대답했다.

"대성께서 먼저 계셨고 이 일은 나중에 일어난 일이니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것은 '이교삼진리'라고 합니다."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어찌하여 '삼진리'라고 부릅니까?"

용왕이 설명했다.

"그림 속의 신선은 황석공이고, 저 아이는 한나라의 장량입니다. 황석공이 이교 위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다리 아래로 신발을 떨어뜨렸는데, 장량을 불러 신발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장량이 서둘러 신발을 가져와 무릎을 꿇고 바쳤지요.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었으나 장량은 조금도 거만하거나 게으른 기색 없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황석공은 그의 근면함을 보고 매우 아껴 밤에 천서를 전해주며 한나라를 보필하라고 일렀습니다. 그 후 장량은 과연 막사 안에서 계책을 세워 천 리 밖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태평성대가 찾아오자 그는 관직을 버리고 산으로 돌아가 적송자를 따라 수행하며 신선의 도를 깨달았습니다. 대성께서 만약 당삼장을 보필하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며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 요괴나 신선에 머물 뿐 결코 정과(부처의 경지)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다. 용왕이 덧붙였다.

"대성께서 마땅히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눈앞의 편안함만 쫓다가 앞길을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잔소리는 그만하시오. 이 몸이 가서 그를 보필하면 될 일 아니오."

용왕은 기뻐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더는 오래 머물지 않겠습니다. 대성께서 어서 자비를 베푸시어 스승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손오공은 용왕이 어서 떠나라고 청하며 재촉하는 것을 보고, 급히 몸을 날려 용궁(바닷속 보물 창고)을 빠져나와 구름을 타고 용왕과 작별한 뒤 날아갔다. 한참을 가던 중, 뜻밖에도 남해의 관세음보살을 마주쳤다. 관세음보살이 꾸짖듯 말했다. '손오공아, 어찌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고 당삼장을 보살피지 않느냐? 이곳에는 무엇 하러 왔느냐?' 깜짝 놀란 손오공이 구름 위에서 예를 갖추며 대답했다. '보살님의 자비로운 말씀 덕분에 정말로 당나라 승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압첩을 떼어내어 제 목숨을 구해준 덕분에 제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사납고 거칠다며 나무라시기에, 잠시 피해 떠났습니다. 이제 다시 가서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말했다. '어서 가거라. 마음먹은 그 생각을 놓치지 말고.' 말을 마친 뒤 각자 제 갈 길로 돌아갔다.

손오공이 잠시 뒤를 돌아보니, 당삼장이 길가에 앉아 근심 어린 표정으로 멍하니 있는 것이 보였다. 손오공이 다가가 물었다.

"스승님, 왜 길을 가지 않고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당삼장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너는 어디를 가느냐? 나는 가고 싶어도 감히 갈 수가 없구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여기서 너를 기다릴 뿐이다."

손오공이 말했다.

"저는 동쪽 바다 용왕님 댁에 가서 차라도 한 잔 얻어 마시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당삼장이 말했다.

"제자야, 출가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나를 떠난 지 채 한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용왕님 댁에서 차를 마시고 오겠다고 하느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께 숨김없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근두운을 탈 줄 압니다. 한번 구르면 십만 팔천 리를 가니, 금방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당삼장이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말이 조금 심했던 모양이구나. 네가 그것을 탓하며 화를 내고 나를 버리고 가려 하다니. 너처럼 재주가 많은 이는 차를 얻어 마시려 가겠지만, 나처럼 갈 곳 없는 이는 그저 여기서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구나. 너도 마음이 편치 않겠지."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배가 고프시다면 제가 가서 공양물이라도 좀 빌려 오겠습니다."

당삼장이 말했다.

"공양물을 빌려올 것까지는 없다. 내 보따리 안에 유백흙의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마른 음식이 좀 남아 있단다. 가서 발우를 챙겨 물을 좀 떠 오너라. 그걸로 요기를 좀 하고 다시 길을 떠나자꾸나."

손오공은 짐을 풀어 그 안에서 거친 밀가루로 만든 구운 떡 몇 개를 꺼내 스승에게 건넸다. 그러다 번쩍거리는 면직물로 된 도포 한 벌과 금박 꽃무늬가 박힌 모자를 발견했다. 손오공이 물었다.

“스승님, 이 옷과 모자는 동토에서 가져오신 겁니까?”

당삼장이 무심결에 대답했다.

“내가 어릴 때 입던 것이란다. 이 모자를 쓰면 경을 배우지 않아도 절로 경을 읽게 되고, 이 옷을 입으면 예법을 배우지 않아도 절로 예를 갖추게 되지.”

손오공이 말했다.

“좋은 스승님, 저도 이것을 입게 해주십시오.”

당삼장이 말했다.

“네 몸에 맞지 않을까 걱정이구나. 만약 맞으면 입어 보려무나.”

손오공은 곧바로 입고 있던 낡은 흰 면 도포를 벗고 면직물 도포를 입었는데, 마치 자기 몸에 맞춰 재단한 것처럼 딱 맞았다. 이어 모자까지 머리에 썼다. 당삼장은 손오공이 모자를 쓰자, 마른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는 묵묵히 긴고주를 한 번 외웠다.

손오공이 비명을 질렀다.

“머리야, 머리가 너무 아파요!”

당삼장이 멈추지 않고 몇 번을 더 외우자, 손오공은 통증을 이기지 못해 바닥을 뒹굴며 금박 꽃무늬 모자를 활କୁ어 망가뜨렸다. 당삼장은 흑여나 금고아(머리테)가 끊어질까 봐 겁이 나 주문을 멈추었다. 주문을 멈추자 통증이 가라앉았다. 손오공이 손을 뺀어 머리를 만져보니, 마치 금속 실 하나가 머리에 꽉 조여져 있는 듯했다. 뽑아낼 수도 없고 끊어낼 수도 없으며, 이미 살 속에 뿌리를 내린 것 같았다. 손오공은 귀에서 바늘을 꺼내 머리테 사이로 찔러 넣어 이리저리 휘저어 보았다. 당삼장은 손오공이 바늘로 테를 끊어버릴까 봐 다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통증이 다시 밀려왔다. 손오공은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공중제비를 돌며 괴로워했다. 얼굴은 붉게 달

아오르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당삼장은 그 모습을 보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통증이 멎었다.

손오공이 물었다.

“제 머리가 아픈 게, 사실은 스승님이 저를 저주하신 겁니까?”

당삼장이 말했다.

“나는 긴고주를 읽었을 뿐인데, 어찌 너를 저주했다 하겠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한 번만 더 읽어봐 주세요.”

당삼장이 정말로 다시 주문을 외우자, 손오공은 다시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울부짖었다.

“제발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주문을 외우시면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당삼장이 물었다.

“이제 내 가르침을 깨달았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무례하게 굴지 않겠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감히 그러지 않겠습니다.”

손오공은 입으로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는 귀에서 바늘을 꺼내 한 번 흔드니 사발만큼 굵은 쇠몽둥이가 되었고, 그것으로 당삼장을 향해 당장이라도 내리치려 했다. 당삼장이 당황하여 주문을 두세 번 더 연달아 외우자, 손오공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들고 있던 철봉을 떨어뜨렸다. 손오공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이렇게 외쳤다. '스승님, 알겠습니다! 제발 그만 좀 외우세요, 제발요!' 당삼장이 꾸짖었다. '어찌 그리 마음을 속이고 감히 나를 때리려 하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때리려 한 적 없습니다. 스승님께 여쭙겠는데, 이 방법은 대체 누가 가르쳐준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만난 한 노모가 가르쳐주었다.' 그러자 손오공이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다. '말 안 해도 뻔하군요! 그 노모는 분명 관세음보살일 겁니다. 어째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걸까요? 두고 보세요, 제가 남해로 찾아가 따져 묻겠습니다!' 당삼장이 타이르듯 말했다. '그분이 직접 가르쳐주신 법이니 분명 미리 알고 계실 겁니다. 네가 그분을 찾아가 봤자, 그분이 주문을 외우기라도 하면 너는 그대로 죽고 말 것이 아니냐?' 손오공은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정말로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결국 마음을 고쳐먹은 손오공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했다. '스승님, 이건 저를 어쩔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군요. 저를 스승님을 모시고 서천으로 가게 만들려고 말입니다. 저도 그분을 건드리지 않을 테니, 스승님께서도 평소처럼 자꾸 외우지는 마십시오. 제가 스승님을

보필할 테니, 다시는 마음을 바꾸어 물러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삼장이 말했다. '정 그렇다면, 어서 나를 말에 태워 모시거라.' 그제야 손오공은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바짝 차렸다. 그는 면직물로 된 도포를 단정하게 여미고, 말의 굴레를 채운 뒤 짐을 챙겨 서쪽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결국 이들의 앞날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5회 — 사반산에서 여러 신이 암암리에 돕고, 응수간에서 의마의 고삐를 거두다

蛇盤山諸神暗佑 鷹愁澗意馬收韁

한편, 손오공은 삼장을 모시고 서쪽으로 향한 지 며칠이 지났다. 때는 마침 설달의 추운 날이라,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고 바닥은 미끄럽고 얼음이 얼어붙어 있었다. 길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험한 언덕이 이어지는 험난한 산세였다. 말을 타고 가던 삼장이 멀리서 귀를 울리는 요란한 물소리를 듣고는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오공아, 저 물소리는 어디서 나는 것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곳은 사반산(蛇盤山) 응수간이라고 합니다. 아마 골짜기에서 나는 물소리일 것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이 골짜기 근처에 다다르자, 삼장은 고삐를 잡아당겨 멈춰 서서 살펴보았다.

시로 이르되, 가느다란 물줄기는 구름을 뚫고 흐르고 맑고 깊은 물결은 햇빛을 받아 붉게 빛나네. 깊은 골짜기 울리는 소리는 밤비 소리

갈고 아침 노을 비치는 모습은 하늘을 눈부시게 하네. 천 길 낭떠러지에서 부서지는 파도는 옥 가루 같고 시원한 바람 속에서 물소리는 우렁차게 울리네. 만경창과 물결 따라 멀리 흘러가니 갈매기와 백로는 서로 잊고 노닐 뿐, 낚시꾼도 만나는 일이 없네.

스승과 제자가 한창 경치를 구경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계곡 안에서 커다란 소리가 울리더니, 용 한 마리가 물결을 일으키며 솟구쳐 올라 절벽을 넘어 스승을 덮치려 달려들었다. 당황한 손오공은 짐을 내팽개치고 스승을 말에서 내려 품에 안은 채 뒤로 물러나 도망쳤다. 용은 미처 손오공을 따라잡지 못하고, 대신 백마를 통째로 삼켜버린 뒤 다시 물속으로 몸을 숨겼다.

손오공은 스승을 높은 언덕 위에 앉혀드리고는, 말을 찾아 짐을 챙기러 갔다. 하지만 말과 안장은 사라지고 짐 보따리 하나만 겨우 남은 상태였다. 손오공이 짐을 짊어지고 스승 앞으로 돌아와 말했다.

"스승님, 저 못된 용놈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제 말만 겁을 주어 쫓아버렸어요."

삼장법사가 근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제자야, 그럼 이제 그 말을 어떻게 찾겠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가서 꼭 찾아오겠습니다."

손오공이 휘파람을 한 번 크게 불더니 공중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불타는 듯한 눈으로 사방을 살살이 살폈다. 손을 눈썹 위로 올려 햇빛을 가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구름을 타고 내려온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저놈이 분명 말을 잡아먹은 모양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요."

삼장이 말했다.

"제자야, 그놈 입이 대체 얼마나 크기에 말과 안장, 고삐까지 통째로 삼켰단 말이나? 아마 놀란 말이 고삐를 놓치고 저 산골짜기 어딘가로 달아난 것이 아닐까 싶구나. 네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무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제 능력을 너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제 눈은 낮 동안 천 리 밖의 길흉화복도 훤히 내다본단 말입니다. 천 리 안에서 잠자리 한 마리가 날갯짓하는 것도 다 보이는데, 어찌 저 큰 말이 안 보일 수 있겠습니까?"

삼장이 탄식하며 말했다.

"만약 정말 저놈이 먹어치운 것이라면 나는 이제 어떻게 나아간단 말이나? 가련하기도 하지, 이 넓은 산과 먼 강을 대체 어떻게 건너가겠느냐?"

말을 마친 삼장은 눈물을 비 오듯 흘리기 시작했다. 손오공은 스승이 울기 시작하자 성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스승님, 왜 이렇게 겁쟁이처럼 구십니까! 일단 좀 앉아 계십시오. 제가 가서 그놈을 찾아내어 우리 말을 돌려놓으라고 따지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삼장이 손오공을 붙잡으며 말했다.

"제자야, 그놈을 어디서 찾는단 말이나? 혹시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나까지 해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때 가서 사람도 말도 모두 잃게 되면 대체 어찌한단 말이나?"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천둥 같은 소리로 외쳤다.

"정말 못 해 먹겠군요, 못 해 먹겠어! 말은 타고 싶으시다면서 제가 가는 건 못 하게 하시니, 그럼 그냥 이 짐이나 지키면서 앉아만 계시든가요!"

울음 섞인 소리를 내며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손 대성님, 노여워 마십시오. 당 승려님도 울음을 그치십시오. 저희는 관음보살님의 명을 받고 온 신령들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분들을 몰래 보살피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삼장이 황급히 절을 올렸다. 손오공이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인가? 이름을 말해 보시오. 내가 명단을 확인해야겠소.”

신들이 대답했다.

“저희는 육정육갑, 오방게체, 사치공조, 그리고 열여덟 분의 호교가 랍입니다. 각자 차례를 나누어 교대로 당직을 서며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그럼 오늘은 누구부터 시작하는가?”

게체들이 대답했다.

“육정육갑과 공조, 가람이 차례로 돌아가며 말합니다. 저희 오방게체 중에서는 오직 금두게체만이 밤낮으로 곁을 지킵니다.”

손오공이 명령했다.

“그렇다면 당번이 아닌 자들은 물러가라. 육정신장과 오늘 당직인 공조, 그리고 여러 게체들만 남아서 우리 스승님을 잘 보살피도록 해라. 나는 저 골짜기에 있는 못된 용놈을 찾아내서 내 말을 돌려받아 오겠다.”

신들이 명령을 받들었다. 그제야 삼장은 마음을 놓으며 바위 절벽에 앉아 손오공에게 조심히 다녀오라고 당부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걱정 마시고 편히 계십시오.”

기운을 차린 손오공은 면직물로 된 도포를 여미고 호랑이 가죽 치마를 추스른 뒤, 금고봉을 손에 쥐고 정신을 바짝 차렸다. 그러고는 구름과 안개가 반쯤 깔린 골짜기 물가로 성큼성큼 다가가 크게 외쳤다.

“이 미꾸라지 같은 놈아! 내 말을 당장 내놓아라! 내 말을 돌려줘!”

한편, 용은 삼장의 백마를 삼킨 뒤 계곡 바닥에 엎드려 조용히 숨을 고르며 기운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다 누군가 말 때문에 욕을 하며 소리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참다못해 화가 치민 용이 몸을 날려 파도를 헤치며 솟구쳐 올라와 외쳤다. “감히 이곳에서 누구를 향해 입을 놀리는 것이냐!” 손오공은 용을 보자마자 크게 호통을 쳤다. “어디를 도망가느냐! 당장 내 말을 내놓아라!” 손오공은 여의봉을 휘두르며 용의 머리부터 사정없이 내리쳤고, 용은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맞서 싸웠다. 계곡가에서 벌어진 두 영웅의 격렬한 싸움은 실로 대단했다.

시로 이르되,

용은 날카로운 발톱을 펴고, 원숭이는 금고아를 들어 올렸네. 한쪽은 흰 구슬 같은 수염을 늘어뜨렸고, 한쪽은 붉은 등불 같은 눈을 번뜩이네. 수염 아래서는 명주가 채색 안개를 뿜어내고, 손에는 쇠몽둥이가 광풍을 일으키네. 한쪽은 부모를 저버린 불효한 자요, 한쪽은 하늘을 속인 요괴로다. 두 존재 모두 고난을 겪으며 시련을 맞이했으니, 이제 큰일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려 하는구나.

한참 동안이나 서로 치고받으며 싸우고, 주변을 맴돌며 한동안 격전을 벌였다. 그러나 용은 기운이 다 빠지고 온몸의 근육이 마비되어 더

이상 맞설 힘이 없었다. 결국 용은 몸을 뒹 돌려 물속으로 도망쳐 버렸고, 골짜기 깊은 바닥까지 잠겨 들어가 다시는 머리를 내밀지 않았다. 손오공이 쉴 새 없이 욕설을 퍼부으며 꾸짖었지만, 용은 귀머거리인 척 하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손오공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결국 삼장에게 돌아가 말했다. “스승님, 저 괴물 녀석을 제가 호통쳐서 불러냈는데, 저와 한참을 맞서 싸우더니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이제는 물속에 숨어서 도무지 나오질 않네요.”

삼장이 물었다. “사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 혹시 저놈이 내 말을 잡아먹은 것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놈이 잡아먹은 게 아니라면, 감히 밖으로 나와 소리를 지르며 저와 맞서 싸웠겠습니까?”

삼장이 다시 말했다. “네가 엇그제 호랑이를 잡을 때, 용도 굴복시키고 호랑이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은 저놈을 제압하지 못하는 것이냐?”

알고 보니 그 원숭이는 남이 자신을 다그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성미였다. 삼장이 이 한마디로 손오공의 속을 긁자, 손오공은 위엄을 세우며 외쳤다. “말씀 마십시오, 말씀 마십시오! 제가 저놈과 다시 한번 제대로 승부를 겨뤄보고 오겠습니다!”

손오공은 성큼 걸어가 계곡가로 뛰어들더니, 바다를 뒤엎고 강물을 휘젓는 신통력을 발휘했다. 그러자 맑게 흐르던 응수간의 물이 마치 구곡황하가 범람하듯 거칠게 소용돌이치며 일렁였다.

깊은 계곡 속에 있던 못된 용은 마음이 뒤숭숭하여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용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복은 겹쳐 오지 않고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로구나. 천계의 법도를 어겨 죽을 고비를 넘긴 지 채 일 년도 되지 않아, 여기서 그저 인연 따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또 이런 고약한 요괴를 만나 나를 해치려 들다니!'

용은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라 분함을 참지 못했다. 결국 이를 악물고 밖으로 튀어나오며 소리쳤다. "너는 어디서 온 요괴냐! 감히 나를 이토록 괴롭히다니!"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상관 말고, 네가 말만 돌려준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용이 대꾸했다. "네 말은 이미 내 배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뱉어낸단 말이냐? 돌려주지 않는다면 네가 어쩔 셈이냐?"

손오공이 다시 외쳤다. "말을 돌려주지 않겠다면 내 몽둥이를 맛보게 해주마! 너를 때려죽여서 내 말의 목숨을 대신 갚게 할 테니까!"

두 존재는 다시 산 절벽 아래에서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합을 겨루지 못해 용이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게 되자, 몸을 휘음직여 물뱀으로 변신하더니 풀숲 사이로 껌싸게 숨어버렸다.

손오공이 여의봉을 손에 쥐고 급히 달려가 풀숲을 헤치며 뱀을 찾았으나, 아무리 뒤져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마음이 급해진 손오공은 가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눈과 코에서 연기가 날 지경이었다. 그는 급히 “옴(俺)” 자 주문을 외워 그곳을 지키는 토지신과 산신을 불러냈다. 두 신이 무릎을 꿇고 나타나자 손오공이 말했다. “산신과 토지는 이리 다가와라! 내 기분 좀 풀게 다리 하나씩 내밀어 봐라, 한 대씩 쳐줄 테니!” 두 신은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다. “대성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소신들이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손오공이 물었다. “무슨 소리냐?” 두 신이 대답했다. “대성께서 워낙 오랫동안 갇혀 계셨기에, 저희가 언제 나오실지 몰라 미쳐 마중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엔 때리지 않으마. 대신 묻겠다. 저 응수간에 나타난 괴상한 용은 대체 어디서 온 놈이냐? 어찌하여 우리 스승님의 백마를 가로채 먹어 치운 것이냐?” 두 신이 말했다. “대성께서는 본래 스승님 같은 건 없지 않으셨습니까? 원래 하늘에도 땅에도 굴복하지 않는 혼원상진(混元上眞)이신데, 대체 어디서 스승님의 말을 얻으셨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너희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구나. 나는 다름 아니라 하늘을 속인 그 죄 때문에 꼬박 오백 년 동안이나 고난을 다 겪었다. 이제 관음보살님의 선한 권유를 받아, 당나라에서 온 참된 승려를 구출해 내어 그분의 제자가 되어 서천으로 가서 부처님을 뵙고 경전을 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던 중에 스승님의 백마를 잃어버린 것이다.” 두 신이 말했다. “아, 과연 그러했군요. 원래 이 계곡에는 나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물이 깊고 험하며 폭이 넓은 데다, 물빛이 너무 맑고 투명하여 까마귀나 까치조차 감히 날아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물이 너무 맑아 제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보고는 동료인 줄 착각해 물속으로

뛰어드는 새들이 많았기에 ‘응수간(鷹愁澗, 매가 근심하는 골짜기)’이라 불리는 곳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 관음보살님께서 경전을 구하러 올 사람을 찾으시다가 옥룡 한 마리를 구제하여 이곳에 머물게 하며, 경전을 구하러 올 이를 기다리되 절대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일러두셨습니다. 그저 배가 고플 때면 육지로 올라와 새나 짐승을 잡아먹으며 지내왔는데, 오늘 어찌하여 철없이 대성께 대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처음에는 이놈이 나에게 맞서며 몇 차례나 빙빙 돌며 싸웠다. 그다음에는 내가 욕을 퍼부었더니 다시는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내가 바다를 뒤엎을 듯한 법술을 써서 계곡물을 흐려 놓았더니, 이놈이 기어 올라와 다시 맞서려 했다. 내 여의봉이 무거운 줄 모르고 버티려 하기에, 결국 물뱀으로 변해 풀숲 속으로 파고들어 버렸다. 내가 쫓아와 찾아보았으나 도무지 종적을 찾을 수가 없구나.” 토지가 말했다. “대성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이 계곡은 수많은 구멍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물결이 깊고 멀리까지 흐릅니다. 아마도 이곳에 있는 구멍 중 하나로 파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성께서 화를 내며 여기저기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놈을 잡으시려면 그저 관음보살님을 모셔 오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굴복할 것입니다.”

손오공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산신과 토지를 불러 삼장법사에게 오게 했다. 그리고는 앞서 일어난 일을 상세히 고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만약 보살님을 모셔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동안 이 빈 승려는 배고픔과 추위를 어찌 견딘단 말이나?" 삼장이 말을 다 마치고 전애, 갑자기 허공에서 금두게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성, 직접 움직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서 보살님을 모셔 오겠습니다!" 손오공이 크게 기뻐하며 외쳤다. "정말 고맙소, 고마워! 어서 가시오, 어

서!" 금두게체는 급히 구름을 타고 남해로 달려갔다. 손오공은 산신과 토지에게 스승님을 잘 보살피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낮에는 공조(낮의 업무를 맡은 신)를 시켜 공양물을 찾게 하고, 자신은 다시 계곡 주변을 돌며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편, 금두게체는 구름을 타고 서둘러 남해에 도착했다. 그는 상서로운 빛을 따라 낙가산 자족림에 이르러, 그곳을 지키던 금갑제천과 목차 혜안(木叉惠岸, 혜안행자)에게 일을 전해 달라고 부탁한 뒤 관음보살을 뵈었다.

보살이 물었다. “무슨 일로 왔느냐?” 금두게체가 대답했다. “삼장법사가 사반산(蛇盤山) 응수간에서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손오공이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곳의 토지신에게 물어보니, 보살께서 응수간에 보내신 죄 많은 용이 말을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저를 보내 보살님께 간청하여 그 용을 굴복시키고 말을 되찾게 해달라고 전하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보살이 말했다. “그놈은 본래 서해 오운의 아들인데, 전각에 있던 명주를 불태운 죄로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질러 천계에서 죽을죄를 지은 자다. 내가 직접 옥황제에게 청하여 그를 이곳으로 내려보내 삼장법사의 말이 되어 수행을 돕게 한 것인데, 어찌 삼장의 말을 되삼킨단 말이냐? 네 말이 사실인지 내가 직접 가 보겠다.” 보살은 연화대를 내리고 신선이 사는 동굴을 나서서, 금두게체와 함께 상서로운 빛을 타고 남해를 건너 달려왔다. 이를 시로 읊으면 다음과 같다.

시로 이르되, 부처님이 설하신 밀다삼장경은 보살의 선한 뜻을 만리까지 펼치네. 크고 오묘한 말씀은 천지를 통하고 반야의 진언은 귀신

과 영혼을 구하도다. 금선이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듯 삼장법사가 다시 수행을 이어가려는데 응수간의 험한 길에 장애가 생기니 용의 아들이 참된 도를 얻어 말의 형상이 되었네.

관음보살과 금두게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반산(蛇盤山)에 도착했다. 보살은 공중에 상서로운 구름을 멈춰 세우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손오공이 계곡가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보살이 금두게체에게 그를 불러오라고 일렀다. 금두게체가 구름을 타고 내려가 삼장법사를 거치지 않고 곧장 계곡가로 가서 손오공에게 말했다. “보살께서 오셨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급히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보살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당신은 일곱 부처님의 스승이자 자비로운 교주라면서, 어찌하여 나를 해치려고 이런 수작을 부리는 거요?” 그러자 보살이 말했다. “이 간 큰 원숭이 놈아! 무식하고 엉덩이 빨간 원숭이 녀석아. 내가 몇 번이고 마음을 써서 경전을 구하러 가는 이를 보냈고, 네 목숨을 구하라고 신신당부까지 했는데, 어찌하여 살려준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나에게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나를 아주 제대로 골탕 먹였구려! 나를 풀어주었으면 그냥 자유롭게 놀게 내버려 두지 그랬소? 며칠 전 바다에서 나를 만났을 때 몇 마디 꾸짖으며 삼장법사를 정성껏 모시라고 가르치기만 했어도 됐을 것을, 어찌하여 그 꽃모자를 나에게 씌워 고생을 시키는 거요? 이 머리테를 내 머리에 딱 붙여놓고는, 그 노스님이 ‘긴고주(緊箍咒, 머리테 조이는 주문)’라는 걸 자꾸만 외우게 하니, 주문을 외울 때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지 않소. 이것이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고 무엇이란 말ियो?” 보살이 웃으며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아, 네가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바른 깨달음(正果)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니,

이렇게 묶어두지 않으면 또 하늘을 속이고 제멋대로 굴 텐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거나 하겠느냐? 예전처럼 또 큰 화를 불러일으키면 누가 너를 단속하겠느냐? 바로 이 머리테라는 굴레가 있어야만 네가 비로소 내 유가(瑜伽)의 가르침에 들어서려 할 게 아니냐.”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그건 내 잘못이라 칩시다. 그런데 왜 죄를 지은 용을 이곳에 보내 요괴로 만들어 우리 스승님의 말을 잡아먹게 했단 말ियो? 이것이야말로 악한 자를 풀어주어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니, 너무나 선하지 못한 처사 아니오?” 보살이 말했다. “그 용은 내가 직접 옥황제께 아뢰어 이곳으로 보낸 것이다. 오직 경전을 구하러 가는 이를 위해 발이 되어주라고 말이다. 동쪽 땅에서 온 평범한 말이 어떻게 이 수많은 물과 산을 건너 영산(靈山)의 부처님 땅까지 갈 수 있겠느냐? 반드시 이 용마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다.” 손오공이 물었다. “하지만 저놈이 나를 무서워해서 숨어 나오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보살이 금두게체에 일렀다. “계곡가로 가서 이렇게 외치거라. ‘서해 오운 용왕의 아들인 옥룡 삼태자야, 어서 나오너라! 남해의 관음보살께서 여기 계신다!’”

금두게체가 계곡가로 달려가 두 번이나 크게 소리쳤다. 그러자 어린 용이 파도를 일으키며 물 밖으로 튀어 올라와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더니, 구름을 밟고 하늘로 올라가 보살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다.

"보살님, 저를 살려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한참을 기다렸으나, 경전을 구하러 가는 분들의 소식은 도무지 들리지 않습니다."

보살이 손오공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 아이가 바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이의 큰 제자가 아니냐?"

용이 그 모습을 보고는 말했다.

"보살님, 저놈은 저의 원수입니다. 어제 배가 너무 고파 그만 저자의 말을 먹어 치웠는데, 저놈이 제법 힘을 써서 저를 겁주어 쫓아내더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퍼부으며 감히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저놈은 '경전을 구하러 간다'는 말 한마디조차 꺼내지 않았습시다."

손오공이 대꾸했다.

"내가 내 성이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겠느냐?"

용이 다시 말했다.

"내가 너 같은 망할 놈이 어디서 온 괴물이냐고 묻지도 않았더니? 너는 그저 '어디서 왔든 상관없으니 내 말이나 내놓으라'고 소리만 질러댔지, '당나라'라는 글자 한 자도 내뱉지 않았단 말이다."

그러자 보살이 말했다.

"저 원숭이는 제 힘만 믿고 잘난 체하는 성미라 남을 칭송할 리가 있겠느냐? 이번에 가서 잘 타일러 보렴. 만약 물어보거든 먼저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이라는 말부터 꺼내거라. 그러면 애써 힘을 필요도 없이 저절로 엎드려 복종할 것이다."

손오공은 기뻐하며 가르침을 받았다. 관음보살이 앞으로 나서서 어린 용의 목에 걸린 명주를 떼어내고, 버들가지에 감로를 적셔 용의 몸에 스승 뿌린 뒤, 입으로 신령한 기운을 한 번 불어넣으며 크게 외쳤다. “변하라!” 그러자 용은 즉시 원래의 모습인 말로 변했다. 보살이 다시 말해주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지은 업보를 씻어내거라. 공덕을 쌓으면 평범한 용의 신분을 벗어나 금빛 몸을 가진 깨달은 존재가 될 것이다.” 어린 용은 입에 가로뼈(橫骨)를 문 채, 마음속으로 깊이 명을 받들었다. 보살이 손오공에게 용을 데려가 삼장법사를 만나게 하라고 일렀다. “저는 이제 바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손오공이 보살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며 말했다. “아니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절대로 안 갈 겁니다. 서천으로 가는 길은 이토록 험난한데, 저 평범한 스님을 모시고 언제 목적지에 도착하겠습니까? 이렇게 온갖 고난과 우여곡절이 끊이지 않으니, 이 몸 하나 보전하기도 힘든데 무슨 공덕을 쌓겠습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절대로 안 갈 겁니다!” 보살이 말했다. “너는 예전에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도 온 마음을 다해 수행하려 애쓰더니, 오늘은 하늘의 재앙에서 벗어났다고 어찌 이리 게으름을 피우느냐? 우리 문중에서는 고요한 깨달음을 통해 진리에 이르는 법이니, 반드시 믿음과 정진이 있어야 한다. 만약 몸을 상하게 하는 고통스러운 시련이 닥치거든, 네가 하늘에 부르짖으면 하늘이 응답하고 땅에 부르짖으면 땅이 응답하게 해주마. 또한 도저히 벗어나기 힘든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내가 친히 너를 구하러 오겠다. 자, 이리 오너라. 네게 또 다른 재주를 하나 더 주마.” 보살은 버들잎 세 개를 따서 손오공의 머리 뒤에 놓아주고는 크게 외쳤다. “변하라!” 그러자 잎사귀들이 즉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세 가닥의 털로 변했다. 보살이 일러주었다. “만약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오면, 이 털을 사용해 상황에 맞춰 대처하

여 급박하고 고통스러운 재난을 피하거라.” 손오공은 이토록 자애로운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대자대비한 보살에게 깊이 감사드렸다. 보살은 향기로운 바람을 휘감고 오색 구름을 띄운 채 그대로 낙가산으로 돌아갔다.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용마의 갈기를 움켜쥐고 삼장에게 다가가 말했다. “스승님, 말을 찾았습니다!” 삼장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제자야, 그런데 이 말이 전보다 왜 더 살이 찌고 늙름해진 것 같으냐? 대체 어디서 찾아온 것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 아직도 꿈속에 계시는군요. 방금 금두게체가 관음보살님을 모셔 와서, 저 골짜기의 용을 우리 백마로 변하게 한 것입니다. 털 모양은 예전과 똑같지만 안장과 굴레가 없을 뿐이지요. 이 손오공이 꼭 붙잡아 왔습니다.” 삼장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보살님은 어디 계시느냐? 내가 가서 인사를 드려야겠다.” 손오공이 말했다. “보살님은 벌써 남해로 돌아가셔서 바쁘실 겁니다.” 삼장은 즉시 흙을 모아 향을 피우고 남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 절을 마친 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오공과 함께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손오공은 산신과 토지를 불러 가게 하고, 금두게체와 공조에게 분부를 내린 뒤 스승에게 말에 오르라고 권했다. 삼장이 말했다. “안장과 굴레도 없는 말을 어떻게 타고 가겠느냐? 우선 배를 찾아 이 골짜기를 건넌 다음에 다시 방도를 찾아보자꾸나.”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은 참 눈치가 없으시군요! 이 넓은 산골짜기에 배가 어디서 나온단 말씀입니까? 이 말은 이곳에 오래 살았으니 물살이 어떤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이 말을 타고 배처럼 건너가면 그만이지요.”

삼장은 어쩔 수 없이 그 말대로 하여 말에 올라탔다. 손오공은 짐을 짊어지고 뒤따랐다. 계곡가에 이르니, 상류 쪽에서 한 낚시꾼이 마른 나무로 만든 뗏목을 저으며 물줄기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손오공이 그를 보고 손을 흔들며 불렀다.

“어르신,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이쪽으로요! 저희는 동토에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인데, 스승님께서 이곳을 건너기 힘들어하십니다. 어서 오셔서 스승님을 좀 태워다 주세요.”

낚시꾼은 그 말을 듣자마자 서둘러 뗏목을 저어 다가왔다. 손오공은 스승님을 내려 말에서 내리게 한 뒤 양옆에서 부축해 드렸다. 삼장이 뗏목에 올라타고 말과 짐을 싣자, 늙은 낚시꾼은 뗏목을 힘차게 저어 바람처럼 화살처럼 나아갔다. 어느새 응수간 계곡을 지나 서쪽 기슭에 다다랐다. 삼장이 손오공에게 보따리를 풀라고 일러, 당나라에서 가져온 엽전 몇 톨을 꺼내 낚시꾼에게 건넸다. 그러자 낚시꾼은 뗏목을 저으며 말했다.

“돈은 필요 없소, 돈은 필요 없소.”

그러고는 다시 물 한가운데로 아득히 멀어져 갔다. 삼장은 그저 고마운 마음에 합장하며 인사를 건넸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인사하실 것 없습니다. 저분이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바로 이 계곡의 수신(水神)이십니다. 저를 마중 나오지 않았더라면 제가 한 바탕 때려쳤을 텐데, 지금은 매를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어떻게 감히 돈을 받겠습니까!”

삼장은 그 말을 믿는지 마는지 알 수 없었으나, 다시 말에 올라타 손오공을 따라 큰길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달려갔다.

시로 이르되, 넓고 큰 진리가 저 언덕에 오르니, 지극한 정성으로 깨달음을 얻어 영험한 신산에 이르리라.

스승과 함께 길을 나아가다 보니 어느덧 붉은 해가 서산으로 저물어 날이 점차 어둑해졌다.

시로 이르되,

열은 구름은 어지러이 흩날리고 산과 달은 흐릿하구나. 하늘 가득 서리 기운 서려 차갑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뼈를 찌르는 듯하네. 외로운 새 떠나간 푸른 물가엔 적막만 가득하고, 노을 빛 밝은 곳 너머 먼 산은 낮게 내려앉았다. 성긴 숲 천 그루는 바람에 울부짖고, 빈 고개에는 외로운 원숭이 울음소리뿐이라. 먼 길 어디에도 지나간 사람 흔적 보이지 않고, 만 리 길 돌아가는 배는 깊은 밤을 맞이하네.

삼장이 말 위에서 멀리 바라보니, 문득 길가에 장원 하나가 보였다. 삼장이 말했다. “오공아, 저 앞에 민가가 있으니 저곳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에 다시 출발하자.” 손오공이 고개를 들어 확인하더니 말했다. “스승님, 저건 민가가 아닙니다.” 삼장이 물었다. “어찌 민가가 아니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보통 민가의 지붕에는 날치(飛魚)나 짐승 모양의 용마루 장식이 없는 법인데, 저곳은 그런 장식이 있으니 분명 절이나 암자입니다.”

스승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덧 문 앞에 다다랐다. 삼장이 말에서 내리니 문 위에 '리사사'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삼장이 안으로 들어서자, 목에 염주를 건 노인 한 명이 두 손을 모으고 마중 나오며 말했다.

"스님,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삼장은 서둘러 예를 갖춘 뒤, 전각으로 들어가 성상을 참배했다. 노인이 동자를 불러 차를 대접하자, 삼장이 노인에게 물었다.

"이곳은 어찌하여 '리사'라고 부릅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이곳은 서번 하계국의 접경 지역입니다. 이 사당 뒤편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이 사당을 세웠습니다. '리'는 마을을 뜻하고, '사'는 마을을 지키는 토지신을 뜻합니다. 매년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매며,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곡식을 저장하는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제물과 꽃, 과일을 정성껏 준비해 이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사계절 내내 평안하고 오곡이 풍성하며 가축이 번성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이지요."

삼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다.

"정말 '집에서 삼 리만 떨어져 있어도 풍습이 이토록 다르다'는 말이 맞군요. 제가 온 곳의 마을 사람들은 이만큼 정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물었다.

"스님께서는 어느 선향에서 오셨습니까?"

삼장이 대답했다.

"빈승은 동토 대당국에서 왔습니다.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보방을 지나던 중 날이 저물어, 실례를 무릅쓰고 이 성스러운 사당에 들러 하룻밤 묵어간 뒤 날이 밝으면 다시 길을 떠나려 합니다."

노인은 매우 기뻐하며 연신 미처 대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인사를 건넨 뒤, 동자를 불러 음식을 준비하게 했다. 삼장은 식사를 마친 뒤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손오공은 눈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처마 밑에 옷을 널어두는 줄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 줄을 단번에 끊어버리고는, 그것으로 말의 다리를 묶었다.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물었다.

"그 말은 어디서 훔쳐 온 것이요?"

손오공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 영감탱이가 말버릇이 고약하구나! 우리는 부처님을 모시는 성스러운 승려인데, 우리가 어찌 말을 훔친단 말이냐?"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훔친 게 아니라면서, 왜 안장과 고삐, 굴레도 없이 남의 집 빨랫줄을 끊어다 쓰는 것이요?"

그러자 삼장이 정중히 사과하며 말했다.

"이 아이가 장난기가 심하고 성격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말을 묶으려거든 어르신께 정중히 줄을 빌려달라고 청해야지, 어찌 남의 옷줄을 끊어버린단 말인가. 어르신, 부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 말이 흠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동쪽으로 오다가 응수간에 이르렀는데, 원래 타던 백마가 있었고 안장과 고삐도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그 골짜기에 못된 용 한 마리가 요괴가 되어 살고 있더군요. 그놈이 제 말과 안장, 고삐를 한입에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다행히 제 제자가 재주가 좀 있는 데다, 관음보살님께서 골짜기로 오셔서 그 용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덕분에 그 용이 원래 제가 타던 백마로 변하여 털 하나까지 똑같아졌고, 덕분에 이 말을 타고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중입니다. 이제 막 골짜기를 지나 이곳 어르신의 성스러운 사당에 도착했을 뿐이라, 아직 안장과 고삐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인이 말했다.

"스님, 노여워 마십시오. 제가 농담을 던진 것인데 제자의 기세가 워낙 대단하여 몰랐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마을 재산이 좀 있어서 준마를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며 여러 재난을 겪고 화재까지 당해 지금은 이처럼 몰락하여 사당을 지키는 묘축이 되어 향을 받들고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뒷마을 시주님들이 베푸는 보시 덕분에 겨우 입에 풀칠하며 지냅니다. 사실 제게 평소 아끼던 안장과 고삐 세트가 하나 있습니다. 워낙 아끼는 물건이라 형편이 어려워도 차마 팔지는 못하고 간직해 왔지요. 방금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보살님께서 용

을 구제하여 스님의 말이 되게 하셨다는데, 이 늙은이가 어찌 조금도 도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내일 그 안장과 고삐를 가져다드릴 테니,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 주십시오."

삼장은 그 말을 듣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올렸다. 이윽고 동자가 저녁 공양을 가져왔다. 공양을 마친 뒤 등불을 밝히고 잠자리를 마련하자, 모두 각자의 처소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손오공이 일어나 말했다. "스승님, 어젯밤 그 사당지가 우리에게 안장과 고삐를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가서 달라고 해보시죠.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릴지도 몰라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로 그 노인이 안장과 짐반이, 고삐 등 말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완벽하게 갖추어 들고 나타났다. 노인은 복도 아래에 물건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스승님, 여기 안장과 고삐를 가져왔습니다." 삼장법사는 이를 보고 기뻐하며 받아 들었다. 삼장은 손오공에게 물건을 가져오게 하여, 말에 얹어보고 잘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다. 손오공이 앞으로 나아가 물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과연 모두 아주 좋은 물건들이었다. 이를 시로 찬양하면 다음과 같다.

시로 이르되, 정교한 안장은 은빛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보배로운 등자는 금실이 날아다니듯 밝게 빛나네. 짐반이는 부드러운 천을 여러 겹 겹쳐 만들었고, 세 가닥 보랏빛 비단 고삐는 튼튼하구나. 고삐 머리는 꽃무늬를 새겨 눈부시게 빛나며, 구름무늬 금칠을 한 채 짐승 모양이 춤을 추네. 재갈은 잘 두드려 만든 철폐로 되어 단단하고, 물에 적시면 털처럼 부드러워지는 장식까지 갖추었네.

손오공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안장과 굴레를 말 위에 얹었는데, 마치 처음부터 맞춤 제작한 것처럼 딱 들어맞았다. 삼장이 노인에게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하자, 노인은 당황하며 손을 잡아 일으켰다.

"아이고, 송구합니다, 송구해요. 어찌 이런 귀한 대접을 다 받으니까?"

노인은 더 붙잡지 않고 삼장이 말에 오르도록 권했다. 삼장이 문을 나서며 안장에 올라타자, 손오공은 짐을 짊어졌다. 그러자 노인이 다시 소매 속에서 채찍 하나를 꺼내 왔다. 향나무 손잡이에 질긴 가죽을 촘촘히 엮어 만들고, 끝부분은 호랑이 힘줄로 튼튼하게 꼬아 만든 채찍이었다. 노인은 길가에서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올리며 말했다.

"스님, 제게 끌고 다닐 채찍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말 위에 앉아 있던 삼장이 채찍을 건네받으며 말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큼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참을 묻고 있었으나, 그 노인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다시 리사사 쪽을 돌아보니 그곳은 그저 빈터일 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허공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스러운 스님, 대접이 소홀하여 미안하오. 나는 낙가산의 산신과 토지신인데, 관음보살님의 명을 받들어 안장과 고삐를 전해주러 왔소. 부디 힘을 내어 서천으로 나아가 되,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마시오." 깜짝 놀란 삼장은 말에서 굴러 떨어

지듯 내려와 허공을 향해 절을 올리며 말했다. “제자가 육안을 가진 미천한 몸이라 존귀하신 신령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보살님께 전해주십시오. 깊은 은혜로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입니다.” 삼장은 하늘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끊임없이 절을 올렸다. 그 모습에 길가에서는 손대성(孫大聖, 곧 손오공)이 우스워 자지러지게 웃어 나자빠지고, 그 미후왕(美猴王) 또한 기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손대성도 미후왕도 모두 손오공을 가리키는 익살스러운 표현이다.— 결국 손오공이 다가와 삼장을 붙들며 말했다. “스님,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저분들은 이미 멀리 가버렸습니다. 스님이 기도하는 소리도 못 듣고, 절하는 모습도 못 보셨을 텐데 계속 절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삼장이 대답했다. “제자야, 내가 이렇게 정성껏 절을 하는데 너는 같이 절 한 번 안 하고 그저 옆에 서서 비웃기만 하다니, 그게 대체 무슨 도리냐?” 손오공이 대꾸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렇게 꼬리를 감추고 정체를 숨기는 놈들은 원래 한바탕 두들겨 패줘야 마땅합니다. 그저 보살님의 체면을 봐서 때리지 않고 참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감히 저 손오공이 절을 올리게 만들다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대장부로 자라서 남에게 절하는 법 따위는 모릅니다. 옥황상제나 태상노군을 뵈더라도 그저 가볍게 읊(揖)이나 하는 정도지요.” 삼장이 꾸짖었다. “버릇없는 녀석,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일어나거라. 길 가는 시간만 늦출 뿐이다.” 그제야 삼장은 몸을 추스르고 짐을 챙겨 서전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다.

그 후 두 달 동안은 평탄한 길을 이어갔으나, 길 위에서 마주치는 것들이라곤 온통 라라족(羅羅)과 회회족(回回) 같은 변방 사람들, 그리

고 늑대·이리·호랑이·표범 같은 맹수들뿐이었다.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초봄이 되었다. 산과 숲은 비단처럼 푸르른 빛을 띠고, 풀과 나무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다. 매화꽃은 다 지고 버들강아지가 막 눈을 뜨기 시작했다. 스승과 제자가 봄 경치를 즐기며 걷다 보니 어느덧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었다. 삼장이 말 고삐를 당겨 멀리 바라보니, 산골짜기 사이에 누각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이고 전각들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삼장이 말했다. “오공아, 저기 보이는 곳이 대체 어디냐?” 손오공이 고개를 들어 보고는 말했다. “저건 궁전(殿宇)이 아니라 분명 절일 겁니다. 좀 서둘러 가서 저곳에서 하룻밤 묵읍시다.” 삼장은 기쁜 마음으로 그 말에 따르며, 용마의 고삐를 풀어 앞을 향해 힘차게 달려갔다.

결국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6회 — 관음원의 승려가 보물을 도모 하고, 흑풍산의 괴물이 가사를 훔치다

觀音院僧謀寶貝 黑風山怪竊袈裟

한편,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이 말을 달려 도착해 산문 앞을 살펴보니, 과연 그곳은 한 채의 사찰이었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층층이 쌓인 전각과 길게 이어진 복도가 눈에 들어왔다. 세 개의 산문 밖으로는 만 갈래의 채운이 위엄 있게 드리워져 있고, 오복당 앞에는 천 갈래의 붉은 안개가 화려하게 감돌고 있었다. 길 양옆으로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늘어서 있고, 한쪽 숲에는 측백나무와 잣나무가 가득했다. 양옆의 소나무와 대나무는 세월의 흔적 없이 청아하고 그윽했으며, 숲을 이룬 측백나무와 잣나무는 저마다 빛깔을 뽐내며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또한 높이 솟은 종루와 고아한 탑의 모습도 보였다. 수행에 정진하는 승려들은 마음이 평온하고,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또한 한가롭기 그지없었다. 티끌 하나 없는 고요함은 참된 적막을 이루고, 맑고 비어 있는 도의 경지는 청렴하고 깨끗했다.

시로 이르되,

기원정의 푸른 등지처럼 은은하게 숨겨진 곳, 이곳의 빼어난 경치는 사바세계보다 낫구나. 과연 정토의 모습이 인간 세상에 드물다더니, 천하의 명산에는 승려들이 많이 모여드는구나.

삼장이 말에서 내리고 손오공도 짐을 내려놓았다. 막 문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문 안에서 승려 무리가 우르르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자면 이러하다.

머리에는 좌계모를 쓰고, 몸에는 때 묻지 않은 무구의를 입었으며, 양 귀에는 구리 고리 귀걸이를 달고, 허리에는 비단 띠를 둘렀다. 짚신을 신고 걸음걸이는 안정적이며, 손에는 묵어를 들고, 입으로는 끊임 없이 염불을 외우니, "반야바라밀다"를 늘 읊조린다.

삼장이 그를 보고 문가에 서서 인사를 건넸다. 스님이 서둘러 예를 갖추며 웃으며 말했다.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방장실로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하시지요."

삼장이 대답했다.

"제자는 대당에서 온 임무를 띤 승려로, 뇌음사에 가서 부처님을 뵈고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곳에 도착하니 날이 저물어 가기에,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 하여 찾아왔습니다."

스님이 말했다.

"어서 안으로 들어와 앉으십시오. 어서 들어오세요."

삼장이 행자를 불러 말을 끌고 들어오게 했다. 스님은 갑자기 행자의 생김새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저기 말을 끌고 오는 저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삼장이 속삭였다.

"쉴, 조용히 하세요. 성격이 급해서 당신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는 걸 들으면 화를 낼 겁니다. 제 제자예요."

스님은 몸을 움찔 떨며 손가락을 깨물고는 말했다.

"저렇게 못생기고 괴상하게 생긴 놈을 어찌 제자로 삼았던 말입니까?"

삼장이 말했다.

"보시다시피 못생기긴 했어도 아주 쓸모가 많답니다."

노승은 어쩔 수 없이 삼장과 손오공을 데리고 산문 안으로 들어갔다. 산문 안으로 들어서니 정전 위에 '관음선원'이라는 커다란 네 글자가 적혀 있었다. 삼장은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제자가 보살님의 성스러운 은혜를 거둬 느끼면서도 아직 직접 뵈고 감사 인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선원을 만나니 마치 보살님을 뵈는 것 같아 마음이 참으로 기쁩니다. 정성껏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노승은 그 말을 듣자마자 도인에게 명하여 전각의 문을 열게 하고, 삼장이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안내했다. 손오공은 말을 매어두고 짐을 내려놓은 뒤 삼장을 따라 전각으로 올라갔다. 삼장은 몸을 낮추어 정성스레 엎드려 금색 불상을 향해 절을 올렸다. 노승은 북을 치기 시작했고, 손오공은 종을 치러 갔다. 삼장이 제단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기도를 마쳤음에도 노승은 북 치는 것을 멈췄으나, 손오공은 아랑곳하지 않고 종을 계속 쳤다. 종소리는 빨라졌다가 느려지기를 반복하며 한참 동안 울려 퍼졌다.

그러자 도인이 말했다. "예배는 이미 끝났는데, 왜 계속 종을 치는 것이요?" 손오공은 그제야 종채를 내려놓으며 웃으며 말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겠소! 나는 지금 '하루 스님이면 하루 종을 친다'는 말처럼 하는 중이라고요."

이 소란에 절 안의 크고 작은 승려들과 방장, 어른들이 모두 놀라 밖으로 몰려나왔다. 그들은 종과 북소리가 어지럽게 울리는 것을 듣고 한꺼번에 소리쳤다. "어느 무례한 놈이 여기서 종과 북을 이토록 어지럽게 치는 것이냐?" 손오공은 꺽충 뛰어 나오며 호통을 쳤다. "네놈들이 감히 누구에게 그러느냐! 이 몸은 손오공이다!" 승려들은 손오공을 보자마자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엎죽 엎드려 외쳤다. "뇌공(천둥의 신) 어른이시다!" 손오공이 말했다. "뇌공은 내 증손주뻘이지. 어서 일어나라, 일어나! 겁먹을 것 없다. 우리는 동토 대당에서 온 귀한 손님들이시다."

그제야 승려들은 예의를 갖추어 절을 올렸다. 그리고 나서 삼장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했다. 선원의 주인이 나서서 말했다. "귀한 손님들께서 오셨으니, 뒷방 방장실로 모셔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들

은 말의 고삐를 풀어 끌고 짐을 들어 올린 뒤, 정전을 지나 뒷방으로 안내하여 자리를 정해 앉혔다.

원주는 차를 대접한 뒤 공양도 준비하게 했다. 아직 날이 일렀던지라 당승이 감사 인사를 채 다 마치기도 전에, 뒤쪽에서 어린 동자 둘이 노승 한 명을 부축하며 나오는 것이 보였다. 노승의 차림새를 살펴보니 이러하였다.

머리에는 비로방모(毘盧方帽)를 쓰고 있었는데, 묘안석(貓睛石)으로 장식된 정수리가 눈부시게 빛났다. 몸에는 비단과 융으로 지은 겹옷을 입었는데, 비취색 털로 꾸민 금빛 옷깃이 번쩍거렸다. 신은 승려 신발에는 여덟 가지 보석이 박혀 있었고, 짚고 있는 지팡이에는 구름과 별 무늬가 박혀 있었다. 얼굴 가득 주름이 잡혀 마치 여산노모(驪山老母) 같았고, 흐릿한 두 눈은 마치 동해의 용왕 같았다. 이가 다 빠져 입을 다물어도 바람이 새어 나왔고, 허리는 굽고 등은 구부정한 것이 힘줄이 뒤틀린 탓이었다.

승려들이 '사조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했다. 삼장이 몸을 굽혀 예를 갖추며 맞이했다. '원주 스님, 제자가 문안 올립니다.'

노승도 답례를 한 뒤 자리에 앉아 인사를 나누었다. 노승이 말했다. '조금 전 제자들이 대당에서 오신 귀한 손님이 계시다고 하여, 제가 직접 나와 뵈게 되었습니다.'

삼장이 말했다. '보배로운 곳에 불쑥 찾아와 결례를 범했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노승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궁금한 듯 물었다. '귀한 손님, 대당에서 이곳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삼장이 대답했다. '장안 경계를 벗어나 오천여 리를 왔습니다. 양계산(兩界山)을 지나며 어린 제자 하나를 거두었고, 줄곧 오는 길에 서번(西番)의 하기국(哈叻國)을 지나 두 달이 걸려 다시 오륙천 리를 오니, 비로소 이 귀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노승이 말했다. '만 리 길이나 되는 먼 여정이군요. 저는 평생을 헛되이 보내며 산문 밖을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으니, 참으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못난 늙은이입니다.'

삼장이 다시 물었다. '원주 스님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노승이 대답했다. '헛되이 나이만 먹어 어느덧 이백칠십 세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툭 내뱉었다. '그럼 내 만대손이나 다름없겠구먼!'

삼장이 손오공을 흘겨보며 꾸짖었다. '말조심해라! 어른 앞에서 분별 없이 굴어 실례를 범하지 말고.'

그러자 노승이 다시 물었다. '귀한 손님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건 말 못 하지요.'

노승은 그 말을 그저 미친 소리라 여기고는 개의치 않으며 더 묻지도 않은 채 차를 내오라고 일렀다. 그러자 한 어린 동자가 양지옥으로 만든 쟁반과 금을 입힌 세 개의 차 종을 가져왔다. 또 다른 동자가 백동 주전자를 들고 와 향긋한 차를 세 잔 따랐다. 그 빛깔은 석류꽃보다 고우며 향기는 계화꽃보다 달콤했다. 삼장이 이를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참으로 좋은 물건이군요. 정말 훌륭한 음식과 기물입니다.” 그러자 노승이 말했다. “과찬이십니다. 스님께서는 저 멀리 대당에서 오신 귀한 분이니 온갖 진귀한 보물을 다 보셨을 텐데, 이런 기물들이 어찌 과찬을 들을 만하겠습니까? 스님께서 가져오신 보물 중에 저희 제자들이 구경이라도 할 만한 것이 있다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삼장이 대답했다. “안타깝게도 저희 동토에는 별다른 보물이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가는 길이 너무 멀어 다 가지고 올 수도 없지요.” 곁에 있던 손오공이 거들었다. “스승님, 며칠 전에 보파리 안에서 그 가사를 보았는데, 그것도 보물이 아니었나요? 저 노승에게 한번 보여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승려들은 하나같이 비웃음을 흘렸다. 손오공이 물었다. “왜 비웃는 거냐?” 원주가 말했다. “스님께서 방금 가사가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게 참으로 가소로워 그렇습니다. 가사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스무서른 벌은 넘게 가지고 있고, 우리 사조님께서는 이곳에서 이백오십 년 넘게 승려로 계셨으니 가사만 해도 칠팔백 벌은 족히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가져와서 보여드려라!” 하고 소리쳤다. 노승도 잠시 뽐내고 싶은 마음에 도인에게 창고를 열라 일렀고, 수도승들은 궤짝을 들어 올려 열두 개의 상자를 마당에 내려놓고 자물쇠를 풀었다. 양옆으로 옷걸이를 세우고 사방에 줄을 매단 뒤, 가사들을 한 벌씩 털어 걸어놓고 삼장에게 구경시켜 주었다. 과연 방안은 온통 화려한 수놓은 옷감과 비단으로 가득 찼다.

손오공이 하나하나 살펴보니, 모두 꽃무늬를 수놓고 비단에 금실을 박아 넣은 귀한 물건들이었다. 손오공은 웃으며 말했다. “좋구나, 좋아! 정말 좋네. 어서 집어넣어 두게. 자, 이제 우리 것도 꺼내서 한번 구경해 보자고.”

삼장이 손오공을 붙들며 나직이 타일렀다. “제자야, 남과 재물을 뽐내며 다투어서는 안 된다. 우리처럼 홀로 길을 떠난 처지에는 이런 일이 화가 될까 두렵구나.”

손오공이 물었다. “가사를 좀 보여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삼장이 대답했다. “네가 아직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진귀하고 아름다운 물건은 탐욕스럽고 간사한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만약 그 물건이 눈에 들어오면 반드시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마음이 움직이면 반드시 나쁜 계락을 꾸미게 되는 법이다. 너는 재앙을 피할 줄 아는 아이니, 그들이 달라고 하면 그냥 내어주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 재앙이 모두 여기서 시작되니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시라고요. 다 이 손오공이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러고는 삼장의 말을 듣지도 않고 급히 걸어가 보따리를 풀었다. 그러자 보따리 안에서 이미 서광이 번쩍이며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기름종이로 두 겹이나 겹겹이 싸여 있었다. 종이를 벗겨내고 가사를 꺼내 펼치자, 붉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오색찬란한 기운이 마당까지 넘실거렸다. 승려들은 이를 보고 모두 마음속으로 감탄하며 입을 모

아 칭찬하니, 참으로 대단한 가사였다. 그 가사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시로 이르되, “천 가지 묘한 진주가 매달려 있고, 만 가지 귀한 불보가 박혀 있구나. 위아래로는 용의 수염이 비단 위에 펼쳐졌고, 사방에는 화려한 금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네. 이 옷을 입으면 요괴들이 물러가 사라지고, 이 옷을 걸치면 귀신들이 황천길로 떠나가리라. 하늘의 신선이 직접 만든 보물이라, 참된 승려가 아니면 감히 입지 못하리라.”

노승은 그 보물을 보자 과연 탐심이 생겼다. 그는 앞으로 걸어 나와 삼장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자에게는 참으로 인연이 없나 봅니다.” 삼장이 그를 부축해 일으키며 물었다. “노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노승이 대답했다. “스님께서 가진 이 보물이 방금 펼쳐졌는데, 날이 이미 저물어 눈이 침침한 탓에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니, 이 얼마나 인연이 없는 일입니까?” 삼장이 말했다. “등불을 가져오너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마.” 그러자 노승이 말했다. “스님의 보물이 이미 밝게 빛나고 있는데, 거기다 등불까지 켜면 눈이 부서 오히려 자세히 보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손오공이 끼어들었다. “그럼 어떻게 보고 싶다는 겁니까?” 노승이 말했다. “스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제자가 이것을 뒷방으로 가져가 밤새도록 자세히 살펴본 뒤, 내일 아침 스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스님의 뜻은 어떠신지요?” 이 말을 들은 삼장은 깜짝 놀라 손오공을 원망하며 말했다. “다 너 때문이다, 다 너 때문이야!”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저 노인이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꿈꿨다 해서 가져가게 해 줄 테니 걱정 마세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기

면 이 손오공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삼장은 결국 손오공의 말을 막지 못하고 노승에게 가사를 건네며 말했다. “그럼 가져가서 보십시오. 다만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주어야 하며, 조금이라도 손상되거나 더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노승은 기뻐하며 시동을 시켜 가사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러고는 스님들에게 앞쪽 선당을 깨끗이 쓸어내고, 댓잎 침상 두 개를 가져와 잠자리를 마련하여 두 분을 편히 쉬시게 하라고 일렀다. 또한 한쪽에서는 내일 아침 떠나시는 길에 드릴 공양을 준비하게 했다. 일이 마무리되자 모두 흠어들었고, 스승과 제자는 선당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다.

한편, 노승은 속임수를 써서 가사를 손에 넣은 뒤 뒷방 등불 아래 놓아두고는, 가사를 붙들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다. 그 기세가 어찌나 서럽고 당황스러운지, 원래 그 절의 승려들조차 감히 먼저 잠들지 못할 정도였다. 어린 동자도 영문도 모른 채 스님들에게 달려가 이렇게 일러바쳤다. '스님께서 이경(밤 9~11시 무렵)이 되도록 울음을 그치지 않으셔요.' 노승이 아끼는 두 제자가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어찌하여 이토록 통곡하십니까?' 노승이 대답했다. '내가 인연이 없어, 당승의 보물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구나.' 어린 스님이 말했다. '스승님은 연세도 높으시고 머리도 희끗희끗하신데, 저 가사가 눈앞에 있으면 그냥 풀어보기만 하면 될 것을 왜 이리 서럽게 우십니까?' 노승이 말했다. '잠시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올해 나이 이백칠십 세인데, 평생 수백 벌의 가사를 헛되이 모았어도 어찌 저런 가사 한 벌을 가져보았겠느냐? 어찌 저런 당승이 되어 보았겠느냐?' 어린 스님이 다시 말했다. '스승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당승은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스승님처럼 연세 높으신 분은 이미 누릴 만큼 누리셨는데,

굳이 저 사람처럼 떠돌이 수행자가 되고 싶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승이 말했다. '내가 비록 한곳에 머물며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고는 있으나, 저 가사를 입어볼 수가 없구나. 만약 저 가사를 단 하루라도 입어볼 수 있다면,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 승려로 온 보람이 아니겠느냐.' 승려들이 말했다. '참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저 가사를 입고 싶으시면 무엇이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내일 그를 하루 더 머물게 하면 하루 입으시면 되고, 열흘 더 머물게 하면 열흘 입으시면 될 일인데, 어찌 이리 통곡하며 소란을 피우십니까?' 노승이 말했다. '설령 그를 일 년 동안 머물게 한다 한들 일 년밖에 못 입을 것이요, 결국 오래도록 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가 떠나야 할 때가 되면 결국 보내줘야 할 텐데, 어찌 오래도록 곁에 둘 수 있겠느냐?'

이야기는 이러하다. 한편, 광지라는 이름의 어린 스님이 나서서 말했다.

"스승님, 멀리 내다보고 일을 처리해야 뉘탈이 없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승은 기뻐하며 물었다.

"얘야, 무슨 좋은 생각이 있느냐?"

광지가 대답했다.

"저 당승과 제자는 길을 떠나온 사람들이라 무척 고단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깊이 잠들었을 테지요. 그러니 힘센 사람 몇 명을 모아 창과

칼을 들고 선당을 습격해 그들을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시신은 뒷마당에 몰래 묻어버리면 우리 식구들만 아는 일이 됩니다. 그 김에 저들이 타고 온 백마와 짐 꾸러미까지 다 빼앗고, 가사만 남겨두어 가문의 보물로 삼는다면, 어찌 자손 대대로 누릴 묘책이 아니겠습니까?"

노승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몹시 기뻐하며 눈물까지 흘리고는 말했다.

"좋다, 좋아, 참으로 좋은 생각이로구나!"

그러고는 즉시 무기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곳에 광모라는 이름의 어린 승려가 있었는데, 바로 광지의 사제였다. 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 계책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저들을 죽이려 한다면 먼저 동태를 살펴야 합니다. 저 얼굴 하얀 승려는 해치기 쉬워 보이지만, 저 털 많은 승려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만약 죽이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화를 입으면 어찌합니까? 제게 칼이나 창도 통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스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승이 물었다.

"애야, 어떤 방법이냐?"

광모가 대답했다.

"제 생각에는, 우선 동산의 크고 작은 방주들을 모두 불러 모은 뒤 각자 마른 장작을 한 묶음씩 가져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선당 세 칸을 통째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저들이 도망갈 문도 없이 말과 함께 불길 속에서 타 죽게 만드는 것이지요. 산 앞뒤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본다 해도, 그저 저들이 부주의해서 불이 나는 바람에 선당까지 다 타버렸다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 두 승려도 모두 불타 죽을 것이고, 우리의 죄도 감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 가사는 온전히 우리 가문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승려들은 모두 기뻐하며 입을 모아 외쳤다.

"좋다, 좋아! 이 계책이 훨씬 더 기가 막히는구나!"

그리고는 각 방주에게 장작을 나르라 일렀다.

아아, 슬프도다! 이 계책 때문에 수명이 긴 노승은 목숨을 잃고, 관음선원은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말았으니.

본래 그 절에는 방주가 일흔여덟 명이나 있었고, 승려의 수는 많게는 이백여 명에 달했다. 그날 밤, 승려들은 일제히 장작을 나르기 시작하여 선당의 앞뒤와 사방을 뱅뱅하게 에워싸니, 불을 지르기에 아주 완벽한 준비가 되었다.

한편, 삼장과 제자가 머물 곳을 정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손오공은 영리한 원숭이라 잠자리에 누웠어도 정신을 집중해 기를 다스리며, 눈을 반쯤 뜬 채 깨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사람들이 끊임 없이 움직이는 소리와 마른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며 바람에 흔들리

는 소리가 들려왔다. 손오공은 의아해하며 생각했다. '이 깊은 밤에 어찌 발소리가 들린단 말인가? 혹시 우리를 해치려는 도둑놈들이 아닐까?' 그는 곧장 몸을 일으켜 문을 열고 나가 확인하려 했으나, 스승님이 깨실까 봐 걱정이 되었다.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몸을 흔들며 꿀벌 한 마리로 변신했다. 참으로 다음과 같았다.

꿀은 달콤하나 꼬리는 독을 품었고, 허리는 가늘고 몸은 가볍구나. 꽃과 버들 사이를 화살처럼 날아다니고, 향기를 찾아 날아다니는 모습은 떨어지는 별 같네. 작은 몸집으로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뽕뽕거리는 얇은 날개로 바람을 타고 노니네. 저 서까래 아래에서 쏙 빠져나와 살피니 모든 것이 분명하구나.

스님들이 이미 땀나무와 풀을 나르며 선방 주변을 에워싸고 불을 지르고 있었다. 손오공은 속으로 비웃으며 생각했다.

'과연 스승님 말씀이 맞았구나. 저들이 우리 목숨을 해치고 내 가사를 빼앗으려고 이런 독한 마음을 품었던 말이지? 당장이라도 여의봉을 휘둘러 때려눕히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도 없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로다. 괜히 한바탕 휘둘렀다가 저들을 다 죽이기라도 하면, 스승님께서 또 내가 흉악한 짓을 했다고 나무라실 테니까. 에잇, 관두자, 관둬. 차라리 저들의 계략을 역이용해서 슬쩍 가사만 챙겨 달아나는 게 낫겠어!'

손오공이 한 번 훌쩍 뛰어올라 남천문에 도착했다. 그러자 그곳을 지키던 방, 유, 구, 필 등의 신장들과 마, 조, 온, 관 등의 장수들이 모두

몸을 움츠리며 외쳤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천궁을 어지럽히던 그 놈이 또 나타났다!”

손오공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모두 예의를 차릴 것 없고 놀라지도 마시오. 나는 광목천왕을 찾아온 것이니 말ियो.”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침 천왕이 마중을 나와 손오공을 맞이하며 말했다. “오랜만이구려, 정말 오랜만ियो. 전해 듣기로는 관음보살이 옥황제를 찾아가 사치공조와 욕정육갑, 계제 등 신선들을 빌려 당승이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을 보호하게 했다더군. 자네도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어찌 한가하게 여기까지 왔는가?”

손오공이 대답했다. “인사는 나중에 합시다. 당승이 길을 가다 악한 무리를 만나 불을 당하는 바람에 상황이 아주 급박해졌소. 그래서 당승에게 피화조(불을 막아주는 덮개)를 빌리러 왔으니, 어서 내어주시오. 얼른 쓰고 바로 돌아가야 하오.”

천왕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자네가 착각했군. 악한 무리가 불을 질렀다면 물을 빌려 불을 꺼야지, 어찌 피화조를 빌린단 말인가?”

손오공이 말했다. “당신이 속사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요! 물을 빌려 불을 끄려다가는 오히려 불길이 더 번질 수도 있소. 하지만 이 덮개를 빌려 당승만 다치지 않게 보호한다면, 나머지는 불이 나든 말든 상관없지 않겠소? 어서, 어서 내놓으시오! 지금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니, 내 일을 그르치게 하지 말고 빨리 주시오.”

천왕이 웃으며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은 여전하구려. 자기 앞가림만 생각하고 남의 일은 안중에도 없으니 말이오.”

손오공이 재촉했다. “빨리, 빨리! 농담할 시간 없으니 큰일을 그르치지 않게 어서 주시오!”

천왕은 어쩔 수 없이 피화조를 손오공에게 건네주었다.

손오공은 물건을 챙겨 구름을 타고 날아가 선당의 지붕 위로 내려앉더니, 삼장법사와 백마, 그리고 짐들을 피화조로 덮어 보호했다. 그러고는 뒤편에 있는 노승의 방 지붕 위로 올라가 앉아 가사를 지켰다. 승려들이 불을 지르는 것을 지켜보던 손오공은 손가락을 굴리며 주문을 외더니, 손방(巽方), 곧 동남쪽 땅을 향해 숨을 한 모금 들이마셨다가 힘껏 내뿜었다.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며 불길의 더욱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불길이었다!

검은 연기는 자욱하게 피어올라 밤하늘의 별빛조차 보이지 않게 만들었고, 붉은 불꽃은 치솟아 올라 천 리 밖까지 대지를 붉게 비추었다. 처음에는 황금빛 뱀이 꿈틀거리는 듯하더니, 나중에는 붉은 피를 흘리는 말처럼 사납게 날뛰었다. 남쪽의 세 가지 기운이 영웅처럼 날뛰고, 화재의 신인 회록대신이 법력을 휘두르는 듯했다. 바싹 마른 장작은 불의 성질을 따라 격렬하게 타올랐으니, 예전에 수인이 나무를 마찰해 불을 피웠다 한들 이보다 뜨겁겠는가. 문 앞의 뜨거운 기름 위로 채색 불꽃이 흩날리는 모습은 마치 옛 조상이 화로를 연 듯했다. 무심코 일어난 불이라 하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악행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재앙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불을 도와 악행을 부추기고 있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수천 장 높이로 치솟았고, 바람은 불길의 기세를 빌려 재를 구름 너머 하늘 끝까지 날려 보냈다. 쿵쿵거리는 소리는 마치 연말의 폭죽 소리 같았고, 짹아아 하는 소리는 마치 군대의 대포 소리처럼 요란했다. 불길이 너무 거세어 불상조차 피할 길이 없었고, 동쪽 마당의 가람(伽藍)들도 숨을 곳이 없었다. 마치 적벽강에서 밤새 전쟁을 벌이는 듯했고, 아방궁에 불이 난 것보다 더 대단한 화재였다.

작은 불씨 하나가 만 이랑의 논밭을 태울 수 있는 법이다. 순식간에 바람은 광포해지고 불길은 기세를 더해, 관음선원 전체가 온통 붉게 물들었다. 승려들은 상자와 궤짝을 옮기고 탁자와 술을 들고 뛰어나가며 사방에서 비명을 질러댔다. 손오공은 뒤편의 방장실을 지켰고, 피화조로 앞쪽 선당을 덮어 보호했으나, 그 외의 앞뒤 공간에서는 불길이 무섭게 치솟았다. 정말이지 하늘을 뒤덮은 붉은 불꽃이 찬란하게 빛나고, 벽을 뚫고 나오는 금빛 광채가 사방을 환하게 비추었다.

뜻밖에도 불길이 치솟는 바람에 산속의 짐승과 요괴들이 모두 소란스러워졌다. 관음선원에서 정남쪽으로 이십 리쯤 떨어진 곳에 흑풍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속 흑풍동에는 요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마침 잠에서 깨어나 몸을 뒤척이던 요괴는 창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저 날이 밝았나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일어나서 보니 북쪽에서 내려오는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다.

요괴가 깜짝 놀라 외쳤다. "아이고! 이걸 분명 관음선원에 불이 난 것이로구나. 스님들이 어찌 이리 조심성이 없을까?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

요괴는 구름을 타고 단숨에 불길에 치솟는 곳으로 달려갔다. 과연 하늘을 찌를 듯 불길이 치솟고 있었는데, 앞쪽 전각들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복도 쪽은 연기와 불길이 막 번지기 시작한 참이었다. 요괴는 성큼성큼 안으로 뛰어 들어가며 물을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뒷방 쪽은 불길이 닿지 않았고, 지붕 위에서는 어떤 사람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괴는 상황을 눈치채고 급히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았다. 방 한가운데에 신비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는데, 탁자 위에는 푸른 천으로 싸인 보따리가 놓여 있었다. 요괴가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것은 바로 불교의 보물인 비단 가사였다. 재물에 눈이 먼 요괴는 불을 끌 생각도, 물을 가져오라고 외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사를 낚아채 혼란을 틈타 도둑질을 한 뒤, 구름을 타고 곧장 동쪽 산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 불길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꺼졌다. 보아하니 승려들은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다들 재더미 속을 뒤지며 낚싯나 낚시를 하고, 솥덩이를 헤쳐가며 금과 은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떤 이는 무너진 담벼락 아래 바구니를 엮어 임시 거처를 만들고, 어떤 이는 붉은 벽 아래 솔을 걸어 밥을 지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고 소란을 피우는 등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한편, 손오공은 피화조(불길을 막아주는 덮개)를 챙겨 들고는 잽싸게 날아올라 남천문으로 향했다. 그는 광목천왕에게 피화조를 건네며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연신 인사를 건넸다.

천왕은 물건을 받아 들며 말했다. "대성께서 이토록 정성을 다하시니 고맙구려. 안 그래도 보물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디서 찾아야 하나 걱정하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가져다주니 참으로 기쁘오."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 손오공이 남의 물건을 대놓고 속여 빼앗을 사람입니까? 원래 '빌린 물건은 잘 갚아야 다음에 다시 빌리기도 쉬운 법'이지요."

천왕이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잠시 궁에 들러 앉아 쉬다 가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제가 예전과는 처지가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낡은 의자에 앉아 호기롭게 큰소리치며 떠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당승을 모셔야 해서 한가하게 쉴 수가 없네요. 다음에 꼭 대접하겠습니다!"

손오공은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고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 눈앞에는 다시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곧장 선원 앞까지 달려가 몸을 획 흔들어 꿀벌로 변신한 뒤, 웅웅거리며 안으로 날아 들어갔다.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살펴보니, 스승인 당승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날이 밝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제야 잠에서 깬 삼장이 몸을 뒤척이며 대답했다. '그래, 일어났다.'

삼장이 옷을 챙겨 입고 문을 열고 나오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눈앞에는 무너진 벽과 붉은 담장뿐, 원래 있던 누각과 전각들은 간데없었다. 삼장이 깜짝 놀라 외쳤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전각들은 다 어디 가고 왜 온통 무너진 담장뿐이란 말이나?'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아직 꿈을 꾸고 계시는군요. 어젯밤에 불이 났습니다.'

삼장이 물었다. '내가 그걸 어찌 모르겠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제가 선당을 지키고 있었는데, 스승님께서 워낙 깊이 잠드신 것 같아 깨우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삼장이 나무라듯 말했다. '네가 선당을 지키는 능력이 있다면, 어찌 다른 방에 난 불은 구하지 않았느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스승님께서 들으신 대로, 그 노승이 우리의 가사를 탐내어 우리를 불태워 죽이려 꾀를 낸 것이 맞습니다. 제가 눈치를 채지 못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모두 재와 뼈만 남았을 겁니다.'

삼장은 그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물었다. '정말로 그들이 불을 지른 것이냐?'

손오공이 말했다. '그들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삼장이 다시 물었다. '혹시 우리가 그들을 소홀히 대접해서, 네가 꾸민 짓은 아니냐?'

손오공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제가 그렇게 게으르고 못된 놈이라 이런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그쪽에서 불을 지른 게 맞습니다. 그놈들의 마음보가 워낙 독한 것을 보고, 제가 일부러 불을 끄는 걸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길이 잘 타도록 바람을 살짝 도와주었을 뿐이지요.'

삼장이 통곡하며 말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불이 났으면 물을 도와야지, 어찌 바람을 도와준단 말이나?'

손오공이 대꾸했다. '옛말에 '사람이 호랑이를 해칠 마음이 없으면, 호랑이도 사람을 해칠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불을 지르지 않았는데 제가 어찌 바람을 불게 했겠습니까?'

삼장이 다급히 물었다. '그럼 가사는 어디 있느냐? 설마 불에 타버린 것은 아니겠지?'

손오공이 안심시키듯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타지는 않았습니다. 가사를 둔 그 방장실에는 불길이 닿지 않았으니까요.'

삼장이 원망 섞인 말투로 말했다. '나는 네 사정은 모르겠다만, 만약 가사가 조금이라도 상했다면 내가 당장 주문을 외워 너를 혼쭐을 내줄 테다!'

손오공이 당황하며 말했다. '스승님, 제발 주문은 외우지 마십시오! 가사는 어떻게든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제가 얼른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삼장이 말을 끌고 나서고 손오공이 짐을 짊어진 채, 두 사람은 선당을 나와 곧장 뒤편 방장실로 향했다.

한편, 승려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삼장과 손오공이 말을 끌고 짐을 멘 채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에 승려들은 혼비백산하여 "원한 맺힌 귀신이 목숨을 앗으러 왔다!"라며 비명을 질렀다.

손오공이 호통을 쳤다. "무슨 원한 맺힌 귀신이 목숨을 앗는다는 거야? 어서 내 가사나 돌려줘!"

승려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아이고, 어르신! 원한에는 원한이 있고 빚에는 채권자가 있는 법이지요. 목숨을 앗는 것은 저희와 상관없습니다. 모두 광모와 노승이 계략을 꾸며 당신들을 해치려 한 것이니, 저희에게 목숨을 묻지 마십시오."

그러자 손오공이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이 죽일 놈의 짐승 같은 것들! 내가 지금 네놈들 목숨을 따지러 왔느냐? 당장 가사나 내놓고 가란 말이다!"

그중 담력이 센 승려 둘이 조심스레 물었다. "어르신, 당신들은 선당 안에서 이미 불에 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나타나 가사를 찾으시니, 대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귀신입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못난 놈들아, 대체 무슨 불이 있었다는 거냐? 가서 선당 앞을 직접 보고 나서 다시 말해라."

승려들이 기어서 앞으로 나가 살펴보니, 선당 밖의 문과 창문, 문짝은 불에 그을린 흔적조차 전혀 없었다. 그제야 승려들은 삼장이 신통한 승려이고 손오공이 수호신임을 깨닫고 겁에 질려 모두 앞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렸다.

"저희가 눈이 멀어 참된 도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가사는 뒤편 방장실에 계신 스승님께 있습니다."

삼장은 무너진 벽과 담장을 지나며 끊임없이 탄식했다. 방장실에는 정말로 불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승려들이 안으로 뛰어 들어가 외쳤다. "스승님! 당승은 신통한 분이라 불에 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재산을 망가뜨려 놓았으니, 어서 가사를 꺼내어 돌려드립니다!"

알고 보니 노승은 가사를 찾지 못한 데다 절의 건물까지 불타버려 몹시 번뇌하고 초조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니 어찌 감히 대답할 수 있었겠는가.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던 노승은, 차라리 이대로 죽자 하는 심정으로 허리를 굽혀 담벼락을 향해 머리를 세계들이받았다. 가여운 노승은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르고 혼이 나갈 정도로 부딪히는 바람에, 목숨이 끊어지며 목구멍에 피를 머금은 채 쓰러지고 말았다. 시로 이르되,

어리석은 노승의 성품을 한탄하노니 사람 세상에서 헛되이 수명을 누렸구나. 가사를 얻어 후세에 전하고자 했으나 부처님의 보물이 범상치 않음을 어찌 알았으랴. 잠시 편하자고 꾀한 일이 결국 화를 불러 쓸

쓸하게 패배의 길로 들어섰도다. 광지와 광모의 계책이 아무리 쓸모 있다 한들 남을 해치고 제 배를 채우려 한들 결국 한낱 허무일 뿐이라.

승려들이 겁에 질려 울부짖었다. "스승님이 머리를 들이받아 돌아가셨습니다! 가사는 여전히 보이지 않으니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손오공이 외쳤다. "너희가 흠쳐서 숨겨둔 게 분명하구나! 모두 나와라! 명단을 작성해 오면 내가 하나하나 대조하며 조사하겠다."

그는 위아래 방의 주인들에게 명하여, 절에 있는 스님들과 수행자, 시동, 도인들을 모두 적게 하였다. 크고 작은 사람을 합쳐 모두 이백서른 명이었다. 손오공은 스승님을 높은 자리에 모셔 앉히고는,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 이름을 부르며 검사하기 시작했다. 옷깃을 풀어헤쳐 속까지 살살이 뒤졌으나 가사는 어디에도 없었다. 또한 각 방의 주인들이 밖으로 실어 나른 상자와 물건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뒤졌지만, 가사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삼장법사는 마음이 괴롭고 번뇌가 일어, 손오공이 일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이 원망스러워 자리에 앉아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손오공은 바닥에 털썩 쓰러지더니 머리를 감싸 쥐고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 소리쳤다. "제발 그만 외우세요, 그만! 가사는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요!"

승려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앞다투어 무릎을 꿇고 삼장법사를 만류한 뒤에야, 삼장은 겨우 주문을 멈추었다. 손오공은 벌떡 일어나 귀에서 여의봉을 꺼내 들고 스님들을 때려주려 했다. 삼장이 이를 꾸짖었다. "이 원숭이 녀석아! 머리가 아픈 것도 모자라 무례하게 굴

셈이나? 손대지 마라!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자세히 심문해 보겠다."

승려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삼장법사에게 애원했다. "스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정말로 가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모두 돌아가신 노승의 잘못입니다. 그분이 어젯밤 스님의 가사를 보고는 밤이 깊도록 녀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이 가사를 가문의 보물로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스님을 죽이고 불을 지를 계락을 세운 것입니다. 불이 일어났을 때는 거센 바람까지 불어닥쳐, 다들 불을 끄고 물건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기에 가사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손오공은 크게 화가 나 방장실로 뛰어 들어가, 죽은 노승의 시체를 끌어내어 살살이 뒤졌으나 몸 어디에도 그 보물은 없었다. 방장실 바닥을 석 자나 파헤쳐 보아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손오공이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물었다.

"이곳에 요괴가 변신해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원주가 대답했다.

"어르신, 물으셔도 소용없습니다. 정동남쪽에 흑풍산이 하나 있는데, 그곳 흑풍동에 흑풍대왕이라는 자가 살고 있습니다. 저 죽은 노승이 그와 자주 도를 논하곤 했는데, 그자가 바로 요괴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그 산이 여기서 얼마나 멀니까?"

"거우 20리 정도 됩니다. 저 멀리 산봉우리가 보이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안심하십시오. 더 물을 것도 없습니다. 분명 저 흑풍대왕이라는 괴물이 훔쳐 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삼장이 말했다.

"그곳이 여기서 20리나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밤중에 일어난 불길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빛이 만 리 밖까지 번지고 사흘 밤낮을 환하게 비출 기세였는데, 20리는커녕 200리 밖에서도 다 보였을 겁니다. 분명 그놈이 불길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기회를 틈타 몰래 이곳까지 와서, 우리 가사가 보물인 것을 보고 소란을 틈타 남아챌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가서 그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삼장이 걱정하며 말했다.

"네가 가버리면 나는 무엇에 의지하겠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그건 걱정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령님들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보이는 곳에서는 스승님을 모실 스님들을 제가 시켜두겠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스님들을 불러 모아 명령했다.

"너희 중 몇 명은 저 죽은 노승을 물어주고, 몇 명은 우리 스승님을 모시며 백마를 잘 돌보아라."

스님들이 모두 알겠다고 대답했다. 손오공이 다시 덧붙였다.

"입으로만 대답하지 말고, 내가 떠나고 나서 나태하게 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스승님을 모실 때는 항상 밝은 얼굴로 정성을 다하고, 백마를 돌볼 때는 물과 풀을 골고루 잘 챙겨라. 만약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다가는 이 여의봉 맛을 보게 될 줄 알아라!"

그리고는 여의봉을 꺼내 불에 타던 벽돌 담벼락을 단번에 내리쳤다. 벽이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부서졌고, 그 충격으로 옆에 있던 담벼락 일곱여덟 층이 연달아 무너져 내렸다. 이를 본 스님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대인, 부디 마음 편히 다녀오십시오. 저희가 온 힘을 다해 정성껏 스승님을 모실 것이며, 결코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손오공은 서둘러 근두운을 타고 곧장 흑풍산으로 날아가 가사를 찾아 헤맸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금선자(金禪)가 바른 도를 구하러 도움을 떠나 석장 하나에 의지한 채 서천의 푸른 산천을 헤매네. 호랑이와 표범, 이리 같은 짐승이 가는 곳마다 도사리고 상인과 장인, 선비와 나그네는 보기 드문 곳이라네. 길 위에서 다른 나라 어리석은 승려의 질투를 만났으나 오로지 제천대성의 위엄에 온전히 의지하네. 불이 나고 바람이 일어 선원이 폐허가 되니 검은 꿈이 밤중에 비단 가사를 흠쳐 갔구나.

결국 이번 길에 가사를 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길흉화복이 닥칠지는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7회 — 손행자가 흑풍산에서 크게 소 동을 피우고, 관세음보살이 웅비괴를 굴 복시키다

孫行者大鬧黑風山 觀世音收伏熊羆怪

이야기는 이러하다. 손오공이 한 번 훌쩍 뛰어오르자, 관음원의 대 소 승려들과 두타승, 행자 동자, 도인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며 외쳤다.

“아이고, 어르신! 알고 보니 구름을 타고 안개를 가르며 내려오신 신성한 분이셨군요. 어쩐지 불길도 손을 못 대더라니! 사람 볼 줄 모르는 그 늙은이가 못된 마음을 먹고 일을 꾸미다가, 도리어 제 발등을 찌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당삼장이 말했다.

“여러분, 어서 일어나십시오. 원망할 것 없습니다. 가서 가사만 찾아 내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다만 가사를 찾지 못할까 걱정입니

다. 제 제자가 성격이 좀 거칠어서, 여러분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까 두렵군요.”

승려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하늘에 빌고 소원을 빌며, 제발 가사만 찾게 해 달라고, 그래야 자신들의 목숨을 보전할 수 있다고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손오공이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허리를 한 번 쪽 펴더니, 어느새 흑풍산에 도착했다. 구름 위에 멈춰 서서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경치가 빼어난 명산이었다. 마침 봄기운이 완연한 시절이라 풍경은 이리했다.

수많은 골짜기에는 물줄기가 다투듯 흐르고, 깎아지른 절벽은 저마다 빼어난 자태를 뽐낸다. 새들은 지저귀는데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꽃은 저도 나무의 향기는 여전하다. 비가 그친 뒤에는 푸른 절벽이 축축이 젖어 들고, 바람이 불어오면 소나무가 초록빛 병풍처럼 펼쳐진다. 산풀이 돌아나고 들꽃이 피어나며, 험한 절벽과 뾰족한 봉우리가 솟아 있다. 녁쿨은 뻗어 나가고 아름다운 나무들은 무성한데, 험준한 고개와 평탄한 언덕이 이어져 있다. 그윽한 선비를 만나기는 어렵고 나무꾼조차 보이지 않는데, 시냇가에는 학 두 마리가 물을 마시고 바위 위에서는 원숭이가 날뛰고 있다. 소라 껍데기처럼 겹겹이 쌓인 산등성이는 먹을 바른 듯 검푸르고, 우뚝 솟은 산세는 초록빛 안개를 머금고 위엄을 드러낸다.

손오공이 산의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향초 언덕 앞에서 사람들이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발소리를 죽여 살금살금 다가가 바위 절벽 아래에 몸을 숨기고 몰래 엿보았다.

알고 보니 세 마리 요괴가 땅바닥에 둘러앉아 있었다. 맨 윗자리에 앉은 이는 검은 얼굴의 사내였고, 그 왼쪽 아래에는 도인이, 오른쪽 아래에는 흰 옷을 입은 선비 차림의 요괴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데 모여, 술을 세우고 화로를 안치하며 모래와 수은을 다루는 법 등 온갖 잡스러운 술법을 늘어놓으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검은 얼굴의 사내가 웃으며 말했다. “모레가 바로 내 어머니의 생신날이니, 두 분께서 꼭 와 주셔야 하오.”

그러자 흰 옷을 입은 선비가 대답했다. “해마다 대왕님의 만수무강을 빌어왔는데, 올해라고 어찌 빠질 수 있겠소?”

검은 얼굴의 사내가 말을 이었다. “내가 어젯밤에 '금란불의'라는 보물을 하나 얻었는데, 참으로 구경하기 좋은 물건이라오. 내일은 이 보물을 가지고 생신 축하를 하며 성대한 잔치를 열 생각이라오. 각 산의 신선과 도관들을 초대해서 이 불의(佛衣)를 축하하는 '불의회'를 열면 어떨겠소?”

도인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좋소, 아주 좋소! 내가 내일 먼저 찾아가 생신 축하 인사를 올리고, 모레 다시 와서 잔치를 즐기겠소.”

손오공은 금란불의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것이 분명 자신의 보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손오공은 참지 못

하고 바위 절벽에서 펄쩍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양손으로 여의금고봉을 높이 치켜들며 크게 외쳤다.

"이 도둑놈들아! 내 가사를 훔쳐가서 무슨 불의 회를 연다는 거냐? 당장 내놓지 못할까!"

손오공은 "꼼짝 마라!"라고 호통을 치며 여의금고봉을 휘둘러 검은 사내의 머리를 내리쳤다. 검은 사내는 바람처럼 변해 급히 도망쳤고, 도인 또한 구름을 타고 달아났다. 하지만 그 곁에 있던 백의수사만은 손오공의 봉에 맞아 죽고 말았다. 손오공이 죽은 이를 끌어다 살펴보니, 바로 하얀 꽃뱀 요괴였다. 손오공은 아예 놈을 집어 들어 대여섯 토막으로 마구 찢어버리고는, 그 검은 사내를 잡기 위해 곧장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뽕죽한 봉우리를 돌고 험준한 고개를 넘어가니, 가파른 절벽 앞에 커다란 동굴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안개와 노을은 아스라이 피어올라 문 앞을 가득 채우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푸르른 빛을 띠며 집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다리는 마른 나뭇가지로 놓여 있고, 봉우리 끝에는 덩굴 식물이 휘감겨 있었다. 새들은 붉은 꽃잎을 입에 물고 구름 낀 골짜기로 날아오고, 사슴은 향기로운 풀숲을 지나 돌무더기 위로 뛰어다녔다. 문 앞에는 꽃들이 시시때때로 피어나고, 바람은 꽃향기를 실어 날랐다. 제방에는 버드나무가 푸르는데 피꼬리는 노랑게 노래하고, 강가에는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나비들이 춤을 추었다. 비록 넓은 들판이라 자랑할 만한 것은 없었으나, 그 경치만큼은 봉래산 아래의 절경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다.

손오공이 문 앞에 이르니, 두 개의 돌문이 아주 짝 닫혀 있었다. 문 위에는 가로로 긴 돌판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흑풍산 흑풍동'이라는 커다란 글자 여섯 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손오공은 곧 바로 여의봉을 휘두르며 크게 외쳤다.

"문 열어라!"

그러자 안에서 문을 지키던 작은 요괴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물었다.

"네놈은 누구냐? 감히 우리 신선들의 동굴에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손오공이 꾸짖었다.

"이 죽을 놈의 짐승 같으니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신선의 동굴이라 부르느냐? '신선'이라는 말이 네 입에서 나올 소리냐? 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네 주인인 검은 놈에게 전해라. 어서 이 몸의 가사를 내놓으라고 말이다. 그래야 네놈 무리의 목숨이라도 살려줄 것이니라."

작은 요괴는 서둘러 안으로 달려가 보고했다.

"대왕님, 불의 회를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밖에 털이 송송 나고 입이 툭 튀어나온 스님이 찾아와 가사를 내놓으라고 난리입니다!"

흑풍왕은 조금 전 손오공에게 쫓겨 방초파 언덕 앞까지 몰렸다가 겨우 문을 닫고 들어온 참이었다.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그 말을 듣자, 흑풍왕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놈이 어디서 온 놈인지 모르겠으나, 참으로 무례하구나. 감히 내 문앞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다니.'

흑풍왕은 옷을 갖춰 입고 검은 술이 달린 창을 손에 쥐고 문밖으로 나섰다. 손오공은 문밖의 엄폐물 뒤에 숨어 여의봉을 쥔 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다. 그 요괴의 모습은 실로 험악하기 그지없었다.

철로 만든 투구는 윤기가 흐르고, 검은 금빛 갑옷은 눈부시게 빛났다. 검은 비단 도포는 소매가 넓어 바람을 가르고, 검고 푸른 실로 장식된 술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손에는 검은 술이 달린 창을 들고, 발에는 검은 가죽 장화를 신었구나. 번개처럼 번뜩이는 금빛 눈동자를 가진 자, 바로 흑풍산의 주인 흑풍왕이었다.

손오공은 속으로 비웃으며 생각했다. '이놈은 정말 가마를 굶는 사람 같구나. 석탄을 쌓아둔 모습이 틀림없어. 분명 여기서 석탄을 구워 먹고사는 모양인데, 어쩐지 온몸이 저렇게 새카맣더라니!'

그때 요괴가 매서운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네놈은 대체 어떤 중놈이기에 감히 내 영역에서 무례하게 구느냐!”

손오공은 여의봉을 움켜쥐고 요괴의 코앞까지 들이닥쳐 호통을 쳤다.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어서 네놈 외할아버지의 가사를 돌려줘라!”

요괴가 말했다. “네가 그 절의 중놈이냐? 네 가사를 어디서 잃어버렸기에 감히 여기까지 찾아와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내 가사는 관음원의 법당 안에 잘 모셔져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불이 나자, 네놈이 혼란을 틈타 약탈해 간 것이 아니냐! 불의(佛衣)를 갖추어 축제를 열겠다며 가져갔으면서 어찌 감히 발뺌을 하는 게냐? 당장 돌려준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만약 ‘아니오’라는 말이라도 한마디 내뱉는 날에는, 내가 이 흑풍산을 통째로 밀어버리고 흑풍동을 짓밟아 버리겠다. 네놈을 포함해 이 동굴에 있는 요괴 놈들을 모조리 가루로 만들어 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요괴가 그 말을 듣더니 허허 웃으며 냉소했다. “이 고약한 놈을 봤나! 어젯밤에 불을 지른 게 바로 너였구나. 네가 방장실 지붕 위에서 소동을 피우며 바람을 일으키기에 내가 가사를 하나 가져왔더니, 이제 어찌겠다는 거냐? 너는 어디서 온 놈이냐?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이며, 대체 어떤 수단을 가졌기에 그리도 큰소리를 뽕뽕 치는 게냐?”

손오공이 말했다. “너는 네 외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모양이구나. 네 외할아버지는 대당의 황제 폐하를 모시는 어제, 삼장법사의 제자로서 성은 손이고 이름은 오공이라 하는 행자다. 내 수단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말해주는 순간 네 혼비백산하여 눈앞에서 죽게 될 것이다.”

요괴가 말했다. “난 모르겠다. 네가 대체 무슨 수단이 있는지 한번 말해 보아라.”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놈아, 똑바로 서서 잘 들어라. 내가 말해주마.

어릴 적부터 신통력이 뛰어나, 바람을 타고 변신하며 영웅 노릇을 했지. 성품을 기르고 진리를 닦으며 세월을 보냈고, 윤회를 벗어나 생

명을 보존했노라. 한 조각 정성으로 도를 찾아, 영대산에서 영약 묘목을 캐었지. 그 산에는 수명이 십만 팔천 년이나 되는 노선인이 살고 계셨다. 내가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니, 장생불사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더구나. 스승님 말씀이, 몸 안에 단약이 있는데 밖에서 찾는 것은 헛수고라 하셨지. 대품천선결을 전수받았으나, 근본이 없으면 건디기 어렵다 하셨다. 빛을 안으로 돌려 마음을 가라앉히고 앉으니, 몸 안에서 해와 달이 교차하더군. 만사에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니, 육근이 깨끗해지고 몸은 강건해졌지. 늙은 몸을 되돌려 아이처럼 되는 것도 쉽고, 성인의 반열에 드는 길도 멀지 않더라. 삼 년 만에 허물 없는 신선의 몸을 얻어, 속세의 고통을 받지 않게 되었지. 열 개의 섬과 세 개의 섬을 노닐며, 세상 끝까지 한 바퀴를 돌았노라. 삼백 년 넘게 살았건만, 구만리 하늘로 날아오르지는 못했지. 바다에 내려가 용을 굴복시킨 뒤에야, 비로소 여의봉 하나를 얻었도다. 화과산 앞에서 대장이 되어, 수렴동에서 요괴들을 불러 모았지. 옥황제께서 조서를 내려, 나를 제천대성이라 봉해주셨다. 몇 번이고 영소전을 뒤엎고, 왕모의 복숭아를 여러 번 훔쳤었지. 십만 천병이 나를 치러 오니, 창과 칼이 뿔뿔하게 늘어섰더라. 천왕들을 물리치고 하늘로 돌아오니, 나타는 상처를 입고 군사를 이끌고 달아났지. 현성진군(이랑신)은 변신술에 능했으나, 나 손오공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등하게 맞붙어 겨루었노라. 도조와 관세음보살, 그리고 옥황제까지, 남천문에서 요괴 잡는 것을 지켜보았지. 그러다 태상노군이 한바탕 거들어주는 바람에, 이랑신에게 붙잡혀 하늘나라로 끌려갔다. 나를 항요주에 묶어놓고, 신병들에게 내 목을 치라 명하더구나. 칼로 치고 망치로 두드려도 부서지지 않았고, 번개를 치고 불로 태워도 멀쩡했지. 내게는 참된 수단이 있으니, 그 어떤 것도 조금도 두렵지 않다. 태상노군의 화로 속에 던져져, 육정신화의 불

길로 달궈졌으나, 화로가 열리는 순간 펄쩍 뛰어 나왔으니, 철봉을 휘두르며 하늘을 달렸도다. 어디든 막힘없이 누비며, 삼십삼천 하늘을 한바탕 휘저었지. 부처님 여래께서 법력을 쓰시어, 오행산으로 내 허리를 눌러버리셨구나. 그렇게 오백 년을 꼼짝없이 눌러 있다가, 다행히 삼장법사가 대당에서 온 것을 만났도다. 이제 나는 서방 정토로 귀의하여, 뇌음사에서 거룩한 빛을 보려 하노니, 너는 천지 사해에 가서 물어보아라. 내가 역대 요괴 중 으뜸이라는 것을!”

그 요괴가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네놈이 알고 보니 천궁을 어지럽혔던 그 말 치는 관리, 필마온이냐?”

손오공은 누군가 자신을 필마온이라 부르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손오공이 욕설을 퍼부었다. “이 도둑놈 같은 요괴 녀석! 가사를 훔쳐 가놓고 도리어 나를 공격해? 거기 서라, 이 몽둥이 맛을 봐라!”

손오공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자, 검은 요괴는 몸을 옆으로 비켜 피하며 긴 창을 휘둘러 맞서 싸웠다. 두 사람의 싸움은 동굴 입구에서부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격렬하게 이어졌다.

시로 이르되,

여의봉과 검은 갈기 창이 맞부딪치니 두 장수는 동굴 입구에서 기세를 다투네. 얼굴을 내리치고 팔을 찢러대며 머리를 향해 쉴 새 없이 몰아치네. 한쪽은 몽둥이를 휘두르고 한쪽은 창을 휘두르니 백호가 산을 타듯 요동치고 황룡이 길을 누비듯 분주하구나. 오색 안개를 뿜고 빛을 내뿜으니 두 요괴의 위세는 헤아릴 길이 없네. 한 명은 제천대성이라

불리던 수행자요 한 명은 흑곰에서 변한 흑풍왕이라. 산속에서 벌이는 이 치열한 싸움은 오직 흠쳐 간 가사 때문이로다.

요괴와 손오공이 수십 합을 겨루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흑풍왕이 창을 들어 여의봉을 막아내며 말했다.

"손오공, 우리 일단 싸움을 멈추자고. 내가 식사라도 좀 하고 올 테니, 그다음에 다시 한판 제대로 붙어보자!"

손오공이 대꾸했다.

"이 못된 짐승 같은 놈이 어디서 수작질이야? 대장부라는 놈이 반나절 싸웠다고 벌써 밥을 먹으러 가겠다고? 나처럼 산기슭에 500년 넘게 갇혀 지내면서 물 한 모금 못 마셔본 놈도 배고픈 줄 모르고 버텼는데, 네놈이 감히! 핑계 대며 도망갈 생각 마라. 내놓은 가사를 돌려줘야 밥을 먹게 해주겠다!"

요괴는 창을 휘둘러 위협하며 몸을 돌려 동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러고는 돌문을 쿵 닫아걸고는 부하 요괴들을 불러 모았다. 흑풍왕은 잔치를 준비하며 각 산의 마왕들에게 초대장을 써서 축제에 초대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편, 손오공은 흑풍동의 문을 공격했으나 열리지 않자 어쩔 수 없이 관음원으로 돌아왔다. 그사이 절의 스님들은 죽은 노승을 이미 장사지내고, 모두 방장실에서 당삼장을 모시고 있었다. 아침 공양을 마친 뒤 점심 공양을 준비하며 차를 올리고 물을 갈아치우고 있을 때, 손오

공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왔다. 스님들이 예의를 갖추 절을 올리며 그를 방장실로 안내하니, 손오공은 당삼장을 마주했다.

당삼장이 물었다. "오공아, 왔느냐? 가사는 어떻게 되었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미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진작에 이 스님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알고 보니 흑풍산 요괴가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몰래 그놈을 찾아가 보니, 웬 흰 옷을 입은 선비 하나와 늙은 도사 하나가 향긋한 풀이 난 언덕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놈이 가만히 있어도 제 발로 죄를 자백하는 격이었습니다. 그놈이 갑자기 하는 말이, 모레가 자기 어머니의 생신이라 온갖 요괴를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겠다는 겁니다. 밤중에 금빛 찬란한 불의(佛衣)를 얻었는데, 이것으로 생신 축하를 하며 큰 잔치를 열려고 '불의를 경축하는 모임'이라 이름까지 붙였더군요. 그래서 제가 당장 그놈 앞에 나타나 몽둥이로 한 대 후려했더니, 검은 놈은 바람처럼 달아나 버리고 도사도 사라졌습니다. 그 와중에 흰 옷을 입은 선비만 때려죽였는데, 알고 보니 하얀 꽃뱀이 요괴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급히 그놈의 동굴 입구까지 쫓아가서 나와서 싸우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놈도 자기가 가져간 것이 맞다고 인정하더군요. 하지만 반나절 동안 격렬하게 싸웠어도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요괴 놈은 다시 동굴로 들어가 밥을 먹겠다며 돌문을 닫아걸고는, 싸우기가 두려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스승님께 소식을 전하러 먼저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가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으니, 그놈이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스님들은 그 말을 듣고는 모두 합장하거나 머리를 조아리며 소리 높여 외쳤다. "나무아미타불! 오늘 그 행방을 찾아야만 저희가 목숨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너무 좋아하긴 이르다. 아직 물건을 손에 넣지도 못했고, 스승님도 아직 길을 떠나지 않으셨으니까. 가사를 되찾아 스승님을 무사히 길을 떠나게 해드려야 비로소 너희에게도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허투루 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 몸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게다! 그나저나 우리 스승님께 드릴 차와 음식은 잘 준비해 두었느냐? 말에게 먹일 풀은 넉넉히 채겨두었느냐?"

스님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예, 예, 있습니다! 어르신을 대접하는 데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승이 말했다. "네가 떠난 이 반나절 동안, 나는 이미 차를 세 번 마시고 식사도 두 끼나 했다. 그들이 나를 대접하는 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더구나. 그러니 너는 부디 온 힘을 다해 가사를 찾아 돌아오너라."

손오공이 말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미 행방을 알아냈으니, 반드시 그놈을 붙잡아 원래 물건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세요!"

한편, 상방원 주인은 정성껏 채식 요리를 준비하여 손오공에게 대접했다. 손오공은 음식을 조금 먹고는 다시 상스러운 구름을 타고 길을 떠나 무언가를 찾아 나섰다. 한창 길을 가던 중, 작은 요괴 하나가 옆구리에 화리목 상자를 끼고 큰길을 따라 오는 것이 보였다. 손오공은 저

상자 안에 분명 무슨 서신이 들어있으리라 짐작하고, 여의봉을 들어 머리 위를 향해 단번에 내리쳤다. 불쌍하게도 요괴는 순식간에 고기떡처럼 짓이겨져 버렸다. 손오공은 요괴를 길가에 끌어다 놓고 상자를 열어 살펴보았는데, 과연 그 안에는 초대장이 한 통 들어 있었다. 초대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시생 웅비가 머리 숙여 절하며, 크게 법을 펴시는 금지 노상인의 단방(약 만드는 방)에 올리나이다. 여러 차례 베풀어 주신 두터운 은혜에 깊이 감격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화재의 재난을 보고도 미처 구하러 가지 못하였으나, 노인장의 신묘하신 기지로 다른 화는 입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우연히 불교의 가사 한 벌을 얻게 되어 아담한 모임을 열고자, 정성껏 술과 음식을 마련하였으니 부디 왕림하시어 함께 감상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그날이 되면 부디 선가께서 왕림하시어 한자리에 어울려 주시기를 바라웁니다. 모임 이틀 전에 미리 갖추어 올립니다.”

손오공이 이 광경을 보고 허허 크게 웃으며 말했다.

"저 늙은 가족데기는 죽어도 전혀 억울할 게 없겠군. 알고 보니 요괴들과 한패였던 거야. 어쩐지 이백칠십 년이나 살았다 했더니, 저 요괴가 쓸만한 법술이라도 좀 가르쳐준 모양이지. 나 손오공은 저놈의 생김새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니, 내가 저 스님으로 변장해서 흑풍동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가서 내 가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야지. 만약 온 좋게 찾아내기만 하면 힘들이지 않고 바로 되찾아 올 수 있을 테니까."

"좋아, 대성(大聖)!"

손오공은 주문을 외우며 바람을 타고 몸을 움직였다. 그러자 정말로 그 노승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했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숨기고 성큼성큼 걸어가 동굴 입구에서 크게 외쳤다.

"문 열어라!"

작은 요괴가 문을 열어주다가 손오공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급히 뒤를 돌아보며 보고했다.

"대왕님, 금지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흑풍왕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방금 부하를 시켜 초대장을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을 시간이다. 어찌 이리 빨리 올 수 있단 말이나? 분명 내 부하가 그를 마주친 게 아니라, 필시 손오공이 가사를 돌려달라고 그를 불러낸 것이로구나! 관리하는 놈은 어서 불의(佛衣)를 숨겨라. 절대로 들키지 않게 해라!"

손오공이 앞문으로 들어서니, 하늘이 뚫린 천정 사이로 푸른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복숭아와 오얏꽃이 다투어 피어 있었으며, 꽃들이 몽게 몽게 피어나고 난초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것이 그야말로 신선이 사는 동천복지 같았다. 또한 두 문 위에는 "깊은 산에 고요히 은거하니 속세의 근심이 없고, 그윽한 선동에 머무르니 하늘의 참된 이치를 즐기노라"라고 적힌 대련이 걸려 있었다. 손오공은 속으로 '이놈도 속세를 벗어나 천명을 아는 괴물이로구나'라고 생각했다.

안으로 더 들어가 삼층 문에 이르니, 화려하게 장식된 기둥과 조각된 들보, 밝은 창문과 채색된 문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검은 피부의 사내가 검녹색 비단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짙은 푸른색 꽃무늬 망토를 걸쳤으며, 검은 뿔 모양의 부드러운 모자를 쓰고 사슴 가죽으로 만든 검은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는 손오공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계단을 내려와 맞이하며 말했다.

"금지 노우, 요 며칠 인사가 늦었구려. 어서 앉으시오, 어서 앉아."

손오공도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건넌 뒤 자리에 앉았고, 차를 마시는 예법을 마쳤다. 차를 다 마시자 요괴가 몸을 굽히며 말했다.

"방금 작은 서신을 보내 모레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어찌하여 노우께서 오늘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소?"

손오공이 대답했다.

"마침 인사를 드리러 가던 길에 우연히 화려한 잔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불의(佛衣)를 위한 아담한 모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뵙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괴가 비웃으며 말했다.

"노우께서 틀리셨소. 그 가사는 본래 당승의 것인데, 그가 그대 곁에 머물고 있으니 그대가 보지 못했을 리 없지 않소? 그런데 어찌 나를 찾아와 보려 한단 말ियो?"

손오공이 말했다.

"빈승이 잠시 빌려온 것인데, 밤사이에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이 대왕께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게다가 불길이 황량한 산을 휩쓸어 물건들을 모두 잃어버렸지요. 당승의 제자들도 워낙 용맹하여 정신없이 사방을 뒤졌으나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왕의 큰 복이 가사를 가져다준 것이니, 특별히 뵙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산을 순찰하던 작은 요괴 하나가 달려와 보고했다.

“대왕님, 큰일 났습니다! 초청장을 전하러 갔던 줄개가 길가에서 손오공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놈이 경전을 손에 쥐고 금지장로로 변신해서 불의를 속여 빼앗으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흑풍왕은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그 장로가 어찌 오늘 이렇게 갑자기, 게다가 이렇게 빨리 나타났나 했더니, 역시 손오공이 었군!’

흑풍왕은 곧장 몸을 날려 창을 움켜쥐고 손오공을 향해 찌러 들어갔다. 손오공은 귀에서 재빨리 여의봉을 뽑아내 본래 모습을 드러내더니, 창끝을 막아내며 중청에서 튀어나와 천장과 앞문 사이를 오가며 격렬하게 싸웠다. 동굴 안의 요괴들은 모두 겁에 질려 혼비백산했고, 집안의 노인과 아이들까지 넋을 잃고 말았다. 산봉우리를 울리는 이 싸움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치열하고 살벌했다.

시로 이르되,

원숭이 왕은 대담하게 스님 행세를 하고 검은 요괴는 불의를 탐해 마음을 냈다. 말 한마디 주고받는 틈을 놓치지 않으니 상황에 따라 변하는 재간이 참으로 놀랍구나. 가사는 보고 싶어도 볼 길이 없고 보물의 오묘한 이치는 깊고도 깊은데, 작은 요괴의 보고에 큰 요괴는 노하여 신통력을 떨치니 흑풍동을 박차고 나와 창과 봉으로 시비(是非)를 가린다. 봉이 창을 막아내니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창이 철봉을 맞받으니 빛이 번쩍이는구나. 손오공의 변화술은 세상에 드물다 하나 요괴의 신통력 또한 세상에 흔치 않으니, 한쪽은 불의를 흠쳐 축제를 열려하고 다른 쪽은 가사를 되찾으려 애쓰는구나. 이 치열한 싸움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없으니 살아있는 부처가 내려온다 해도 이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겠구나.

두 사람은 동굴 입구에서부터 산등성이까지 쫓아 올라가며, 산 위에서 구름 밖까지 치고 올라갔다. 안개를 내뿜고 바람을 일으키며 모래와 돌을 휘날리며 싸우니, 붉은 해가 서산으로 저물 때까지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그러자 흑풍왕이 말했다. "손 씨 성을 가진 놈아, 일단 멈춰라!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더 싸우기 어렵구나. 어서 돌아가라, 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네놈의 생사를 결정해 주마."

손오공이 소리쳤다. "이놈, 도망가지 마라! 싸우려면 제대로 싸워야지, 날이 저물었다고 슬쩍 미루다니!"

손오공은 머리고 얼굴이고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몽둥이를 휘둘러 몰아붙였다. 하지만 흑풍왕은 한 줄기 맑은 바람으로 변해 다시 본래의 동굴로 돌아가더니, 돌문을 딱 닫아걸고는 나오지 않았다.

손오공은 마땅한 계책이 떠오르지 않자, 별수 없이 관음원으로 돌아왔다. 구름을 타고 내려오며 "스승님!" 하고 불렀다. 당삼장은 애타게 손오공을 기다리던 참이라, 그가 눈앞에 나타나자 무척 기뻐했다. 하지만 손오공의 손에 가사가 없는 것을 보고는 다시 겁이 났다. 당삼장이 물었다.

"어찌하여 아직도 가사를 가져오지 못했느냐?"

손오공은 소매 안에서 서신 한 장을 꺼내 당삼장에게 건네며 말했다.

"스승님, 저 괴물과 저 늙은 여우 같은 놈은 원래 친구 사이입니다. 저놈이 작은 요괴 하나를 보내 이 서신을 전하며 '불의 회'에 참석해 달라고 청했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작은 요괴를 때려죽인 뒤, 늙은 스님으로 변장해 놈의 동굴로 들어가 차 한 잔을 얻어 마시며 속였습니다. 그러고는 가사를 내놓으라고 요구해 보았지만, 놈이 절대로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창 대화하던 중에 산을 순찰하던 놈이 소식을 전하러 오는 바람에, 그놈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싸웠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놈이 날이 저무는 것을 보고는 동굴로 썩하니 도망쳐 들어가 돌문을 딱 닫아걸었습니다. 저도 어쩔 도리가 없어 잠시 돌아온 것입니다."

당삼장이 물었다.

"네 실력이 저놈보다 나은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저도 아주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딱 비등비등한 수준입니다."

삼장이 서신을 살펴본 뒤, 원주에게 다시 물었다. "네 스승님이 혹시 요괴는 아니시냐?"

그러자 원주가 황급히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다. "나으리, 저희 스승님은 분명 사람입니다. 다만 저 흑대왕이 도를 닦아 사람의 경지에 이르렀기에, 자주 절에 들러 저희 스승님과 경전을 논하곤 합니다. 스승님께 기운을 다스리고 정신을 보양하는 법을 전수해 주셔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손오공이 말을 받았다. "저 스님들에게선 요괴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네요. 하나같이 머리는 하늘에 닿을 듯 둥글고 발은 땅을 딛듯 듚직한 게, 저보다 조금 더 덩치가 크고 살집이 있을 뿐 요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 서신을 보세요. '웅비(검은 곰)가 올립니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분명 검은 곰이 요괴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삼장이 말했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곰과 유인원은 서로 닮은 꼴'이라 하여 모두 짐승이라 하였거늘, 어찌 짐승이 요괴가 되었던 말이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저 또한 짐승 출신이지만 제천대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놈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개 세상 만물 중 아홉

구멍(눈, 코, 입, 귀 두 개씩과 항문, 요도)이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수행하여 신선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삼장이 다시 물었다. "방금 네 실력이 저놈과 대등하다고 했는데, 대체 어떻게 이겨서 내 가사를 되찾아올 셈이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다 생각이 있으니까요."

의논을 마친 사이 스님들이 저녁 공양을 차려내어 스승과 제자들에게 대접했다. 당승은 등불을 켜게 한 뒤 다시 앞쪽 선당으로 가서 쉬었다. 스님들은 모두 벽에 기대어 움막을 지어 잠자리를 마련하고 각자 잠이 들었으며, 뒤편의 방장실은 상하 원주들이 머물도록 내어주었다. 이때 밤은 고요하였는데, 그 풍경은 이러했다.

은하수가 그림자를 비추고 옥빛 하늘에는 티끌 하나 없구나. 밤하늘의 별들은 찬란히 빛나고, 흐르는 물결은 흔적을 거두었네. 만물의 소리 모두 잠잠하고, 천 개의 산에는 새소리조차 끊겼도다. 시냇가의 어촌 등불은 꺼지고, 탑 위의 불빛은 희미해지는데, 어젯밤에는 절의 종과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오늘 밤에는 곡소리가 들려오는구나.

그날 밤 선방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삼장은 잃어버린 가사 생각이 간절하여 어찌 편히 잠들 수 있겠는가? 한참을 뒤척이다 문밖으로 하얀 햇살이 비치는 것을 보고는, 급히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오공아, 날이 밝았다! 어서 가서 가사를 찾아오너라.”

손오공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마침 여러 스님이 곁에 서서 차와 물을 올리고 있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너희는 내 스승님을 정성껏 모시고 있거라. 나는 이만 가보겠다.”

삼장이 침상에서 내려와 손오공을 붙잡으며 물었다.

“너는 대체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제 생각에는 관세음보살님이 일을 너무 무책임하게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선원을 두고 사람들의 공양을 받으면서, 어떻게 저런 요괴가 이웃에 살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제가 남해로 직접 가서 보살님께 따져 물어야겠습니다. 요괴에게 직접 가사를 돌려달라고 말하라고 말이지요.”

삼장이 걱정스레 물었다.

“네가 가면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손오공이 씩씩하게 말했다.

“운이 좋으면 밥 먹을 때쯤 돌아올 것이고, 조금 늦어져도 점심때면 일을 다 마치고 올 겁니다. 여기 스님들 모시는 것도 번거로우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미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순식간에 남해에 도착하여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니, 다음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끝없이 넓은 바다는 하늘과 맞닿아 있고, 상서로운 빛은 온 우주를 감싸며 길조의 기운은 산과 강을 비추고 있었다. 수천 겹의 눈부신 파도는 푸른 하늘을 향해 포효하고, 만 겹의 안개 낀 물결은 대낮에도 넘실거렸다. 사방으로 흩날리는 물보라는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사방을 휘감아 도는 파도는 벼락이 치는 듯 굉음을 냈다. 물의 기세를 논하기에 앞서, 그 한가운대를 보라.

오색찬란한 빛이 어우러진 보석 같은 산들이 겹겹이 쌓여 있고, 붉고 노란 빛과 보랏빛, 검은 빛, 초록빛, 그리고 푸른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관세음보살의 진정한 성지가 어디인지 알고 싶다면, 남해 낙가산을 살펴보라.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산봉우리는 하늘 높이 솟아 그 끝이 허공을 뚫을 듯했고, 그 사이에는 천 가지 기이한 꽃과 온갖 상서로운 풀들이 가득했다. 바람이 불면 보석 같은 나무들이 흔들리고, 햇살이 비치면 금빛 연꽃이 눈부시게 빛났다. 관세음보살의 전각은 유리 기와를 얹었고, 조음동의 문은 거북등무늬로 장식되어 있었다. 푸른 버드나무 그림자 사이로는 앵무새가 지저귀고, 자줏빛 대나무 숲에서는 공작이 울었다. 무늬가 아름다운 바위 위에는 호법신들이 위엄 있게 서 있었고, 마노가 깔린 여울 앞에는 목차(혜안행자, 관음보살의 제자)가 웅장하게 서 있었다.

손오공은 눈앞에 펼쳐진 신비로운 광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곧장 구름을 타고 대나무 숲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자 하늘의 신선들이 미리 마중 나와 말했다.

"보살께서 지난번에 대성께서 착해지셨다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셨는데,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승을 보살피는 중이시면서 어찌 이곳까지 오실 여유가 있으셨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당승을 모시던 중에 일이 좀 생겨서, 보살님을 뵙고 이 소식을 전해 달라 부탁드립니다."

신선들이 곧장 동굴 입구로 가서 보고하자, 관세음보살이 손오공을 안으로 불러들였다. 손오공은 예법을 갖추어 보배로운 연꽃 대좌 아래로 가서 절을 올렸다. 관세음보살이 물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제 스승님이 길을 가시다 보살님의 선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향불을 받으시며 흑곰 요괴가 그 근처에 머물도록 허락하셨는데, 그놈이 스승님의 가사를 훔쳐 갔습니다. 여러 번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주지 않기에, 오늘 특별히 보살님께 따지러 왔습니다."

그러자 관세음보살이 말했다.

"이 원숭이가 하는 말 좀 보게나, 참으로 버릇이 없구나! 흑곰 요괴가 네 가사를 훔쳤다면 왜 나에게 와서 따진단 말이냐? 다 이 죄 많은 원숭이가 대답하게 굴며 보물을 휘두른 탓이다. 내 눈에는 네가 흉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구나. 바람을 부르고 불을 일으켜 나의 유운 하원을 태워버리고는, 이제는 나에게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손오공은 관세음보살이 과거와 미래의 일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절을 올리며 말했다.

"보살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다만 그 괴물이 가사를 돌려주려 하지 않는 것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스승님께서 자꾸만 그 주문을 외우시는데, 저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서 보살님을 뵈러 왔습니다.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를 도와 그 요괴를 잡아 가사를 되찾고 서쪽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관세음보살이 말했다.

"그 괴물은 신통력이 아주 뛰어나서 너에게 뒤통지 않는다. 하지만 좋다, 당승의 체면을 봐서 너와 함께 한번 가보마."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절을 올렸다. 이어 보살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 상서로운 구름에 올라탔다. 두 사람은 곧장 흑풍산에 도착하여 구름 아래로 내려온 뒤, 길을 따라 동굴을 찾아 나섰다.

손오공이 막 나아가려는데, 산비탈 앞에서 도인 하나가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도인은 유리 쟁반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쟁반 위에는 선단 두 알이 놓여 있었다. 도인이 앞으로 걸어오다 손오공과 정면으로 부딪치자, 손오공은 즉시 여의봉을 뽑아 들어 도인의 머리를 향

해 내리쳤다. 한 방에 머리가 깨져 뇌수가 흘러나오고 가슴팍에서 피가 솟구쳤다.

관세음보살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이 원숭이야, 너는 어쩔 이리도 성질이 불같으냐? 저 도인이 네 가사를 훔친 것도 아니고, 너와 아는 사이도 아니며, 무슨 원한이 있다고 사람을 단숨에 때려죽인단 말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보살님, 저자를 잘못 보셨습니다. 저자는 흑곰 요괴의 친구입니다. 어제 저 도인이 백의수사와 함께 풀이 무성한 언덕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레가 흑곰 요괴의 생일이라 그들을 불러 '불의 회'를 열기로 했더군요. 오늘은 저 도인이 먼저 생일 축하를 하러 온 것이고, 내일은 불의를 축하하러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것이니, 틀림없이 오늘 저 요괴를 대신해 축하하러 온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말했다. "네 말이 정 그렇다면 알겠다."

그제야 손오공은 도인을 들어 올려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알고 보니 한 마리 잿빛 이리(蒼狼)였다. 그 옆에 놓인 쟁반 밑에는 '능허자가 만 들었다'라고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손오공이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운명입니다, 운명이야! 저도 편하고 보살님도 힘을 아끼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저 요괴는 스스로 제 발로 밟에 걸린 셈이고, 오늘 아주 호되게 당하게 생겼군요."

관세음보살이 물었다. “오공아, 그게 무슨 말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보살님, 저에게 ‘장계취계(將計就計, 상대의 계책을 역이용함)’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살님께서 제 제안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관세음보살이 말했다. “말해 보아라.”

손오공이 이어서 말했다. “보살님, 여기 쟁반을 보십시오. 안에 든 두 알의 선단(仙丹, 신선이 먹는 단약)이 바로 우리가 요괴에게 바칠 예물입니다. 그리고 쟁반 뒤에 새겨진 ‘능허자제(凌虛子製)’라는 네 글자가 바로 요괴를 꺾어낼 미끼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께서 제 뜻을 따라주신다면 제가 멋진 계책을 짜내어, 칼을 휘두르거나 힘들게 싸우지 않고도 요괴에게 재앙을 내리고 금란불의를 되찾아 오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말을 듣지 않으신다면, 보살님은 서쪽으로 가시고 저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금란불의는 그냥 보내주고 당삼장 스님도 허탕을 치는 수밖에요.”

관세음보살이 웃으며 말했다. “이 원숭이가 말슴씨가 아주 능청스럽구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저 머리를 좀 써보려는 것뿐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다시 물었다. “그 계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손오공이 설명했다. “쟁반에 ‘능허자제’라고 새겨져 있으니, 저 도인의 이름을 능허자라고 부르면 되겠지요. 보살님, 제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면 보살님께서 저 도인으로 변신해 주십시오. 저는 선단 한 알을 먹고, 나머지 한 알을 조금 더 크게 변신시켜 놓겠습니다. 그다음 보살님께서 이 쟁반과 선단 두 알을 들고 가서 요괴에게 수명을 늘려주는 선물이라며 건네주십시오. 그리고 더 큰 알을 그놈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요괴가 그 알을 한입에 삼키는 순간, 제가 뱃속에서 일을 저지르겠습니다. 만약 그놈이 금란불의를 내놓지 않는다면, 제가 그놈의 창자를 끄집어내 가사 한 벌을 짜내고 말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어쩔 도리가 없어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손오공이 웃으며 물었다. “어떻습니까, 괜찮지요?”

그때 관세음보살이 넓고 큰 자비심과 끝없는 법력으로 수억만 개의 화신을 일으켰다. 마음이 뜻을 만나고, 뜻이 다시 몸을 만나니, 눈 깜짝할 사이에 보살은 허공을 거니는 선녀의 모습으로 변했다.

시로 이르되, "선풍을 머금은 옷자락은 산들바람에 휘날리고, 허공을 걷듯 가볍게 떠도네. 푸른 얼굴은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고고하고, 빼어난 자태는 예나 지금이나 비길 데 없구나. 머물지 않고 떠나가는 걸음마다, 본래의 모습 그대로 신비로움이 가득하니,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법으로 돌아가나, 그저 육신이라는 껍데기가 가로막고 있을 뿐이네."

손오공이 보고는 감탄하며 말했다. "묘하구나, 정말 묘해! 보살님이 요괴인 것인가, 아니면 요괴가 보살인 것인가?"

관세음보살이 웃으며 말했다. "오공아, 보살과 요괴는 모두 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란다. 본래의 근원을 따지자면 둘 다 본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았다. 그러더니 몸을 돌려 스스로 한 알의 선단(仙丹)으로 변했다.

시로 이르되, "둥글고 매끄러워 정해진 모양이 없고, 밝고 환하여 끝을 알 수 없네. 수학의 이치가 조화롭게 맞물리고, 우주의 법칙이 빈틈 없이 흐르도다. 황금빛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부처님의 빛처럼 낮에도 눈부시게 빛나네. 겉모습만 보고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으니, 함부로 그 양을 논하지 말지어다."

손오공이 변신한 금단이 결국 조금 더 컸다. 관세음보살은 이를 알아채고 유리 쟁반을 챙겨 골장 요괴의 동굴 입구로 가서 살펴보니, 과연 다음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깎아지른 절벽과 깊은 골짜기는 험준하고, 고개 위에는 구름이 피어 오른다. 잣나무와 소나무는 푸르는데, 숲 사이로 바람이 뽕뽕 분다.

시로 이르되,

절벽은 깊고 골짜기는 험하여 요괴가 출몰하고 사람의 흔적은 드물지만, 잣나무와 소나무는 푸르러 신선이 은거하며 도를 닦기에 좋구나. 산에는 계곡이 있고 계곡에는 샘이 있어, 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거문고 소리 같으니 귀를 씻기에 충분하고, 절벽에는 사슴이 있고 숲에는

학이 있어, 그윽한 신선의 소리가 산봉우리에 울려 퍼지니 마음을 달래기에 좋도다.

이곳은 요괴와 신선이 나뉘어 내려온 곳이니, 끝없는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운 곳이라.

관세음보살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생각했다. '이 못된 짐승이 비록 이 동굴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나름대로 도를 닦은 구석이 있구나.' 보살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비심이 싹트고 있었다.

동굴 입구로 다가가니, 동굴을 지키던 작은 요괴들이 그를 알아보며 "능허 선사께서 오셨다!"라고 외치며 길을 안내했다. 요괴는 이미 문밖까지 마중 나와 "능허 선사님, 귀한 걸음을 해주시다니 저희 같은 보잘 것없는 곳이 참으로 영광입니다."라며 극진히 맞이했다.

관세음보살이 말했다. "이 미천한 도가 천 년의 수명을 누릴 수 있는 선단 한 알을 바치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절을 올리고 자리에 앉아 어제의 이야기를 나누려 할 때였다. 관세음보살은 대답 대신 서둘러 단약 쟁반을 내밀며 말했다. "대왕님, 소도의 성의를 받아 주십시오." 그러고는 유독 커 보이는 알 하나를 골라 요괴에게 밀어주며 말했다. "대왕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요괴 또한 알 하나를 골라 보살에게 건네며 말했다. "능허자 선사께서도 저와 같으시길 바랍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요괴가 약을 삼키려 했는데, 그 약이 목구멍을 타고 미끄러지듯 쑥 내려가 버렸다. 그러자 (뱃속에 들어간) 손오공이 본래 모습을 드러내고 사지를 쭉 뻗어 버티니, 요괴는 바닥을 뒹굴며 쓰러졌다. 관세음보살은 본모습을 드러내어 요괴에게서 금란불의를 받아냈다. 손오공은 이미 요괴의 콧구멍으로 빠져나온 상태였다. 관세음보살은 혹시라도 요괴가 무례하게 굴까 염려되어 요괴의 머리에 긴고아(머리테 조이는 도구)를 던져 씌워 버렸다.

요괴가 일어나 창을 들고 찌르려 했으나, 손오공과 관세음보살은 이미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주문을 외웠다. 요괴는 여전히 머리가 깨질 듯 아파 창을 내팽개치고 바닥을 굴러다녔다. 공중에서는 미후왕 손오공이 웃음을 터뜨리며 쓰러졌고, 땅 위에서는 흑곰 요괴가 고통 속에 뒹굴었다.

관세음보살이 말했다. "이 죄 많은 짐승아, 이제라도 귀의하겠느냐?"

그러자 요괴가 입을 열어 대답했다. "정말로 귀의하고 싶사오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 주십시오."

손오공은 시간을 지체할까 봐 당장이라도 때려눕히고 싶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이 급히 제지하며 말했다. "그의 목숨을 해치지 마라. 내가 그를 쓸 곳이 따로 있다."

손오공이 물었다. "이런 요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어서 어디에 쓰시려고요?"

관세음보살이 대답했다. "내 낙가산에 산을 지킬 사람이 없으니, 그를 데려가 산신으로 삼으려 한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이지 한 마리 생명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군요! 만약 저에게도 그런 주문이 있다면, 아주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외워버릴 텐데요. 그랬다면 여기 있는 흑곰 놈들을 몽땅 다 잡아서 제 밑에 부렸을 겁니다."

한편, 요괴는 정신을 차린 지 꽤 되었으나 통증이 너무 심해 견디기 힘들었다. 그는 땅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했다. "제발 목숨만 살려 주신다면, 반드시 바른 도를 닦아 성불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상서로운 빛을 내뿜으며 내려와 그에게 머리에 계울을 내려주고, 장창을 들려 좌우를 지키며 따르게 하였다. 그제야 흑곰 요괴는 품었던 삿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끝없던 고집과 반항심을 모두 거두었다.

관세음보살이 명령했다. "오공아,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당승을 잘 모시고, 앞으로는 다시는 게으름을 피우거나 소란을 일으키지 말도록 해라." 손오공이 말했다. "멀리서 오신 보살님의 은혜가 너무나 깊으니, 제자가 직접 배웅이라도 해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자 관세음보살이 말했다. "그럴 것 없다." 그제야 손오공은 금란불의를 받들어 들고 머리를 조아리며 작별을 고했다. 관세음보살은 흑곰 요괴를 데리고 곧장 바다를 향해 돌아갔다. 이를 시로 찬양하면 다음과 같다.

시로 이르되, 상서로운 빛은 금빛 불상 위에 아롱지고 만 갈래 빛줄기는 참으로 찬란하구나. 세상 사람들을 널리 구제하며 가엾게 여기시

니 법계 구석구석에 연꽃이 피어나는 듯하네. 이번에 오신 것은 경전을 전하기 위함이요 가신 길에 조금의 허물도 없으시도다. 요괴를 제압하고 진실로 바다로 돌아가시니 불법의 문에서 다시금 비단 가사를 얻었네.

결국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8회 — 관음원에서 당승이 난관을 벗어나고, 고로장에서 대성(손오공)이 마귀를 물리치다

觀音院唐僧脫難 高老莊大聖除魔

손오공은 보살에게 인사를 올리고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 그리고는 향남나무에 가사를 걸어둔 뒤, 여의봉을 꺼내 들고 흑풍동 안으로 거침 없이 쳐들어갔다. 동굴 안에는 작은 요괴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알고 보니 보살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괴물 놈이 바닥을 뒹굴며 항복하는 것을 보자 겁에 질려 서둘러 달아나 버린 것이었다. 손오공이 기세를 몰아 흥포하게 날뛰며 문 근처에 쌓여 있던 마른 장작들에 불을 붙이자, 앞뒤 문이 한꺼번에 타오르며 흑풍동은 순식간에 붉은 불길에 치솟는 홍풍동으로 변해버렸다. 손오공은 그곳에서 가사를 되찾아 들고는 상서로운 빛을 타고 곧장 북쪽을 향해 돌아갔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삼장은 손오공이 어찌 그리 급히 돌아오지 않는지 몹시 의아해했다. '관음보살님께 간 것이 소식이 없는 것인가, 아니

면 손오공이 핑계를 대고 도망친 것인가?' 하고 온갖 잡념에 빠져 있을 때였다. 갑자기 허공에서 오색찬란한 안개가 번쩍이더니, 손오공이 계단 앞으로 툭 떨어지듯 내려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스승님, 가사를 되찾아 왔습니다!" 삼장은 크게 기뻐했다. 함께 있던 승려들도 모두 환호하며 말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야 우리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구나!" 삼장이 가사를 건네받으며 물었다. "오공아, 오늘 아침에 떠날 때 분명 점심때까지는 돌아오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해가 저물도록 이제야 돌아온 것이냐?" 손오공은 관음보살님께 간일과 신통력을 부려 요괴를 물리친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들은 삼장은 향상(香案)을 차려놓고 남쪽을 향해 절을 올린 뒤 말했다. "제자야, 이제 부처님의 가사(佛衣)를 되찾았으니, 어서 짐을 꾸려 길을 떠나자꾸나."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은 벌써 날이 저물어 길을 나서기에는 적당치 않으니,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시다." 승려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말했다. "손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우선 날이 저물기도 했고, 저희도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무사히 살아남아 보물까지 되찾았으니, 저희가 소원을 빌고 나서 어르신께서 복을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 다시 서쪽으로 떠나시지요." 손오공이 맞장구를 쳤다. "그렇고말고요, 맞습니다!" 그때 스님들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불길 속에서 건져낸 귀중품들을 모아 정성껏 공양물을 준비하고,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종이를 태우며 재앙을 물리치는 경전을 몇 권 낭독했다. 그렇게 그날 밤의 일들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다음 날 아침, 말들을 깨끗이 손질하고 짐을 꾸려 길을 나서자, 승려들이 멀리까지 배웅을 나갔다. 손오공이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며 나아갔는데, 마침 날씨가 따스하게 녹아드는 봄철이라 다음과 같았다.

풀밭 위로 말발굽 자국이 부드럽게 찍히고, 버드나무 가지는 금빛 실을 흔들며 갓 피어난 이슬을 머금었구나.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숲을 가득 메워 서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덩굴식물은 길을 따라 뻗어 생기가 넘치는구나. 독 위에는 따스한 햇살 아래 원앙이 잠들어 있고, 산골짜기 꽃향기에 나비들이 다정하게 노니네. 가을 가고 겨울 지나 봄이 절반이나 지났으니, 언제쯤 길을 다 가고 참된 경전을 얻을 수 있을까.

스승과 제자들이 닷새에서 이레쯤 거친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날 해가 저물 무렵 멀리 마을 하나가 보였다. 삼장이 말했다. “오공아, 저기 저쪽에 장원이 하나 가까이 있는 것 같구나. 저곳에서 하룻밤 묵어가고 내일 다시 길을 떠나는 게 어떨겠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우선 제가 가서 길흉을 살펴본 뒤에 결정하겠습니다.” 스승이 고삐를 붙잡고 있는 사이, 손오공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곳의 풍경은 이러했다.

대나무 울타리는 뽀뽀하고 초가집은 겹겹이 늘어서 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들나무는 문 앞까지 드리워졌고, 굽이치는 시냇물과 다리는 집 앞을 비춘다. 길가의 버드나무는 푸릇푸릇 싱그럽고, 정원 안의 꽃들은 향기를 뿜어낸다. 석양은 서쪽으로 저물어가고, 산림 곳곳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며, 저녁 밥 짓는 연기는 피어오르고, 길목마다 소와 양 떼가 지나간다. 배불리 먹은 닭과 돼지는 집 구석에서 잠들고, 술에 취한 이웃 노인은 흥겹게 노래를 부른다.

손오공이 상황을 살피더니 말했다. "스승님, 어서 가시지요. 분명 살기 좋은 마을일 테니 하룻밤 묵어가기 딱 좋습니다."

삼장법사는 백마를 몰아 서둘러 마을 어귀로 향했다. 길목에는 머리에 면보를 두르고 푸른 저고리를 입은 한 젊은이가 보였다. 그는 우산과 붓짐을 챙겨 메고 바지를 단정히 여민 채, 세 귀 짚신을 신고 씩씩하게 길을 나서고 있었다.

손오공이 잼싸게 그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다. "어디 가는 길이야? 내가 하나만 물으마. 여기가 대체 어디냐?"

그는 팔을 빼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외쳤다. "우리 마을에 사람이 없어서 하필 나한테 길을 묻는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달랐다. "보살님, 노여워하지 마시오. '남을 편하게 해주면 자신도 편해지는 법' 아니겠소? 지명 좀 알려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그러시오? 그럼 나도 당신의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지 않겠소?"

그는 손을 뿌리치려 애썼지만, 손오공의 손아귀가 마치 쇠집게처럼 단단히 죄어오는 통에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날뛰며 투덜거렸다. "아이고, 재수도 없지! 집안 어른들한테 구박받는 것도 서러운데, 이 대머리 녀석한테 붙잡혀서 기분만 잡쳤네!"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네가 능력이 있다면 내 손을 뿌리치고 가 보든지!"

그가 이리저리 몸을 비틀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화가 폭발한 그는 붓짐을 내팽개치고 우산도 버린 채, 빗줄기처럼 두 손을 휘저으며 손오공을 할퀴려 들었다. 손오공은 한 손으로는 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를 막아세우며, 아무리 버둥거려도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손오공이 놓아주기는커녕 더욱 짝 붙잡자, 그는 미칠 지경이 되어 천둥 치듯 길길이 날뛰었다.

그 모습을 본 삼장법사가 말했다. "오공아, 저기 오는 사람이 또 있지 않느냐? 그냥 저 사람에게 물으면 될 것을, 왜 저 아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게냐? 이제 그만 놓아주어라."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스승님은 모르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괜히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가 헛수고하게 되면 안 되니까요. 이 녀석한테 물어야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손오공에게 붙잡혀 꼼짝달싹 못 하게 된 그는 결국 사실대로 말했다. "여기는 오사장(烏斯藏) 국경 지대의 고로장(高老莊)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 사람 대부분이 고 씨 성을 쓰고 있어서 고로장이라고 불려요. 제발 좀 놓아주세요!"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차림새를 보니 가까운 곳에 가는 모양새가 아니구나. 네가 진짜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을 하러 가는지 솔직히 말해야 놓아주마."

고재는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저는 고태공 댁의 하인 고재라고 합니다. 저희 주인님께는 스무 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아직 혼인도 못 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떤 요괴에게 붙잡혀 가더

니, 그놈이 3년째 사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님께서 ‘딸이 요괴에게 홀리다니, 이건 가문의 수치다. 집안 망신은 물론이고 사돈 맺을 데도 없게 생겼다’라며 아주 불쾌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괴를 쫓아내려 하셨지만, 그놈이 어찌 순순히 물러나겠습니까? 오히려 딸을 뒷방에 가두어 버리고는, 반년째 집안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님께서 제게 은자 몇 냥을 쥐여 주시며, 요괴를 물리칠 법사를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쉬지도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녔지만, 다들 실력 없는 중놈이나 멍청한 도사들이라 요괴를 잡기는커녕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며 제게 욕을 한바가지 퍼부으셨고, 겨우 은자 닷 돈을 더 주시며 다시 좋은 법사를 모셔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당신 같은 재수 없는 자를 만나 붙잡히는 바람에 길까지 막혀서, 안팎으로 속만 터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질렀던 것이니, 당신이 실력이 좀 있는 것 같아 저도 당해낼 재간이 없어 사실대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운이 좋으시군요. 마침 제가 할 일이 생겼으니, 아주 딱 들어맞는 일이 되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으니 돈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까 말한 실력 없는 중놈이나 멍청한 도사들과는 다릅니다. 요괴 잡는 데는 아주 도가 텃지요. 그야말로 ‘첫째로 의원에 게도 일감을 주고, 둘째로 (그 김에) 눈병까지 고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돌아가서 주인님께 전하십시오. 우리는 동토 대당의 임금께서 보내신 어제(御弟) 성승 일행이며,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로 요괴를 잡는 데는 아주 능숙하다고 말입니다.”

고재가 대답했다. “제발 속이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거짓말을 해서 요괴를 못 잡기라도 하면, 저만 또 욕을 먹고 고생하게 될 것 아닙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절대 속이는 일은 없을 테니, 일단 집으로 안내나 하십시오.”

고재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결국 짐 보따리와 우산을 챙겨 들고 몸을 돌려, 스승과 제자를 집 앞까지 안내했다. “두 스님, 우선 저 마당 평상에 잠시 앉아 계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주인님께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그제야 손오공은 고재를 놓아주었고, 짐을 내려놓고 말을 끌며 삼장법사 일행과 함께 문가에 서서 기다렸다.

고재가 대문을 들어서서 곧장 중당으로 걸어 들어가니, 마침 고태공과 딱 마주쳤다. 고태공이 꾸짖으며 말했다. “이 무지몽매한 놈아! 사람을 찾아다니지는 않고 왜 빈손으로 돌아왔느냐?”

고재가 짐과 우산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주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길목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스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말을 타고 계셨고, 다른 한 분은 짐을 지고 계셨지요. 그분들이 저를 붙잡고 어디 가느냐며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대답을 피했음에도 워낙 막무가내로 달라붙어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인님의 사정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무척 기뻐하시며, 저희를 도와 요괴를 잡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고태공이 물었다. "그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고재가 대답했다. "말씀하시기를, 동토 대당에서 보내신 어제 성승(임금의 동생인 성스러운 승려)이시며, 서천으로 가서 부처님을 뵙고 불경을 구하러 가시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고태공이 말했다. "멀리서 온 스님들이라니, 정말로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일지도 모르겠구나.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고재가 말했다. "지금 문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태공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고재와 함께 마중을 나가며 "장로님!" 하고 외쳤다. 그 소리를 들은 삼장은 급히 몸을 돌려 어느새 그들 앞에 다다랐다. 노인은 검은 비단 두건을 쓰고 파뿌리처럼 흰 촉(蜀) 비단옷을 입었으며, 누런 쌀겨빛 송아지 가죽 장화를 신고 검고 푸른 띠를 두른 차림이었다. 그는 웃으며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두 분 장로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삼장은 답례를 했으나, 손오공은 가만히 서 있었다. 노인은 손오공의 험상궂은 생김새를 보고는 감히 맞절을 하지 못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왜 이 손어른께는 인사도 안 하는 거요?" 노인은 겁이 나서 고재에게 소리쳤다. "이 녀석아, 너는 나를 죽일 셈이냐? 집에 이미 못생긴 사위 놈 하나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어찌하여 이런 뇌공(雷公) 같은 놈을 또 데려와 나를 괴롭히느냐?" 손오공이 대꾸했다. "이보시오, 고 영감! 나이만 먹었지 참으로 철이 없구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가가는 큰코다칠 거요. 내 얼굴은 비록 못생겼어도 재주가 좀 있지요. 당신 집의 요괴를 잡고 귀신을 몰아내어, 그 사위 놈을 붙잡아 당신 딸을 되찾아준다면 그것이야말로 큰일

아니겠소? 어찌 자꾸 얼굴 타령만 하는 거요?" 고태공은 그 말에 몸을 벌벌 떨면서도 억지로 기운을 내어 "안으로 드시지요"라고 말했다. 손오공은 그제야 백마를 끌고 고재에게 짐을 지우게 한 뒤 삼장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집 안이 좋든 나쁘든 상관하지 않고 말을 대청 기둥에 묶어둔 뒤, 검게 옷칠한 의자 하나를 끌어다 스승을 앉혔다. 그러고는 옆에 의자를 하나 더 끌어다 자신도 앉았다. 고태공이 말했다. "이 어린 장로님은 참으로 제 집인 양 스스럼이 없으시군요."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당신이 나를 반년 동안 머물게 해준다면, 더 제 집 처럼 편히 굴 거요."

자리에 앉자 고태공이 물었다. "방금 고재의 말을 들어보니, 두 분 스님께서는 동토에서 오신 분들이라던데 맞습니까?"

삼장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빈승은 조정의 명을 받들어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보장 마을을 지나던 차에 하룻밤 묵어가고자 하니, 내일 아침 일찍 다시 길을 떠나겠습니다."

고태공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두 분은 그저 하룻밤 묵어가시는 분들인데, 어찌 요괴를 잡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손오공이 끼어들었다. "하룻밤 묵어가는 길에 요괴 몇 마리 잡아 놓아주려는 것이지요. 그나저나 댁에 요괴가 얼마나 있습니까?"

고태공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이구, 말도 마십시오! 저놈의 요괴 사위 놈 하나한테 시달려 죽겠는데, 무슨 요괴를 더 감당하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그 요괴가 어떤 놈인지, 수단은 얼마나 대단한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야 제가 대신 잡아드리지요."

고태공이 말을 이었다. "우리 마을은 예부터 지금까지 귀신이나 요괴가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행히도 저에게 아들이 없고 딸만 셋뿐인데, 큰딸은 향란, 둘째는 옥란, 막내딸은 취란이라고 합니다. 큰 딸과 둘째는 어릴 때 이미 이 마을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냈지요. 오직 막내딸만 사위를 들여 저와 함께 살며 노후를 모시게 하고, 집안 대소사를 돌보며 일꾼 노릇도 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생김새가 제법 번듯한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자기는 복릉산에 사는 저(豬) 씨 성을 가진 사람인데, 위로는 부모도 없고 아래로는 형제도 없으니 사위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놈이 의지할 곳 없는 처지라기에 사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주 부지런했습니다. 밭을 갈 때도 소를 부릴 필요가 없었고, 곡식을 거둘 때도 낫이 필요 없을 만큼 손이 빨랐지요. 밤낮없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얼굴 모습을 바꾸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어떻게 바꾼단 말입니까?"

고태공이 대답했다. "처음에는 검고 뚱뚱한 사내 같더니, 나중에는 입이 푹 튀어나오고 귀가 커다란 바보 같은 놈으로 변하더군요. 뒷머리에는 뺏뺏한 갈기가 돌아나고 몸은 거칠어서 보기만 해도 겁이 나는데, 얼굴은 영락없는 돼지 모양입니다. 게다가 식탐은 또 어찌나 많은지, 밥 한 끼에 쌀을 서너 말씩 먹어치우고 아침 간식으로도 구운 떡을 백 개는 먹어야 배가 찬다니까요. 그나마 채식을 해서 망정이지, 만약 고

기나 술을 먹기 시작했다면 제 집안 재산과 땅이 반년도 안 되어 다 거덜 났을 겁니다."

삼장이 덧붙였다. "일을 그만큼 하니, 그만큼 먹는 게지요."

고태공이 울먹이며 말했다. "먹는 건 작은 문제입니다. 요즘은 바람을 일으키고 구름과 안개를 불러오며, 돌과 모래를 날려 대는 통에 저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도무지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막내딸 취란이를 뒷채에 가둬놓고 반년째 얼굴 한 번 못 보게 하니,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요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법사님을 모셔와 저놈을 쫓아내려 하는 것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어르신께서는 마음 폭놓으세요. 오늘 밤 제가 반드시 그놈을 붙잡아, 파혼한다는 서류라도 쓰게 해서 따님을 돌려보내 드리지요."

그러자 고태공이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그놈을 붙잡는 건 상관없네. 그놈 때문에 내 명성이 얼마나 깎이고 친척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틀어졌는지 모르네. 하지만 그놈을 잡기만 한다면 서류 따위가 무슨 상관인가? 그저 그놈의 씨를 말려 없애 주기만 하게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식은 죽 먹기지요.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보십시오."

고태공은 매우 기뻐하며 즉시 하인들을 시켜 탁자와 의자를 닦게 하고 정성껏 음식을 차려 내왔다. 식사를 마치고 저녁 무렵이 되자 고태공이 물었다.

"무슨 병기가 필요하십니까? 또 몇 명이나 데려가야 할까요? 서둘러 준비해 두겠습니다."

손오공이 대답했다.

"병기는 저에게 따로 있습니다."

고태공이 다시 물었다.

"두 분께서는 그저 지팡이 하나만 들고 계시는데, 그 지팡이로 어떻게 요괴를 상대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손오공은 귀 속에서 자수 놓인 바늘 하나를 꺼내 손가락으로 집어 들더니, 바람을 향해 가볍게 휘둘렀다. 그러자 바늘은 순식간에 사발 굽기만 한 금고철봉(금빛 테가 둘러진 철몽둥이)으로 변했다. 손오공은 고태공을 향해 몽둥이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몽둥이를 보시오. 당신 집 병기들과 비교하면 어떻소? 이 괴물을 때려잡기에 충분하겠소?"

고태공이 다시 말했다.

"병기가 있으시다면, 사람도 좀 데려가시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이가 좀 있고 덕망 있는 노인 몇 분만 모셔주십시오. 우리 스승님 곁에서 편히 앉아 담소를 나누시게 말입니다. 그래야 제가 마음 놓고 요괴를 잡으러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괴를 잡아 오면, 사람들에게 대접하며 당신의 고민을 깨끗이 해결해 드리지요."

고태공은 즉시 하인을 불러 친한 친구들을 몇 명 청해 왔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인사를 나누자,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걱정 마시고 편히 앉아 계십시오. 이 손오공이 다녀오겠습니다!"

손오공은 쇠몽둥이를 든 채 고태공을 끌고 가며 말했다. "어서 나를 뒷채에 있는 요괴의 거처로 안내하십시오." 고태공은 얼떨결에 손오공을 뒷채 문앞까지 안내했다.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가서 열쇠를 가져오시오." 그러자 고태공이 대답했다. "보시오, 열쇠로 열 수 있는 거였다면 당신을 청하지도 않았을 거요."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영감님, 나이가 드셨다고 재주가 없으시구먼. 내가 농담 좀 섞어 말한 걸 곧이곧대로 믿으시다니요." 그러고는 성큼 다가가 문을 만져보니, 그 문은 구리물을 부어 만든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손오공이 금고봉으로 문을 툭 치자 문짝이 힘없이 부서졌고, 그 안은 칙흑같이 어두웠다. 손오공이 말했다. "고 영감, 가서 따님을 불러보시오. 안에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고태공은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외쳤다. "셋째야!" 딸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손오공이 번쩍이는 눈으로 어둠 속을 자세히 살피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는가?

구름 같은 머리칼은 흐트러져 엉망이고, 옥 같은 얼굴은 씻지 못해 먼지가 앉아 있었다. 마음은 예전 그대로 고결했으나, 몸은 기운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앵두 같은 입술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다. 미간에는 근심이 가득해 눈썹이 흐릿했고, 몸은 야위어 가냘픈 데다 목소리마저 낮게 깔려 있었다.

손오공이 달려가 고취란을 발견하자마자 그녀를 덥석 붙잡고는 머리를 감싸 쥔 채 크게 울기 시작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울지 마시오, 울지 마시오. 내가 물겠는데, 그 요괴는 어디로 갔소?"

고취란이 대답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놈은 날이 밝으면 떠났다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거든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서 돌아올 때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놈을 쫓아내려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늘 조심하면서 낮에는 나가고 밤에만 들어오는 거예요."

손오공이 말했다. "말 안 해도 알겠소. 어르신, 따님을 데리고 앞쪽 저택으로 가서 천천히 안정을 취하시오.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소. 만약 그놈이 오지 않는다면 당신이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하지만 만약 온다면, 반드시 당신을 위해 그놈을 뿌리째 뽑아 없애버릴 테니."

고태공은 기뻐하며 얼른 딸을 데리고 앞쪽 저택으로 향했다.

한편, 손오공은 신통력을 부려 몸을 흔들더니 그 여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하여, 방 안에 홀로 앉아 요괴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이 튀고 모래가 날리는 거센 바람이 한바탕 몰아치며 불어왔다. 그 바람의 기세는 이려했다.

시로 이르되,

처음에는 미풍처럼 살랑거리더니, 나중에는 끝없이 아득하게 몰아치네. 살랑거리는 바람에 천지가 요동치고, 아득한 바람에 막힘이 없구나. 꽃을 떨어뜨리고 버들을 꺾으니 삼을 짓는 것보다 쉽고, 나무를 쓰러뜨리고 숲을 허무니 채소를 뽑는 것 같네. 강을 뒤엎고 바다를 휘저으니 귀신조차 근심하고, 바위를 가르고 산을 무너뜨리니 천지가 경악하네. 꽃을 문 사슴은 길을 잃고 헤매며, 과일을 따던 원숭이도 정신을 못 차리네. 칠층 철탑은 부처의 머리를 칠 듯하고, 여덟 면의 깃발은 보배로운 덮개를 상하게 하네. 금빛 대들보와 옥기둥은 뿌리째 흔들리고, 지붕 위 기와는 제비 떼처럼 날아다니네. 사공은 노를 저으며 소원을 빌고, 배꾼들은 돼지와 양을 바치며 서두르는구나. 마을의 토지신은 사당을 버리고 떠나고, 온 바다의 용왕들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네. 바닷가에서는 야차의 배가 부서지고, 만리장성은 절반이 깎여 나가는구나.

광풍이 휘몰아치더니 허공에서 요괴 하나가 나타났다. 과연 생김새가 아주 흉측했는데, 얼굴은 검고 털은 짧았으며 부리는 길고 귀는 커다란 것이었다. 옷은 푸르지도 않고 파랗지도 않은 어정쩡한 색의 직령도포를 입고, 허리에는 꽃무늬 수건을 매고 있었다.

손오공은 속으로 '아, 요물이 제 발로 찾아왔구나' 하고 비웃었다. 그러고는 요괴를 맞이하거나 묻지도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아픈 척을 하며 입으로 끄끙거리는 소리를 냈다. 요괴는 손오공이 변신한 것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덥석 껴안고 입을 맞추려 들었다.

손오공은 속으로 '이놈이 정말 나를 골탕 먹이려 드는구나' 생각하며, 재빨리 손을 써서 요괴의 긴 부리를 받쳐 들고는 그대로 세계 밀쳐 버렸다. 손오공이 머리부터 털어버리며 힘껏 내리누르자, 요괴는 침대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요괴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말했다. "누님, 왜 오늘따라 저를 타박하십니까? 제가 너무 늦게 온 탓인가요?"

손오공이 말했다. "타박하는 게 아니야, 타박하는 게 아니라고."

요괴가 물었다. "타박하는 게 아니라면, 왜 저를 이렇게 내동댕이치셨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너는 어찌 그리 상스러워서 다짜고짜 나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 드느냐? 오늘은 몸 상태가 좀 좋지 않구나. 평소 같았으면 벌써 일어나 문을 열고 너를 기다렸을 텐데 말이다. 우선 옷을 벗고 잠이나 자거라."

요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정말로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사이 손오공은 벌떡 일어나 요강 위에 앉았다. 요괴가 다시 침대 위로 올

라와 손을 더듬어 보았으나 사람이 없자 소리쳤다. "누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서 옷을 벗고 누워 주십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먼저 자고 있어라. 내가 볼일 좀 보고 올 테니."

요괴는 그 말대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

손오공이 갑자기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참으로 운수가 사납구나." 그러자 요괴가 물었다. "무엇 때문에 그리 화가 난 것이냐? 운수가 사납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네 집에 머무는 동안 비록 밥을 얻어먹긴 했어도 공짜로 먹기만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집 마당을 쓸고 배수로를 뚫어주었으며, 벽돌을 나르고 흙을 다져 담장을 쌓기도 했다. 논밭을 갈고 씨를 뿌려 가업을 일구는 일까지 도맡아 하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비단옷과 몸에 두른 금장식, 사계절 내내 즐기는 꽃과 과일, 명절(八節)마다 차려지는 맛있는 채소 요리까지 생각하면 무엇이 부족해서 그리 한숨을 내쉬며 운수가 사납다고 하는 것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런 뜻이 아니야. 오늘 우리 부모님이 담장 너머에서 벽돌과 기와를 던지며 나를 아주 호되게 때리고 욕하셨단 말이야." 요괴가 다시 물었다. "그분들이 너를 왜 때리고 욕하신단 말이냐?" 손오공이 말했다. "내가 너와 부부 사이가 되었으니, 네가 그 집안의 사위가 된 것이라며 도무지 예의가 없다고 난리를 치시더구나. 이렇게 흉측하게 생긴 자라 (다른 사위들끼리 모이는) 동서(姨夫) 자리에도 끼지 못하고, 친척들도 만날 수가 없지 않느냐. 게다가 네가 구름과 안개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니 도대체 어느 집안 사람인지, 성은 무엇이

고 이름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으니,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고 가문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그렇게 욕을 하시니 내가 얼마나 괴롭겠느냐.”

요괴가 말했다. “내가 비록 생김새는 좀 못생겼을지 몰라도, 예뻐지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리 어렵지 않다. 내가 처음 왔을 때 그분께도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받아주셨는데, 오늘은 왜 또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내 집은 복룡산 운잔동에 있다. 내 외모를 따서 성을 정했으니 성은 저(豬)씨이고, 본명은 저강렵(豬剛鬣)이라 한다. 만약 그분이 다시 와서 묻거든 그대로 말씀드려라.”

손오공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저 요괴가 아주 솔직하구나. 매를 들 필요도 없이 알아서 다 붙어버리니 말이야. 이제 사는 곳과 이름까지 알아냈으니, 어떻게든 반드시 잡아내고야 말겠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분(아버지)이 법사를 청해 너를 잡으려 하신단다.”

그러자 요괴가 웃으며 대꾸했다. “잠이나 자자, 잠이나 자. 그 법사 따위는 신경 쓸 것 없다. 나에게는 천강수(天罡數, 서른여섯 가지)의 변신술이 있고, 아홉 날이 달린 쇠갈퀴(정파)도 있는데, 법사니 스님이니 도사니 하는 자들이 뭐가 무섭겠느냐? 설령 네놈이 지극정성으로 빌어서 구천탕마조사(九天蕩魔祖師)라도 내려오게 만든다 해도, 나는 그분과도 안면이 있는 사이라 감히 나를 어찌지 못할 것이다.”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오백 년 전에 하늘나라를 뒤흔들었던 성이 손 씨인 제천대성(齊天大聖)을 불러 너를 잡으러 오시겠다는데?”

그 이름을 듣자마자 요괴는 겁에 질려 움찔하며 말했다. "정말로 그럴다면 난 이제 가야겠다. 이 집안 식구 노릇은 더 이상 못 해 먹겠구나!"

손오공이 물었다. "아니, 갑자기 어디를 가겠다는 거냐?"

요괴가 대답했다. "너는 모르는 모양인데, 그 하늘나라를 뒤흔들었다는 필마온(弭馬溫) 놈이 보통내기가 아닌란 말이다. 내가 그놈을 당해내지 못할까 봐 겁이 나는구나. 이름값도 못 하고 망신만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말을 마치자마자 요괴는 옷을 꺼입고 문을 열어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그때 손오공이 잽싸게 요괴를 붙잡더니, 제 얼굴에 무언가를 숙문질러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뒤 호통을 쳤다.

"이 요괴 놈아, 어디를 가느냐! 고개를 들어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아라!"

요괴가 눈을 돌려 살펴보니, 손오공은 이를 드러내고 입을 비죽거리며 눈은 불꽃을 내뿜는 금빛 눈(화안금정)인 데다, 이마는 튀어나오고 얼굴은 털북숭이라 마치 살아있는 뇌공(雷公)과도 같았다. 요괴는 겁에 질려 손발이 다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결국 요괴는 '치익' 소리를 내며 입고 있던 옷을 찢어발기고는, 광풍으로 변해 달아나 버렸다.

손오공이 급히 앞으로 나서며 여의봉을 뽑아 휘두르며 요괴가 가는 방향을 내리쳤다. 요괴는 수만 갈래의 불꽃으로 변하더니 곧장 자기 본거지로 도망쳤다.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뒤쫓으며 크게 외쳤다.

"어디를 가느냐! 네가 하늘로 올라간다면 내가 두우궁까지 쫓아갈
것ियो, 네가 땅속으로 숨는다면 내가 왕사옥(枉死獄)까지 쫓아가겠
다!"

결국 손오공이 도망치는 요괴를 뒤쫓았으니, 과연 요괴가 어디로 달
아났을지, 그리고 승패는 어떻게 갈릴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9회 — 운잔동에서 손오공이 저팔계 를 거두고, 부도산에서 현장이 심경을 받 다

雲棧洞悟空收八戒 浮屠山玄奘受心經

한편, 괴물의 붉은 불빛이 앞서 달려가고 손오공의 오색 구름이 그 뒤를 쫓았다. 한참을 달리던 중 갑자기 높은 산 하나가 나타났다. 괴물은 붉은 빛을 한데 모아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더니, 동굴 안으로 들어닥쳐 구치정파를 꺼내 들고 싸움을 걸어왔다.

손오공이 호통을 쳤다. "이 요물아! 너는 어디서 온 사악한 놈이냐? 감히 이 손오공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네놈이 가진 재주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다 털어놓아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러자 괴물이 대답했다. "너야말로 내 수단이 어떤지 모르는구나. 앞으로 와서 똑똑히 서서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말이다.

어릴 적부터 타고난 성품이 어리석어, 게으름을 피우고 한가로이 노는 것을 멈출 줄 몰랐다네. 마음을 다스리거나 도를 닦지도 못한 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세월만 덧없이 보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가로이 지내다 참된 신선을 만나, 그분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네. 신선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마음을 돌려 속세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해치고 끝없는 죄를 짓게 된다고 말이야. 언젠가 명운이 다해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 오면, 온갖 고통 속에서 후회하며 헤매게 될 것이라고 말이지. 그 말을 듣고 수행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 가르침을 듣고는 오묘한 비결을 구하기 시작했네. 인연이 닿아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고,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을 여는 법을 전수받았지. 아홉 번을 거듭 정제한 대환단을 얻어, 밤낮없이 쉬지 않고 공력을 닦았다네. 정신은 머리 꼭대기 니환궁(泥丸宮)까지 닿고, 기운은 발바닥 용천혈까지 흘러내려, 신장의 기운이 돌아 화지로 흐르니 단전이 따듯하게 데워졌지. 음양의 조화를 맞추고 금속의 기운을 하나로 모으니, 용과 호랑이의 기운을 조화롭게 다스리고 영험한 기운을 다 빨아들었네. 삼화가 정수리에 모여 근본으로 돌아가고, 다섯 가지 기운이 으름으로 모여 온몸이 맑아졌지. 공력이 차올라 수행이 완성되자 하늘로 날아올랐고, 천선들이 마중을 나왔다네. 발밑에는 찬란한 채운이 피어오르고, 몸은 가벼워져 금빛 궁궐로 향했지. 옥황제가 신선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자, 각자의 품계에 따라 자리를 나누었네. 그때 나는 원수로 봉해져 하늘의 은하수(天河)를 다스리고, 수병들을 총괄하는 현절이라는 직책을 맡았지. 그러던 어느 날, 왕모가 복숭아 잔치를 열어 요지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때였네.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해진 나머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멋대로 날뛰었지. 기세등등하게 광한궁으로 들이닥쳤는데, 마침 아름다운 선녀가 마중을 나왔더군. 그녀의 모습이 사람의

넋을 뺄 만큼 아름다워, 옛날의 욕심이 다시 살아나고 말았네. 예의도 체면도 잊은 채, 상아를 붙잡고 함께 머물자며 억지를 부렸지. 상아가 몇 번이고 거절하며 피하자 마음이 뒤틀리고 말았네. 욕심과 색욕이 하늘을 찌르고 천둥처럼 거세니, 천계의 문이 흔들릴 정도였지. 결국 영관이 이를 보고 옥황제에게 고하였으니, 그날이 바로 내 운명이 다한 날이었네. 광한궁에 갇혀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 신선에게 붙잡히고 말았지. 술기운 때문에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옥황제가 계신 영소전으로 끌려가 죄를 물었네. 다행히 태백금성이 나서 사정을 간곡히 말해주었으나, 결국 형벌이 바뀌어 이천 대의 매질을 맞게 되었고, 살점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고초를 겪었지. 목숨만은 건졌으나 결국 천계에서 쫓겨나 복릉산 아래로 유배되어 이곳에 터를 잡게 되었는데. 죄를 지어 엉뚱한 곳에 태어난 나는, 속명으로 저강렬이라 불린다네."

손오공이 그 말을 듣고 말했다. "네 이놈, 네가 원래 천봉원수였던 수신(水神)이라 하더니, 과연 나 손오공의 명성을 알고 있었구나!"

그러자 괴물이 소리쳤다. "흥! 네놈은 예나 지금이나 위(천계)를 속여 넘기는 필마온 주제에, 옛날에 그 난리를 피울 때 우리를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모른다! 오늘 또 여기까지 와서 사람을 괴롭히느냐? 무례하게 굴지 마라, 내 갈퀴 맛을 보라!"

손오공이 어찌 용서하겠는가. 즉시 여의금고봉을 치켜들고 괴물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두 사람은 깊은 밤, 산 중턱에서 격렬하게 싸움을 이어갔다. 그 싸움의 기세가 참으로 대단했다.

시로 이르되,

손오공의 금빛 눈은 번개처럼 번뜩이고 요괴의 눈은 은꽃처럼 휘몰아치네. 한쪽은 오색 안개를 내뿜고 한쪽은 붉은 노을 같은 기운을 토해내네. 붉은 기운이 가득한 곳에 빛이 밝아오고 오색 안개 속에서 밤의 광채가 흐르네. 금고봉과 구치정, 두 영웅의 싸움 참으로 장하구나. 한 명은 대성으로서 인간 세상에 내려왔고 한 명은 원수로서 하늘 끝에서 내려왔네. 누구는 위엄을 잃어 괴물이 되었고 누구는 고난을 피해 승려를 따르려 하네. 갈퀴는 마치 용이 발톱을 뺏는 듯하고 봉은 마치 봉황이 꽃 사이를 누비는 듯하네. 한쪽이 "남의 혼사를 망치다니 아버지 죽이는 짓이다!" 외치면 다른 쪽이 "어린 처녀를 겁탈하다니 잡혀 마땅하다!" 맞서네. 쓸데없는 말들이 허공에 흩날리고 봉과 갈퀴가 어지럽게 부딪치는데 어느덧 싸움은 날이 밝아올 때까지 이어져 요괴는 양팔이 저리고 감각이 무뎠더라.

두 사람은 이경(밤 9시 무렵)부터 동쪽 하늘이 밝아올 때까지 쉬지 않고 격렬하게 싸웠다. 괴물은 상대가 되지 않자 싸움에서 패해 도망치더니, 다시 광풍으로 변해 운잔동으로 곧장 돌아가 문을 짹 열어 잠고고는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손오공이 동굴 문 앞에 서서 살펴보니, 그곳에는 '운잔동'이라고 세 글자가 새겨진 돌비석이 있었다. 괴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날이 이미 밝아오자, 손오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스승님께서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니, 일단 돌아가서 뵈고 나서 다시 와 이 괴물을 잡는 것이 늦지 않겠구나.' 그러고는 구름을 밟고 가볍게 몸을 날려 곧장 고가장으로 돌아갔다.

한편, 삼장은 고노인 일행과 옛이야기를 나누느라 밤을 꼬박 지새왔다. 한창 손오공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마당 한가운데에 손오공이 쑥 나타났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갈무리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대청으로 올라가며 외쳤다.

“스승님, 저 왔습니다!”

깜짝 놀란 고노인 일행이 일제히 절을 올리며 말했다.

“고생 많았네, 정말 고생 많았어.”

삼장이 물었다.

“오공아, 밤새 돌아다니더니 요괴는 어디에 있더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 그 요괴는 평범한 사악한 귀신이나 산속의 짐승이 아닙니다. 본래 천계의 천봉원수였는데, 태어날 때 잘못 태어나는 바람에 얼굴이 멧돼지처럼 생겼을 뿐, 본래의 신령한 기운은 남아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성이 상(相)이고 이름은 저강렬이라 불렀습니다. 제가 뒷마당에서 여의봉을 휘둘러 공격하자, 그놈이 광풍으로 변해 달아나더군요. 제가 바람을 타고 쫓아가서 한 대 후려치니, 놈이 불꽃으로 변해 자기 동굴로 튕 겁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구치정파라는 무기를 꺼내 들고 저와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이제 막 날이 밝으려는데, 놈이 싸움에 겁을 먹고 도망쳐서 동굴 문을 짹 열어 잠그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

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끝장을 보고 싶었지만, 혹여 스승님께서 걱정하며 기다리실까 봐 우선 소식부터 전하러 왔습니다.”

말을 마친 고노인이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스님,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스님께서 저 괴물을 쫓아갈 수는 있겠지만, 스님께서 가신 뒤에 그놈이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어찌 처단하겠습니까? 차라리 스님께서 저와 함께 그놈을 붙잡아 뿌리를 뽑아버려야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 이 늙은이가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두둑이 사례하겠습니다. 우리 집의 재산과 논밭을 친척들과 함께 문서로 작성하여 스님과 똑같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반드시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우리 고씨 가문의 청렴한 덕망을 망치지 않게 말입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도무지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시는군요. 저 괴물도 저에게 말하기를, 비록 식성이 좋아 어르신 댁의 밥을 좀 얻어먹긴 했어도 어르신을 위해 해준 일이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집안 살림이 이만큼 일어난 것도 다 저놈의 힘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공짜로 얻어먹기만 한 게 아닌데, 어찌 저놈을 없애려 하십니까? 저놈 말로는 본래 천계의 신선인데, 어르신 댁 일을 도와주려고 하계로 내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어르신 댁 따님을 해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사위라면 가문의 격에도 맞고 명성을 더럽힐 일도 없으니, 정말로 그냥 두는 게 좋겠습니다."

고노인이 다시 말했다. "스님, 풍속을 해치는 일은 아니라 해도 소문이 좋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고씨 집안에서 요괴 사위를 들였다'라고 떠들어대면, 그 말을 듣고 어찌 체면을 세우겠습니까?"

그러자 삼장이 말했다. "오공아, 이미 저놈과 한바탕 싸웠으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결판을 내어 끝을 맺는 것이 좋겠구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방금은 그놈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 본 것뿐입니다. 이번에 가서 반드시 정체를 밝혀내어 보여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고노인에게 소리쳤다. "어르신, 스님을 잘 보살펴 드리고 계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손오공은 형체도 그림자도 없이 그의 산으로 날아갔다. 동굴 입구에 도착한 손오공은 철봉을 휘둘러 두 쪽의 문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못난 놈아, 얼른 나와서 이 몸과 한판 붙자!"

동굴 안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던 저강렬은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자신을 못난 놈이라 욕하는 소리를 듣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갈퀴를 끌고 정신을 가다듬으며 밖으로 달려 나와 매섭게 소리쳤다. "이 비천한 말 관리 놈아, 정말 게으르구나! 네가 상관할 바가 뭐가 있다고 감히 내 대문을 부수느냐? 가서 법전이라도 읽어 보고 오너라. 남의 대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것은 중죄에 해당한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대문을 부순 것은 이유라도 있지. 너처럼 중매도 없고 예물도 없이 남의 집 여자를 강제로 차지하고 있는 놈이야말로 진짜 죄를 지어 목이 달아나야 할 범죄자 아니냐?"

저강렬이 말했다. "잔말 말고 이 갈퀴 맛이나 봐라!"

손오공은 철봉으로 막아세우며 대꾸했다. "그 갈퀴는 고 노인의 집에서 농사짓거나 밭 갈 때 쓰는 것이냐? 네까짓 게 무서울 게 무엇이냐?"

저강림이 외쳤다.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이 갈퀴가 어찌 평범한 물건이겠느냐? 내 말을 잘 들어보아라.

신비로운 얼음철을 달구고 두드려 닦으니, 그 빛이 눈부시게 밝구나. 태상노군께서 직접 망치를 휘두르고, 불꽃 튀는 숯가루를 직접 더하며 만드셨네. 오방오제께서 온갖 정성을 쏟고, 육정육갑 신선들이 애써 공을 들였도다. 아홉 개의 구슬 같은 어금니를 만들고, 두 개의 금고리를 달아 완성했으니. 몸에는 여섯 행성과 다섯 별이 새겨졌고, 체구에는 사계절과 절기가 담겼구나. 길고 짧음으로 천지를 정하고, 좌우로 음양과 해와 달을 나누었네. 여섯 신장이 하늘의 법도를 따르고, 팔괘와 별들이 북두칠성처럼 늘어섰으니. 이름하여 '상보침금파'라, 옥황제의 궁전을 지키는 보물이라네. 내가 대라선에 올라 신선이 되었을 때, 나의 장생을 돕는 벗이 되었지. 천봉원수라는 직위를 내려주시고, 이 못난 갈퀴를 어전의 상징으로 하사하셨네. 들어 올리면 불꽃과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내리치면 거센 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니. 하늘의 신장들은 모두 놀라고, 저승의 염라대왕도 간담이 서늘해지리라. 인간 세상에 이런 병기가 어디 있으며, 세상에 이런 철이 또 있겠느냐. 마음 먹은 대로 자유로이 변화하고, 주문을 외우면 마음껏 날뛸 수 있구나. 수년 동안 몸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고, 며칠 밤낮을 늘 함께했네. 세 끼 식사 때도 곁에 있었고, 밤잠을 잘 때도 늘 함께였지. 천계의 잔치에도 함께 갔었고, 옥제의 궁전에도 함께 갔었네. 하지만 술기운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힘을 믿고 행패를 부린 탓에, 하늘에서 나를 쫓아 인간 세상으로 유배 보내 죄를 짓게 하였구나. 돌동굴에서 사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잡아먹다가, 고가장의 여인과 인연을 맺었지. 이 갈퀴로 바다 밑 용왕의 소굴을 뒤엎고, 산속 호랑이와 이리의 굴을 박살 냈노라. 다른 무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직 나의 이 갈퀴가 제일이라네. 승부를 겨루어 이기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느냐, 실력을 겨루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네가 아무리 머리가 구리로 되고 몸이 강철이라 한들, 내 갈퀴가 닿으면 혼비백산하여 정신이 다 빠져나갈 것이다!"

손오공이 그 말을 듣고 철봉을 거두며 말했다. "이 멍청한 녀석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내가 머리를 여기 내밀 테니 한번 세계 내리쳐 봐라. 과연 네가 내 기를 꺾을 수 있을지 보자꾸나!"

괴물이 정말로 갈퀴를 치켜들고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갈퀴에서 불꽃이 번쩍이며 튀었으나, 손오공의 머리 가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괴물은 손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세상에, 정말 대단한 머리군! 대단해!"라고 외칠 정도였다.

손오공이 말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천계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선단을 흠치고 복숭아를 흠치고 임금님의 술까지 흠쳐서, 소성(小聖) 이랑신에게 붙잡혀 두우궁 앞에 압송되었을 때를 말이다. 그때 수많은 신선이 나를 도끼로 찍고 망치로 두드리며 칼로 베고 창으로 찔렀으며, 불로 태우고 번개로 내리쳤지만 내 몸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 게다가 태상노군에게 잡혀가 팔괘로 안에서 신령한 불로 단련되면서, 지금의 화안금정(불꽃 같은 눈)과 구리 머리, 철 팔을 갖게

된 것이다. 못 믿겠거든 다시 몇 번 더 내리쳐 봐라. 아픈지 안 아픈지 보자!"

괴물이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 네가 천계에서 난동을 부릴 때 동승신주 오래국 화과산 수렴동에 살았다는 건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식도 없더니 어찌 여기까지 와서 나를 괴롭히느냐? 설마 내 장인어른이 너를 어디서 모셔 오기라도 했단 말이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네 장인어른이 나를 부른 게 아니다.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도를 버린 채 승려의 길을 걷게 되었거든. 동토 대당의 임금님 동생인 삼장법사를 모시고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에, 마침 고가장을 지나며 하룻밤 묵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고노인이 사정을 이야기하며 네놈 같은 거지 같은 괴물을 물리쳐 달라고 나에게 부탁하더구나!"

그 괴물이 이 말을 듣자마자 들고 있던 구치정파를 내던지며 크게 소리쳤다. "그 경전 구하러 오시는 분이 어디 계신가? 번거로우시겠지만 나를 좀 인도해 주시오." 손오공이 물었다. "그분을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자 괴물이 대답했다. "나는 본래 관세음보살님의 권유로 선행을 쌓기로 하고 그분의 계율을 받았다네. 여기서 재계를 지키며 채식을 하며, 그 경전 구하러 서천으로 불경을 찾아가는 분을 따라가서 불공을 드리고 경전을 구함으로써, 지은 죄를 씻고 정과(正果, 수행의 결과로 얻는 깨달음)를 얻으라는 가르침을 받았지. 그래서 그분을 기다린 지 벌써 몇 년이나 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던 말일세. 그런데 오늘 보니 그대가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면서, 왜 진작 경전을 구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작정 들이닥쳐 나를 때린단 말인가?" 손

오공이 말했다. "내 속임수에 넘어가서 빠져나갈 공리를 하는 것 아니냐? 정말로 삼장법사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거짓이 없다면, 하늘을 향해 맹세해 보아라. 그래야 내가 스승님께 데려가 줄 것이다." 괴물은 털썩 무릎을 꿇더니, 마치 절구질을 하듯 머리를 땅에 찜으며 연신 빌었다. "아미타불, 나무불! 내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면 천벌을 받아 내 몸이 만 갈래로 찢겨도 좋소!" 손오공은 그가 저주 섞인 맹세를 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정 그렇다면, 네가 살고 있는 이 거처에 불을 질러라. 그러면 데려가 주마." 괴물은 정말로 갈대와 가시덤불을 모아다가 불을 붙였고, 순식간에 운산동은 다 부서진 가마처럼 활활 타올랐다. 괴물이 손오공에게 말했다. "이제 내 마음에는 아무런 미련이 없으니, 어서 나를 인도해 주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그 구치정파를 나에게 넘겨라." 괴물이 정파를 손오공에게 건네주었다. 손오공은 다시 자신의 털 하나를 뽑아 입으로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털이 세 가닥으로 꼬인 새끼줄로 변해 날아가더니, 괴물의 두 손을 뒤로 묶어버렸다. 괴물은 정말로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손오공은 괴물의 귀를 움켜쥐고 끌며 말했다. "빨리 가자, 빨리!" 괴물이 투덜거렸다. "좀 살살 좀 하게! 자네 손이 너무 무거워서 귀가 다 아프네!" 손오공이 대꾸했다. "살살할 여유는 없다. 너를 봐줄 처지가 아니야. 옛말에 '순한 돼지일수록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善豬惡拿)'고 했다. 우리 스승님을 뵈고 나서 정말 진심인지 확인한 뒤에 풀어줄 것이다." 두 사람은 구름과 안개 사이를 가로질러 곧장 고가장으로 향했다. 이를 두고 시로 이르되,

금의 성질 강건하여 나무를 이기니, 마음의 원숭이가 나무 용을 굴복시켰도다. 쇠가 나무를 따르니 돌이 하나가 되고, 나무가 쇠를 그리

워하니 인자함이 절로 발휘되네. 한 명은 주인이고 한 명은 손님이라 격차가 없으니, 세 번 사귀고 세 번 합하니 그 오묘함이 깊구나. 성품과 마음이 모두 정직하고 근본을 모으니, 함께 서천에서 깨달음을 얻음이 어찌 다르겠는가.

순식간에 장원 앞에 도착했다. 손오공은 저팔계의 귀를 움켜쥐고 쇠갈퀴를 왼 채 끌고 오며 말했다. "저 대청에 단정히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신지 똑똑히 보아라. 바로 우리 스승님이시다!"

고태공과 그의 친척, 일가친척들은 손오공이 괴물의 두 손을 뒤로 묶고 귀를 잡아끌고 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마당으로 달려 나왔다. 그들은 반가워하며 소리쳤다. "장로님, 장로님! 이자가 바로 우리 집 사위입니다!"

저팔계는 앞으로 나아가 두 무릎을 꿇고 뒷짐을 진 채 삼장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크게 외쳤다. "스승님, 제자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제 장인어른 댁에 머물고 계신 줄 알았더라면 진작 찾아뵈었을 텐데, 어쩌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습니까?"

삼장이 물었다. "오공아, 네가 어떻게 이 자를 굴복시켜 나에게 절하게 만들었느냐?"

그제야 손오공은 저팔계를 놓아주며 쇠갈퀴 자루로 그를 툭툭 치며 호통쳤다. "이 멍청한 놈아, 네가 직접 말해 보거라!"

그러자 저팔계는 관세음보살께서 선행을 권유하셨던 일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삼장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고태공, 향을 올릴 상을 하나 가져오시오." 고태공이 즉시 달려가 향상을 받쳐 들고 왔다. 삼장은 손을 깨끗이 씻고 향을 피운 뒤, 남쪽을 향해 절하며 말했다. "보살님의 거룩한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곁에 있던 노인들도 일제히 향을 더하며 함께 절을 올렸다.

예를 마친 삼장은 대청에 올라 앉았고, 손오공에게 저장렵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라고 일렀다. 손오공이 몸을 한 번 크게 흔들자 밧줄이 저절로 풀려 나갔다. 저장렵은 다시 삼장에게 절을 올리며 서천으로 가는 길에 따르기를 원한다고 청했다. 또한 손오공에게도 절을 하며 먼저 온 사람이 형이라 하여 손오공을 사형이라 불렀다.

삼장이 말했다. "이미 나의 선한 인연을 따라 제자가 되기로 했으니, 앞으로 부르기 편하도록 법명을 하나 지어주마."

저강렵이 대답했다. "스승님, 저는 이미 보살님께서 정수리를 어루만져 계율을 내려 주시며 '저오능'이라는 법명을 지어 주셨습니다."

삼장이 웃으며 말했다. "종구나, 좋아. 네 사형의 이름은 오공이고 네 이름은 오능이니, 사실 우리 법문의 종파와도 일맥상통하는구나."

오능이 말했다. "스승님, 저는 보살님의 계율을 받았기에 오신채와 세 가지 금지된 고기(三厭)를 끊었습니다. 장인댁에 머무는 동안에도 늘 재계를 지키며 채식만 해왔고, 고기는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오늘 스승님을 뵈었으니, 이제 그만 재계를 풀고 고기를 좀 먹어도 되겠지요."

삼장이 말했다. "안 된다, 안 돼. 네가 이미 오신채와 세 가지 금지된 고기를 먹지 않으니, 내가 너에게 별명을 하나 더 지어주마. 앞으로 '팔계'라고 부르겠다."

저강렵은 아주 기뻐하며 대답했다. "스승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로써 그는 저팔계라고 불리게 되었다.

고태공은 괴물이 올바른 길로 돌아선 것을 보고 무척 기뻐하며, 즉시 하인들에게 명하여 잔치를 베풀어 삼장법사 일행에게 보답하게 했다. 저팔계가 앞으로 나서서 고태공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다. "어르신, 제 아내를 불러 어르신과 형님께 인사를 드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보게, 자네는 이제 승려가 되어 수행하는 몸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다시는 그 '아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게. 세상에 집에서 수행하는 도사는 있어도, 집에서 수행하는 스님은 없는 법이라네. 자, 어서 자리를 잡고 앉아 채식 위주의 식사를 마친 뒤, 서둘러 서천으로 길을 떠나세나."

고태공은 상을 차려 삼장법사를 상석에 모셨고, 손오공과 저팔계는 좌우 양옆에 앉았으며, 나머지 친척들은 아래쪽에 앉았다. 고태공은 채식용 술을 가져와 잔에 가득 채운 뒤, 천지신사에게 제를 올리고 삼장법사에게 권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태공께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자면, 빈승은 태어날 때부터 채식을 해왔기에 어려서부터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고태공이 대답했다. "스님께서 청렴하고 깨끗하신 분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감히 고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술 또한 고기를 섞지 않은 채식용 술이니, 한 잔 드셔도 괜찮습니다."

삼장법사가 다시 말했다. "술은 감히 마실 수 없습니다. 술은 우리 승려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계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저팔계가 당황하며 말했다. "스님, 저는 재계하며 살고는 있지만 술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손오공도 거들었다. "저도 속이 좁아 술통째로 들이켜지는 못해도, 술을 끊은 적은 없습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너희 형제들은 채식과 술을 조금 먹어도 괜찮다. 다만, 취해서 일을 그르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두 제자는 곧바로 첫 잔을 받아 마셨다.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정성껏 차려진 채식 요리를 먹기 시작했다. 상 위에 차려진 그릇의 화려함과 음식의 풍성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스승과 제자들이 잔치를 마친 뒤, 고태공은 붉은 칠을 한 단반을 가져와 흩어진 금은보화 이백 냥을 꺼내 놓으며 세 분 어른의 여비로 쓰라고 정중히 올렸다. 또한 면직물로 만든 겹옷 세 벌도 함께 내놓았다.

삼장이 말했다. "저희는 길을 떠도는 승려들입니다. 마을을 지나다 밥을 얻어먹고, 머무는 곳마다 공양을 청하며 지내는데, 어찌 감히 금은보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손오공이 다가오더니, 손을 휘둘러 금은보화를 한 움큼 덩석 움켜쥐며 말했다. "고재! 어제는 네가 우리 스승님을 안내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오늘은 제 동생을 하나 만들어 주었으니, 보답할 것이 마땅치 않구나. 여기 있는 자잘한 금은보화들을 그냥 여비라 생각하고 가져가거라. 이걸로 짚신이라도 사서 신으렴. 나중에 요괴가 나타나면 내 동생으로 몇 명 더 만들어 줄 테니, 그때 다시 제대로 보답하마."

고재는 그것을 받아 들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고태공이 다시 말했다. "스승님들께서 금은보화를 받지 않으시겠다면, 이 거친 옷이라도 부디 너그럽게 받아 주십시오. 저희의 작은 정성이라 여기시고 말입니다."

삼장이 다시 말했다. "출가한 몸이 조금이라도 뇌물을 받게 되면, 천년의 수행도 헛되게 됩니다. 그러니 잔칫상에 남은 떡과 과일 정도만 좀 챙겨 주십시오. 그것을 가져가서 길 위에서 먹을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저팔계가 곁에서 말했다. "스승님, 형님, 두 분이야 상관없지만, 제가 이 집 사위로 몇 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보태준 식량만 해도 세 석은 족히 될 겁니다. 장인어른! 어젯밤 형님한테 찢어진 제 겹옷이랑 푸른 비단 가사 한 벌 좀 주시고, 터진 신발 대신 새 신발 한 켤레만 내주십시오."

고태공은 그 말을 듣고 어찌 마다하겠는가. 얼른 새 신발 한 켤레를 사고 겹옷 한 벌을 사서 저팔계의 낡은 옷을 갈아입혀 주었다. 그러자 저팔계는 몸을 흔들거리며 고태공에게 인사를 건넸다.

"장모님, 큰이모님, 작은이모님, 그리고 이모부님과 고모, 외삼촌 등 친척 어른들께 올립니다. 제가 오늘 스님이 되려 떠나느라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가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장인어른, 제 처는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경전을 구하러 가다가 일이 잘 안 풀려서 다시 속세로 돌아오게 되면, 예전처럼 장인어른 사위로 살면서 지내겠습니다."

손오공이 호통을 쳤다. "이 멍청한 놈아,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저팔계가 대꾸했다. "쓸데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일이 틀어지면 스님이 되는 것도, 장가가는 것도 다 어긋나서 양쪽 다 낭패를 보지 않겠습니까?"

삼장이 말했다.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어서 서둘러 길을 떠납시다."

삼장은 짐 꾸러미를 챙겨 저팔계에게 짊어지게 했고, 자신은 백마에 올라탔으며, 손오공은 여의봉을 어깨에 메고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다. 이렇게 세 사람은 고태공과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서천을 향해 떠나갔다.

시로 그 모습을 증명하노니,

"온 땅에 안개와 노을 자욱하고 나무들은 높이 솟았는데, 당나라에서 온 불제자는 고된 길을 걷는구나. 배고프면 천 가문의 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고, 추우면 누더기 옷 한 벌로 몸을 가누네. 마음의 말

(意馬)을 가슴속에서 방탕하게 풀어놓지 말고, 날뛰는 원숭이(心猿) 같은 마음을 제멋대로 울부짖게 두지 말지어다. 뜻과 성품이 안정되어 온갖 인연과 조화를 이루면, 금화의 달이 가득 차듯 참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리라."

세 사람(삼장·오공·팔계)이 서쪽으로 길을 재촉하니, 한 달 동안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지나갔다. 오사장 경계를 지나가던 중,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높은 산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다. 삼장이 말의 고삐를 당겨 멈춰 서며 말했다.

"손오공, 저팔계, 앞의 산이 높으니 조심해서 살피도록 해라."

저팔계가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이 산은 부도산이라고 하는데, 산속에 오소선사라는 분이 계셔서 수행 중이세요. 저도 예전에 그분을 뵈는 적이 있습니다."

삼장이 물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저팔계가 말했다.

"도력이 꽤 높으신 분이예요. 저보고 같이 수행하자고 권하기도 하셨는데, 제가 안 간 것뿐이죠."

스승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덧 산에 다다랐다. 참으로 아름다운 산이었다.

산 남쪽에는 푸른 소나무와 울창한 측백나무가 늘어섰고, 산 북쪽에는 버들가지와 복숭아꽃이 만발했다. 산새들은 왁자지껄 정겹게 지저귀고, 학들은 날개를 펼쳐 우아하게 날아다녔다. 온갖 꽃들은 천 가지 색깔을 뽐내며 향기를 풍겼고, 이름 모를 풀들은 싱그럽게 피어나 만가지 신비로움을 더했다. 계곡 아래로는 푸른 물이 도도하게 흐르고, 절벽 앞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참으로 경치가 아늑하고 그윽하여,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고요한 곳이었다.

삼장법사가 말 위에서 멀리 살펴보니, 향회수 앞에는 땀나무를 모아 만든 움집이 하나 있었다. 나무 왼쪽에서는 사슴 한 마리가 꽃을 입에 물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원숭이 한 마리가 과일을 바치고 있었다. 나무 꼭대기에는 청란과 채봉이 함께 울어대고, 현학(검은 학)과 금계(비단 닭)도 한데 모여 있었다.

저팔계가 보고 말했다. "저기 계신 분이 오소선사님 아닙니까?"

삼장법사는 말채찍을 휘둘러 나무 아래까지 빠르게 달려갔다.

한편, 선사가 삼장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는 등지에서 나와 나무 아래로 뛰어 내려왔다. 삼장이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어 절을 올리자, 선사는 손으로 부축하며 말했다. "성스러운 스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마중 나가지 못해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러자 저팔계가 "노선사님, 인사를 올립니다."라며 읊을 했다. 선사가 깜짝 놀라 물었다. "그대는 복릉산의 저강렵이 아니오? 어찌 이런 큰 인연이 있어 성스러운 스님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소?"

저팔계가 대답했다. "재작년에 관세음보살님의 권유를 받고 선한 일을 하라는 가르침을 얻어, 보살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기로 했습니다."

선사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좋소, 참으로 좋소!" 그러고는 손오공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분은 누구시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노선사님께서는 저분은 알아보시면서 어찌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겁니까?"

선사가 말했다. "내가 식견이 부족해서 그렇다네."

삼장이 덧붙였다. "이 아이는 제 첫째 제자인 손오공입니다."

선사가 웃으며 말했다. "예의를 갖추지 못했구려, 정말 미안하오."

삼장이 다시 절을 올리며 물었다. "서천의 대뇌음사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소선사가 대답했다. "멀고도 먼 길입니다. 다만 가는 길에 호랑이와 표범이 많아 나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삼장이 정중하게 예를 갖추며 다시 물었다. "그 길이 정말로 그렇게나 멀니까?" 우소선사가 말했다. "길이 비록 멀다 한들 결국 도착할 날은 오기 마련입니다. 다만 마귀와 요사스러운 기운을 물리치기가 어려울 뿐이지요. 내게 《반야심경》 한 권이 있는데, 총 54구로 이루어져 있고 글자 수는 270자나 됩니다. 만약 마귀나 요사스러운 기운을 만난다면 이 경전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삼장이 땅에 엎드려 간곡히 청하자, 선사가 마침내 입으로 경문을 읊어 전해주었다. 경에 이르기를,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다섯 가지 쌓임(오온)이 모두 비어 있음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났도다. 사리자여, 물질이 비어 있음과 다르지 않고 비어 있음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니, 물질이 곧 비어 있음이요 비어 있음이 곧 물질이라. 느낌과 생각, 의지와 인식 또한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의 비어 있는 모습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물질도 없고 느낌과 생각, 의지와 인식도 없으며,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의식도 없고, 모양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없고 나아가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느니라.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나아가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느니라.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이 다함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으며,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마침내 열반에 이르느니라.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로운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니, 능히 모든 고통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함이 없느니라. 이에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말하노니, 주문은 이러하다.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모두 함께 저 언덕으로 넘어가서 깨달음을 이루자!”

이때 당승은 본래 근본이 깊어 《심경》을 한 번 듣기만 해도 바로 기억할 수 있었으니, 이 경전은 지금까지도 세상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는 참된 도를 닦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경전이자,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다.

오소선사가 경전을 전해주고는 구름을 밟고 까마귀 등지로 올라가려 했다. 그러자 삼장이 다시 그를 붙잡으며, 서천으로 가는 길을 반드시 물어야겠다고 간곡히 청했다. 오소선사가 웃으며 말했다.

"길을 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으니, 내 당부하는 말을 잘 들어보게."

시로 이르되,

"깊은 산과 먼 물길, 험한 기운과 마물이 가득한 곳이라네. 하늘에 닿을 듯한 절벽을 만나더라도, 마음 놓으니 두려워할 것 없네. 모이암을 지날 때는 발걸음을 조심하게나. 검은 소나무 숲을 지날 때는 요괴들이 길을 막을 것이니 세심하게 살피게. 나라의 성안에는 정령들이 가득하고, 산에는 마왕들이 득실거린다네. 호랑이는 거문고를 타는 방에 앉아 있고, 푸른 이리는 주부 노릇을 한다네. 사자와 코끼리는 왕 노릇을 하고, 범과 표범은 마부 노릇을 하니, 멧돼지는 짐을 짊어지고 다니고, 물괴물은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라네. 오랜 세월 묵은 늙은 돌원숭이(石猴)가 그곳에서 노여움을 품고 있으니, 자네가 아는 그 이를 찾아 물어본다면, 그가 서천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것이네."

손오공이 그 말을 듣고는 냉소하며 말했다. "우리가 가는 데 그 선사에게 물을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물으시면 됩니다." 삼장은 아직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선사가 금빛 광채로 변하더니 그대로 까마귀 등지를 향해 날아가 버렸다. 손오공이 스승을 대신해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하려 했으나, 화가 머리끝까지 난 손오공은 여의봉을 휘둘러 등지를 마구 두들겨 뒀다. 그러자 등지에서는 수만 송이의 연꽃이 피어나고 상서로운 안개가 겹겹이 피어올랐다. 손오공이 바다를 뒤엎고 강을 뒤집을 만큼 강한 힘을 가졌다 한들, 저 까마귀 등지의 덩굴 한 가닥조차 건드리지 못했다.

이 모습을 본 삼장이 손오공을 붙잡으며 말했다. "오공아, 저런 보살님 같은 분의 등지를 어찌 이리 마구 두들겨 패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저분이 우리 형제에게 한바탕 욕을 퍼부었던 말입니다." 삼장이 말했다. "그분이 말씀하신 서천으로 가는 길에 네게 욕을 한 게 어디 있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께서 어찌 아십니까? '들돼지가 짐을 지고 간다'는 말은 저팔계를 욕한 것이고, '오래된 돌원숭이'라는 말은 저를 욕한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그 뜻을 어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자 저팔계가 말했다. "사형, 화를 가라앉히세요. 저 선사께서 과거와 미래의 일을 다 아시는 모양인데, 저 '물괴물 앞에 마주치리라'는 말씀이 맞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냥 보내드립니다." 손오공은 연꽃과 상서로운 안개가 등지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스승을 말에 태우고 산을 내려와 서쪽으로 향했다. 그렇게 길을 떠나니 다음과 같은 시가 어울렸다.

시로 이르되, 세상에서 편안한 복은 줄어들게 되고, 산속에는 재앙과 마물이 가득하게 되리라.

결국 앞으로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0회 — 황풍령에서 당승이 난을 겪고, 산 중턱에서 저팔계가 앞다투다

黃風嶺唐僧有難 半山巾八戒爭先

법은 본래 마음에서 생겨나고, 또한 마음에서 사라지느니라. 생하고 멸함이 모두 누구에게 달렸는가? 그대 스스로 분별해 보라. 이미 모두가 제 마음일진대, 무엇 하러 남의 말을 빌리려 하는가? 그저 지극한 공력을 들여, 쇠 속에서 피를 짜내듯 애써야 하리라. 부드러운 밧줄을 코에 꿰어, 허공의 매듭에 단단히 잡아매고, 무위(無爲)의 나무에 붙들 어 매어,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게 하라. 도적을 자식으로 잘못 알지 말 지니, 마음도 법도 모두 잊어 끊어버려라. 그가 나를 속이게 두지 말고, 한 주먹으로 먼저 철저히 쳐부수어라. 마음을 드러내어도 마음이 없고, 법을 드러내어도 법 또한 그치니, 사람도 소도 보이지 않을 때, 푸른 하늘 빛은 맑고도 깨끗하여라. 가을 달처럼 한결같이 둥그니, 이것과 저것을 분간하기 어렵구나.

이 계송은 삼장법사가 《반야심경》의 도리를 깨달아 마음의 문을 열면서 지은 것이다. 그 깊은 깨달음이 장로의 마음속에 늘 머물며, 한 줄기 영롱한 빛이 저절로 배어 나오는 듯하였다.

그들 세 사람이 길 위에서 끼니를 때우고 잠을 자며 달빛과 별빛을 벗 삼아 나아가니, 어느덧 무더운 한여름에 이르렀다.
꽃은 다 저서 나비도 무심하게 노닐고, 나무는 높아졌는데 매미 소리만 시끄럽구나.

들판의 누에는 고치를 틀고 석류는 붉게 익었으며, 늪 안에서는 새로 돋은 연꽃이 피어났다.

그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날이 저물더니, 산길 옆으로 마을 하나가 보였다. 삼장이 말했다.

"손오공, 저것 좀 보아라. 해는 서산 너머로 불거울처럼 숨어버리고, 달은 동해 위로 얼음바퀴처럼 떠오르는구나. 다행히 길가에 집이 있으니, 여기서 하룻밤 묵고 내일 다시 길을 떠나자."

저팔계가 거들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저팔계도 슬슬 배가 고파지는데, 얼른 집에 들어가서 공양이라도 좀 얻어먹어야겠습니다. 그래야 기운을 차려서 짐도 잘 짊어질 것 아닙니까?"

손오공이 핀잔을 주었다.

"이 집착투성이 녀석 좀 보게. 집을 떠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투덜대는 거야?"

저팔계가 대꾸했다.

"형님, 형님처럼 바람이나 먹고 연기나 마시는 분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제가 스승님을 모시고 온 며칠 동안 배고픔을 얼마나 참아왔는지 형님이 아시긴 합니까?"

그 말을 들은 삼장이 꾸짖었다.

"저팔계야, 만약 네 마음이 여전히 집에 가 있는 상태라면 너는 출가한 수행자가 아니다. 차라리 그냥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저팔계는 겁에 질려 무릎을 꿇고 빌었다.

"스승님, 형님 말을 끝이곧대로 믿지 마세요! 저 형님은 남을 깎아내리는 데 아주 선수라니까요. 저는 원망 섞인 말을 한 적이 없는데, 형님은 제가 원망한다고 몰아세우잖아요. 저는 그저 속이 뻘히 들여다보이는 바보 같은 놈이라, 배가 고프니 공양할 곳을 찾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형님은 저를 집착투성이라고 욕하잖아요. 스승님, 저는 보살님의 계율을 받았고 스승님의 자비로움에 힘입어, 스승님을 모시고 서천까지 갈 것을 맹세했습니다. 결코 물러나거나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고된 수행을 견디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찌 출가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시나요?"

삼장이 말했다.

"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그만 일어나거라."

그 멍청한 저팔계는 툭툭거리며 몸을 일으키더니, 짐을 짊어지고는 결국 마음을 접고 앞서가는 이들을 따라나섰다. 이윽고 길가에 있는 어느 집 앞에 도착했다. 삼장이 말에서 내리자 손오공이 고삐를 받아 들었고, 저팔계는 짐을 내려놓은 채 푸른 나무 그늘 아래에 나란히 섰다. 삼장은 아홉 고리가 달린 석장(錫杖)을 짚고, 대나무와 덩굴로 짠 도포를 매만지며 먼저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는 한 노인이 대나무 침상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입으로 낮게 불경을 읊조리고 있었다. 삼장은 감히 큰 소리로 부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보시님,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자 노인이 펄쩍 뛰어 일어나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문밖으로 나와 예를 갖추며 말했다.

"스님, 마중이 늦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오셨습니까? 저희 같은 가난한 집에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삼장이 대답했다.

"빈 승은 동토 대당에서 온 승려입니다. 성지를 받들어 뇌음사에 가서 부처님을 뵈고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마침 날이 저물어 실례를 무릅쓰고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지 여쭙러 왔으니, 부디 편의를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서천으로 가는 길은 경전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전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동쪽으로 가십시오."

삼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속으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보살님께서는 서쪽으로 가라고 일러주셨는데, 어찌하여 이 노인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일까? 동쪽에는 경전이 있단 말인가?'

삼장은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한편, 손오공은 본래 성미가 거칠고 사나운 데다 참을성이 없는 터라,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며 크게 외쳤다.

"이보시오, 영감님! 나이도 그만큼 드신 분이 어쩔 이리 세상 물정을 모르시오? 우리 출가한 사람들이 멀리서 와 하룻밤 묵어가겠다는데, 어쩔 그리 김빠지는 말로 호랑이 겁주듯 우리를 겁주신단 말ियो? 정덕이 좁아 잘 곳이 없다면, 우리가 나무 아래서 하룻밤 앉아 새우면 그만이니 댁에 폐 끼칠 일도 없소이다."

그러자 노인이 삼장을 붙잡고 말했다.

"스님, 스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저 제자라는 놈 좀 보십시오. 저 비뚤어진 얼굴에 튀어나온 턱과 뺨, 천둥신 같은 주둥이, 시뻘건 눈을 한 폐병쟁이 마귀 같은 놈이 어찌 이리 늙은 사람에게 대드냐 말입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대꾸했다.

"이 영감님이 정말 안목이 없으시네! 걸만 번지르르한 놈들이야말로 보기만 좋고 쓸모는 없는 법이라오. 나 손오공은 비록 몸집은 작아도 아주 야물어서 온몸이 근육 덩어리란 말이오."

노인이 말했다.

"보아하니 제법 재주가 있는 모양이구려."

손오공이 말했다.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봐줄 만은 합니다."

노인이 물었다.

"댁은 어디 사는 사람이고, 어찌하여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소?"

손오공이 대답했다.

"저 손오공은 동승신주(東勝神洲) 해동 오래국(傲來國) 화과산 수렴동에 삽니다. 어릴 적부터 요괴 노릇 하는 법을 배워 이름을 오공이라 했지요. 제 실력으로 제천대성(齊天大聖)이라는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다 천계의 녹(天錄)을 받지 않고 하늘 궁궐에 크게 반기를 드는 바람에 큰 화를 입었지요. 이제는 그 재난을 벗어나 불문(沙門)에 귀의하여 바른 깨달음(正果)을 구하려 합니다. 대당의 스승님을 모시고 서천으로 부처님을 뵈러 가는 길인데, 산이 높고 길이 험하며 물이 넓고 파도가 사나운 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는 요괴도 잡고 마귀도 항복시키며, 호랑이를 굴복시키고 용을 사로잡으며, 하늘을 걷어차고 우물을 들었다 놓는 일까지 웬만큼은 다 압니다. 만약 댁에 벽돌이 날아

들고 기왓장이 떨어지거나, 솔이 울고 문이 저절로 열리는 따위 괴이한 일이 생기면, 이 손오공이 말끔히 가라앉혀 드리지요.”

노인이 그 말을 듣더니 허허 웃으며 말했다. “알고 보니 머리를 조아리며 구걸이나 하는 말썽씨 좋은 스님이었구먼.” 손오공이 대꾸했다. “당신 아들이 말썽씨가 좋은 모양이지. 나는 요즘 스승님을 모시고 걷느라 너무 고단해서 말할 기운조차 없단 말ियो.” 노인이 말했다. “고단하지도 않고 말하는 것도 귀찮지 않다면, 아주 시끄러워서 내 귀가 다 따갑겠구먼. 그래도 그런 재주가 있으니 서천까지도 갈 수 있겠어, 갈 수 있겠어. 일행이 몇이나 되시오? 우리 작은 집으로 들어와 하룻밤 묵어가시오.” 삼장이 말했다.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시자. 우리 일행은 세 명입니다.” 노인이 물었다. “나머지 일행은 어디에 있소?” 손오공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 영감님이 눈이 침침하신가, 저 푸른 나무 그늘 아래 서 있는 게 안 보이시오?” 노인이 정말로 눈이 침침했는지 고개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다 저팔계의 험상궂은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허겁지겁 뛰어 들어갔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다. “문 닫아라! 문 닫아! 요괴가 나타났다!” 손오공이 뒤쫓아가 노인을 붙잡으며 말했다. “영감님, 겁먹지 마시오. 요괴가 아니라 내 사제요.” 노인이 벌벌 떨며 말했다. “그래, 그래, 아주 잘났구먼. 스님들이 하나같이 다 못생긴 것들이로군!” 저팔계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영감님, 얼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비록 못생겼어도 다 제 구실을 한다고요.”

노인은 문 앞에서 세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마을 남쪽에서 옷을 걷어붙이고 맨발로 모내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두 젊은이

가 늙은 할멈 한 명과 서너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흰 말 한 마리와 짐 한 짐이 자기 집 문 앞에서 떠들썩하게 있는 것을 보고, 대체 무슨 내력인지 몰라 우르르 다가와 물었다. "무얼 하는 사람들이오?"

그때 저팔계가 고개를 돌려 귀를 몇 번 펄럭이고 긴 주둥이를 쭉 내밀었다. 그 모습에 놀란 사람들이 이리저리 자빠지고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당황한 삼장이 연신 손짓하며 달랬다. "겁내지 마시오, 겁내지 마시오.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경전을 구하러 가는 스님들이오."

그제야 노인이 문밖으로 나와 할멈을 부축하며 말했다. "할멈, 일어나시오. 너무 놀라지 마시오. 이 스님은 당나라에서 오신 분인데, 제자들이 얼굴과 주둥이가 좀 험상궂긴 해도 생김새만 사나울 뿐 속은 착한 이들이오.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들어갑시다." 그러자 할멈이 노인을 붙잡고, 두 젊은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삼장은 대문 옆 누각에 놓인 대나무 침상에 앉아 타박하듯 말했다. "제자들아, 너희 둘은 생김새도 험악한데 말까지 거칠게 하니, 이 집 식구들이 혼비백산하여 아주 겁에 질리지 않았느냐. 모두 나에게 죄를 짓는 일이니라."

그러자 저팔계가 말했다. "스승님,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저팔계는 스승님을 모신 뒤로 훨씬 점잖아졌습니다. 예전 고로장(高老莊)에 있을 때처럼 주둥이를 앞으로 쭉 내밀고 귀를 양옆으로 펄럭거렸다면, 아마 스무 명에서 서른 명은 거뜬히 놀라 자빠지게 만들었을걸요."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바보 같은 녀석,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 못생긴 얼굴 좀 어떻게 수습해 보란 말이다."

삼장이 말했다. "손오공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생김새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인데, 어떻게 수습을 한단 말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 갈퀴 같은 주둥이를 품속에 꼭 집어넣어 꺼내지 말고, 부채처럼 넓적한 귀는 뒤로 딱 붙여서 흔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깔끔해지지요."

저팔계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정말 주둥이를 꼭 다물고 귀를 뒤로 바짝 붙인 채, 머리를 숙이고 손오공의 양옆에 꼴꼴이 서 있었다. 손오공은 짐을 집 안으로 들여놓고, 백마를 말뚝에 매어 두었다.

왕 노인이 어린 소년을 데려와 쟁반에 맑은 차 세 잔을 받쳐 들고 와 올렸다. 차를 마신 뒤에는 곧바로 식사를 준비하라고 일렀다. 소년은 구멍이 뚫리고 칠도 벗겨진 낡은 탁자와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진 의자 두 개를 가져와 마당에 놓으며, 세 사람에게 시원한 곳에 앉으라고 권했다.

삼장이 물었다. "노시주(老施主)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노인이 대답했다. "제 성은 왕가입니다." "자제분은 몇 분이나 두셨습니까?" "아들 둘에 손주 셋이 있습니다." 삼장이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물었다.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부질없이 예순한 살이나 먹었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환갑을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맞으셨군요(화갑중봉, 花甲重逢)." 삼장이 다시 물었다. "노시주, 아까 서천의 경전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신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왕 노인이 말했다.
 "경전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가는 길이 험하고 다니기
 고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삼십 리쯤 가면 팔백 리 황풍령
 (黃風嶺)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속에는 요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
 서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만 여기 계신 작은 스님께서서
 수단이 많으시다 하니, 그 정도라면 충분히 가실 수 있겠습니다." 손오
 공이 거들었다.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세요. 저와 제 사제만 있으면
 어떤 요괴가 나타나도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한편, 아들이 밥을 가져와 상 위에 차려놓으며 "공양 드십시오"라고
 말했다. 삼장이 합장하고 재계 경문을 읊기 시작하자, 저팔계는 이미
 한 그릇을 똑딱 비웠다. 장로가 경문 몇 구절을 채 다 읊기도 전에, 그
 멍청한 녀석은 벌써 세 그릇을 더 먹어 치웠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
 밥통 같은 녀석, 아무래도 굶주린 귀신이라도 만난 모양이군." 눈치 빠
 른 왕 노인은 그가 빨리 먹는 것을 보고 말했다. "이 스님이 정말 어지
 간히 배가 고프셨던 모양이다. 어서 밥을 더 가져오너라." 저팔계는 정
 말로 위장이 커서,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연달아 열댓 그릇을 먹어 치웠
 다. 삼장과 손오공은 각각 두 그릇도 채 먹지 못했는데, 저팔계는 멈추
 지 않고 계속 먹어댔다. 왕 노인이 말했다. "갑작스레 차리느라 변변한
 안주가 없어 억지로 권하지는 못합니다만, 한 술 더 뜨시지요." 삼장과
 손오공은 모두 "충분합니다"라고 했다. 저팔계가 말했다. "영감님, 뭘
 그리 중얼거리십니까? 누가 영감님하고 점(占)이라도 치자고 했습니
 까? 무슨 다섯 번째 효(爻)니 여섯 번째 효니 따지긴요. 밥 있으면 그냥
 계속 가져오거나 하면 될 것을." 저팔계는 한바탕에 그 집 식구들의 밥
 을 모조리 먹어 치우고도 이제 겨우 반쯤 배가 찼다고 했다. 그제야 그

룻을 거두고, 문루 아래에 대나무 침상과 널평상을 펴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새벽이 밝자, 손오공은 말을 짊어지러 가고 저팔계는 짐을 정리하러 움직였다. 왕 노인은 아내에게 간식과 마실 것을 좀 준비해 대접하라고 일렀고, 세 사람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길을 나섰다. 노인이 말했다. "가시는 길에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다시 이 초가집으로 찾아오시게나." 그러자 손오공이 대답했다. "어르신, 쓸데 없는 말씀 마세요. 우리 수행자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말을 타고 짐을 짊어진 채 서쪽으로 향했다.

"아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서천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겠구나. 분명 요괴들이 나타나 큰 재앙을 일으키겠어."

삼장 일행이 길을 나선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정말로 험준한 높은 산 하나를 마주했다. 산세가 말할 수 없이 가파르고 험했다. 삼장이 말을 타고 절벽 근처에 이르러 보파리를 비스듬히 내려놓고 살펴보니, 과연 이리했다.

시로 이르되,

높은 것은 산이요 험한 것은 고개라. 오르는 것은 절벽이요 깊은 것은 골짜기라. 울려 퍼지는 것은 샘물이요 화산한 것은 꽃이라. 저 산은 높지 않은가, 꼭대기는 푸른 하늘에 맞닿았고, 이 계곡은 깊지 않은가, 바닥은 저승이 보일 듯하구나. 산 앞에는 하얀 구름이 뿔처럼 흩날리고, 우뚝 솟은 괴석들은 끝을 알 수 없는 천장만장 험혼애라. 절벽 뒤에는 굽이굽이 용이 숨어든 듯한 장룡동이 있고, 동굴 안에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적수암이 있네. 뿔 달린 사슴은 숲을 헤매고, 노루는 멍하니 사람을 바라보며, 붉은 비늘 뱀은 구불구불 기어가고, 흰 얼굴 원숭이는 장난을 치는구나. 밤이 되면 산속에서 호랑이가 굴을 찾고, 새벽이 되면 물속에서 용이 솟구쳐 오르니, 동굴 문에서는 바람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네. 풀숲에서는 새들이 파닥거리며 날아오르고, 숲 속에서는 짐승들이 우르르 달려가는데, 갑자기 늑대와 벌레 떼가 지나가니, 사람의 마음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놀라누나.

푸른 산은 천 장의 옥처럼 물들었고, 푸른 비단은 만 겹의 안개처럼 감싸 안았구나.

스승인 삼장은 은색 말을 천천히 몰고, 손오공은 구름을 멈춘 듯 느긋하게 걸으며, 저팔계는 짐을 멘 채 꾸역꾸역 뒤따라가고 있었다. 한참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거센 회오리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말 위에서 이 광경을 본 삼장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말했다.

"오공아, 바람이 일어나는구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바람 따위가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하늘이 내리는 사계절의 기운일 뿐인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그러자 삼장이 말했다.

"이 바람은 아주 흉악하구나. 평소에 부는 하늘 바람과는 다르다."

손오공이 되물었다.

"어찌 하늘 바람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장이 말했다.

"이 바람이 부는 모양을 보아라.

높고 넓게 휘몰아치며 펄럭이고, 아득히 멀리 푸른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구나. 고개를 넘을 때는 천 그루 나무가 울부짖는 소리만 들리고, 숲으로 들어서면 만 개의 대나무가 흔들리는 것만 보이는구나. 강가 버드나무는 뿌리째 들썩이고, 정원의 꽃들은 잎사귀와 함께 흩날리는구나. 그물을 거두던 고기잡이 배는 밧줄을 팽팽히 당겨야 하고, 돛을 내린 나룻배는 닻을 깊이 내려야 하는구나. 길을 가던 나그네는 길을 잃고 헤매며, 산속 나무꾼은 짊어진 짐을 간신히 버티는구나. 신선은 사는 과수원에서는 원숭이들이 흠어지고, 기이한 꽃이 핀 숲속에서는 사슴들이 달아나는구나. 벼랑 끝의 측백나무와 향나무는 마디마디 쓰러지고, 계곡 아래 소나무와 대나무는 잎사귀마다 시들어가는구나. 흙먼지는 사방으로 튀어 오르고, 강과 바다는 뒤집혀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구나."

저팔계가 앞으로 나서며 손오공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다. "형님, 바람이 너무 거세니 일단 어디 좀 피합시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아, 너도 참 못났다. 바람이 불 때 피하기만 하면, 나중에 요괴를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는 어찌려고 그러느냐?"

저팔계가 대꾸했다. "형님, '미인(美人)은 원수처럼 피하고, 바람은 화살처럼 피하라'는 말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잠시 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끄러울 것도 없잖아요."

손오공이 말했다. "잔말 말고 기다려 봐라. 내가 이 바람을 한 움큼 움켜쥐어 냄새를 좀 맡아볼 테니."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또 허풍을 떠시는군요. 바람을 어떻게 움켜쥐어 냄새를 맡습니까? 설령 잡는다 해도 금방 흩어져 버릴 텐데요."

손오공이 말했다. "이 사람아,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나에게는 '바람을 잡는 법'이 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손오공은 기세 좋게 바람을 향해 손을 뻗더니, 바람의 꼬리 부분을 낚아채듯 잡아 끌어당겨 냄새를 맡았다. 그러자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손오공이 말했다. "과연 예사로운 바람이 아니구나. 이 냄새는 호랑이의 바람이 아니라 분명 괴상한 바람이다. 틀림없이 무언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

말을 다 마치고도 전에 산비탈 아래에서 무늬가 화려한 맹호 한 마리가 꼬리를 치며 네 발로 경충 뛰어올랐다. 그 기세에 놀란 삼장은 말안장 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고꾸라지듯 말에서 떨어졌고, 길가에 비스듬히 쓰러진 채 그야말로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저팔계는 짐을 내팽개치고 쇠갈퀴를 움켜쥐었다. 그는 삼장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서며 크게 호통을 쳤다.

"이 짐승 같은 놈아, 어디를 감히 가느냐!"

저팔계는 놈을 쫓아가 머리부터 내리치려 했다. 그런데 그 호랑이는 뺨뺨하게 몸을 일으키더니, 앞왼쪽 발을 들어 제 가슴팍을 긁어내렸다. 스르륵 소리와 함께 호랑이는 제 가죽을 훌랑 벗겨 길가에 세워두었다. 그 흉측한 모습이 어떠했는지 보라.

피가 뚝뚝 떨어지는 벌거숭이 몸뚱이에, 붉고 흉측하게 굽은 다리. 불꽃처럼 붉고 덥수룩한 양옆의 귀털과, 뺨뺨하게 치켜세운 두 눈썹. 하얗게 번뜩이는 네 개의 강철 같은 송곳니와, 눈부시게 빛나는 한 쌍의 금빛 눈동자. 기세등등하게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와, 위엄 있게 내지르는 사나운 포효.

놈이 외쳤다.

"멈춰라, 멈춰! 나는 다른 이가 아니라 황풍대왕님의 부하이자 앞길을 지키는 선봉장이다. 지금 대왕님의 엄명을 받들어 산을 순찰하며, 안주 삼아 먹을 범인 몇 명을 잡으러 왔다. 너는 어디서 온 중놈이기에 감히 무기를 휘둘러 나를 다치게 하느냐?"

저팔계가 욕설을 내뱉으며 맞받아쳤다.

"이 망할 놈! 나를 몰라보는 모양이구나. 우리는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동토 대당 황제의 친동생인 삼장법사의 제자로서, 어

명을 받들어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몸이다! 어서 멀리 물러나 길을 비켜라. 그래야 우리 스승님을 놀라게 하지 않고 네 목숨을 살려 줄 것이다. 만약 계속 날뛰며 대든다면, 내 갈퀴가 휘둘러지는 순간 결코 용서치 않겠다!"

요괴는 말로 설명할 겨를도 없이 급히 다가와 자세를 잡더니, 저팔계의 얼굴을 향해 발톱을 휘둘렀다. 저팔계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갈퀴를 휘둘러 내리쳤다. 무기가 없던 요괴는 몸을 돌려 달아났고, 저팔계가 그 뒤를 쫓았다. 요괴는 산비탈 아래 바위가 어지럽게 널린 곳에 이르자, 어디선가 붉은 구리 칼 두 자루를 꺼내 들고는 몸을 돌려 맞서 싸웠다. 두 존재는 언덕 앞에서 서로 부딪히고 들이받으며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손오공이 삼장을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다. “스승님, 너무 겁내지 마세요. 일단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가서 저팔계를 도와 저 요괴를 때려눕히고 온 뒤에 가겠습니다.” 삼장은 몸을 벌벌 떨며 겨우 자리에 앉아, 입으로는 연신 《다심경》을 읊으며 두려움을 달랬다.

손오공이 철봉을 휘두르며 호통을 쳤다. “잡아라!” 그 소리에 저팔계도 정신을 바짝 차렸고, 요괴는 결국 싸움에서 밀려났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냥 두면 안 된다. 반드시 따라잡아야 해!” 두 사람은 쇠갈퀴와 철봉을 치켜들고 산 아래로 쫓아 내려갔다. 요괴는 당황하여 허둥대다가 '금선탈각(겉질을 벗고 탈출함)'의 계책을 써서, 몸을 한 바퀴 굴러 본래의 모습인 멍호로 돌아갔다. 손오공과 저팔계가 이를 놓아줄 리 없었다. 두 사람은 요괴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호랑이를 끝까지 뒤쫓았다. 요괴는 손오공 일행이 코앞까지 닥쳐오자, 급히 제 가슴팍을

굽어 가죽을 벗겨내더니 그것을 와호석 위에 덮어놓았다. 그리고는 본래의 몸을 벗어 던지고 거센 바람으로 변해 길목으로 뺨하니 달아났다. 마침 스승인 삼장이 《반야심경》을 외우고 있을 때, 바람이 된 요괴가 그를 덥석 낚아채더니 거센 바람을 타고 그대로 멀리 사라져 버렸다.

가련한 삼장이여, 강물 흐르듯 고난이 끊이지 않으니, 적멸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수행의 길은 참으로 험난하구나.

요괴는 삼장을 붙잡아 동굴 입구까지 데려간 뒤, 몰아치던 광풍을 가라앉히며 문을 지키던 부하에게 말했다. “가서 대왕님께 보고해라. 호 선봉이 스님 한 분을 붙잡았으니, 문밖에서 명령을 기다리겠다고 말이다.” 동굴의 주인인 황풍대왕이 명령을 내리자, 요괴는 삼장을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일렀다. 호 선봉은 허리에 붉은 구리 칼 두 자루를 차고, 두 손으로 삼장을 받쳐 든 채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대왕님, 소장이 재주가 부족하여 명을 받들고 산을 순찰하던 중, 갑자기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동쪽 대당 땅에서 오신 삼장법사로, 서쪽 하늘의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경전을 구하러 가던 길인데 제가 붙잡아 대왕님께 올립니다. 부족하나마 작은 성의로 준비했습니다.”

동굴 주인인 황풍대왕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내가 듣기로는, 삼장법사가 대당 황제의 명을 받들어 경전을 구하러 가는 신성한 승려이며, 그의 수하에 손오공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신

통력이 광대하고 지혜가 매우 뛰어나다던데, 네가 어찌 그를 잡아올 수 있었느냐?"

호 선봉이 대답했다.

"그에게는 제자가 둘 있습니다. 먼저 온 놈은 입이 길고 귀가 큰 놈인데 아홉 개의 이가 박힌 쇠갈퀴를 휘두릅니다. 또 다른 놈은 눈이 번뜩이는 화안금정의 눈을 가진 놈인데 금고아를 쓴 철봉을 휘두릅니다. 마침 소장군들이 서로 맞붙어 싸우던 중에, 제가 금선탈각(껍질을 벗고 달아나는 계책)의 묘수를 써서 몸을 쏙 빼내어 빈틈을 만들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 스님을 잡아 온 것이니, 대왕께 바쳐 정성스러운 한 끼 식사 대접을 올리고자 합니다."

황풍대왕이 말했다.

"일단 그를 잡아먹지는 마라."

호 선봉이 물었다.

"대왕님, 먹을 것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않는 것은 못난 짓이 아닙니까?"

황풍대왕이 꾸짖듯 말했다.

"네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를 잡아먹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으나, 그 두 제자가 들이닥쳐 소란을 피울까 두려울 뿐이다. 그러니 우선 그를 뒷마당 정풍장에 묶어 두어라. 서너 날 정도 지났을 때 그 두 놈이 찾아와 괴롭히지 않는다면, 그때는 몸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을

것이고 말썽 피울 일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삶든 찌든, 굶든 볶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천천히 편안하게 즐기면 될 일이다."

호 선봉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대왕님의 심려가 참으로 깊고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이 탁월하십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자, 어서 저놈을 끌고 가라!"

곁에 있던 일고여덟 명의 포박꾼이 우르르 달려들어 삼장을 끌고 갔다. 그 모습이 마치 매가 제비와 참새를 낚아채는 듯했고, 밧줄로 삼장을 꼬꽂고 움아맸다. 이야말로 가련한 강류(江流, 삼장)는 손오공(行者)을 그리워하고, 고난을 당한 신승(神僧)은 저오능(悟能, 저팔계)을 떠올리는 격이었다. 삼장이 탄식하며 말했다.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 어느 산에서 요괴를 잡고 어느 곳에서 마귀를 항복시키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이렇게 마왕에게 붙잡혀 이런 모진 해를 당하고 있으니, 언제나 다시 너희를 만날 수 있을까? 참으로 괴롭구나! 너희가 조금만 더 일찍 온다면 내 목숨을 구할 수 있겠지만, 너무 늦어버린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하리라."

삼장은 한편으로 탄식하고 한편으로 눈물을 비 오듯 흘렸다.

한편, 손오공과 저팔계가 그 호랑이를 쫓아 산비탈을 내려가 보니, 호랑이는 이미 달려가다 지쳤는지 절벽 앞에 엎어져 있었다. 손오공이

힘껏 몽둥이를 휘둘러 내리쳤으나, 오히려 손이 저릿할 정도로 충격이 되돌아왔다. 저팔계도 쇠갈퀴를 휘둘러 내리쳤으나, 갈퀴 날이 무언가에 걸려 툭 하고 튀어 올랐다.

알고 보니 그것은 호랑이 가죽 한 장이었고, 그 아래에는 '와호석'이라는 바위가 덮여 있었다. 손오공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저놈의 계책에 빠졌구나!" 저팔계가 물었다. "무슨 계책 말인가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것은 '금선탈각(껍질을 벗고 달아나는 계책)'이라는 것이다! 저놈이 호랑이 가죽을 여기에 덮어두고 제 몸은 이미 달아난 거야. 어서 돌아가서 스승님을 찾아보자. 혹시라도 해를 입으셨을지 모르니!"

두 사람이 급히 돌아가 보았으나, 삼장은 이미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뒤였다. 손오공이 천둥 같은 소리로 외쳤다. "이럴 수가! 스승님이 저놈에게 붙잡혀 가셨구나!" 저팔계는 말을 끌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이구, 이를 어쩌나! 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손오공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울지 마라, 울지 마! 울기만 하면 기운만 빠지는 법이다. 어쨌든 저놈이 이 산을 벗어나지는 못했을 테니, 우리가 살살이 뒤져보자꾸나."

두 사람은 곧장 산속으로 뛰어들어 고개를 넘고 산등성이를 넘으며 한참을 나아갔다. 그러다 어느덧 석벽 아래로 솟아오른 동굴 하나를 발견했다. 두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살펴보니, 과연 험악한 기운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 풍경을 묘사하자면 이러했다.

첩첩이 쌓인 봉우리와 굽이진 옛길 사이로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가 무성하고, 버드나무와 오동나무가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절벽 앞에는 기묘한 바위들이 쌓을 이루어 솟아 있고, 숲속에는 이름 모를 새들이 짹 짹 지어 울어댔다. 계곡물은 멀리서 흘러와 바위벽을 때리고, 산샘물은 가늘게 흘러 모래둑을 적셨다. 조각구름은 훑날리고 신령한 풀들은 푸르게 우거졌으며, 교활한 여우와 토끼들이 어지러이 뛰어다니고 사슴과 노루들이 서로 용맹을 겨루고 있었다. 절벽에는 만 년 된 덩굴이 비스듬히 걸려 있고, 깊은 골짜기에는 천 년 된 측백나무가 반쯤 매달려 있었다. 그 기세가 당당하고 웅장하여 마치 화산조차 압도할 듯했고, 떨어지는 꽃과 지저귀는 새들의 모습은 마치 천상의 정원과도 같았다.

손오공이 말했다. "동생, 짐은 저 장풍산 골짜기에 내려놓고 말도 풀 어두게. 그리고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되네. 내가 먼저 저놈의 집 앞으로 가서 한판 붙어볼 테니, 반드시 요괴를 붙잡아야 스승님을 구할 수 있네."

저팔계가 대답했다. "말씀 안 하셔도 다 압니다. 어서 빨리 다녀오세요."

손오공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호랑이 가죽 치마를 단단히 묶은 뒤, 여의봉을 움켜쥐고 문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갔다. 문에는 '황풍령 황풍동'이라는 여섯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든 채 늙름하게 서서 크게 외쳤다.

"요괴 놈들아! 당장 내 스승님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 소굴을 통째로 뒤엎고 살 곳을 싹 밀어버리겠다!"

이 소리를 들은 요괴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며 안으로 달려 들어가 보고했다.

"대왕님, 큰일 났습니다!"

황풍대왕이 앉아 있다가 물었다.

"무슨 일이냐?"

"동굴 문 앞에 입이 툭 튀어나오고 얼굴에 털이 송송 난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손바닥만 한 굵기의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대왕님의 스승을 내놓으라고 난리입니다!"

황풍대왕은 깜짝 놀라 호 선봉을 불러 꾸짖었다.

"내가 너에게 산을 돌며 산소(山牛)나 멧돼지(野麋), 살찐 사슴이나 산양(胡羊) 같은 것들이나 잡아 오라고 했지, 어찌 당승을 잡아 오라고 했느냐? 그 제자 놈까지 불러들여 이렇게 소란을 피우게 만들다니, 이를 어찌면 종단 말이나!"

그러자 호 선봉이 대답했다.

"대왕님, 안심하시고 편히 계십시오. 걱정하실 것 하나 없습니다. 제가 재주가 부족하긴 하나, 부하 50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그 손오공이라는 놈을 잡아 와 대왕님의 식사 거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황풍대왕이 말했다.

"우리 동굴에는 크고 작은 우두머리들 외에도 오륙백 명의 부하가 있으니, 네가 원하는 만큼 골라 가져라. 다만 그놈을 확실히 잡아야 우리도 마음 편히 스님 고기를 먹을 것 아니냐. 만약 성공한다면 너를 형제로 모시겠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놈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네가 다치게 된다면, 그때는 나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호 선봉이 호기롭게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과연 호 선봉은 건장한 부하 요괴 십 명을 불러 모아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게 했다. 요괴들은 허리에 붉은 구리 칼을 차고 문밖으로 튀어나와 서슬 퍼런 목소리로 외쳤다. “어디서 온 원숭이 중놈이나? 감히 이곳에서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게냐!”

손오공이 욕설을 퍼부었다. “이 가죽이나 벗겨질 짐승 같은 놈! 무슨 껍데기만 남기고 도망가는 수작을 부려 내 스승님을 낚아채 가고는, 어디서 나한테 따지고 들어? 당장 내 스승님을 내놓아라. 그러면 네 목숨만은 살려주마.”

호 선봉이 대답했다. “네 스승은 내가 잡아다가 우리 대왕님의 식사 대접을 하려고 가져간 것이다. 앞뒤 분간도 못 하고 헛소리할 거면 당장 돌아가라. 안 그러면 너까지 붙잡아서 한꺼번에 먹어 치울 테니, 한 명 살려주고 한 명 먹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들은 손오공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이를 부득부득 갈며 눈을 부릅떴고, 번뜩이는 안광을 내뿜으며 철봉을 휘둘러 외쳤다. “네놈이 대체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런 큰소리를 치느냐? 도망갈 생각 마라, 이 몽둥이 맛을 봐라!”

호 선봉은 급히 칼을 들어 맞서 싸웠다. 싸움은 건잡을 수 없이 격렬해졌고, 두 괴물은 각자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며 죽기 살기로 맞붙었다.

시로 이르되,

요괴는 달걀이요, 손오공은 돌덩이라. 구리 칼을 든 요괴가 손오공을 치니,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 까마귀와 까치가 어찌 봉황과 겨루며, 비둘기가 어찌 매와 솔개에 맞서겠는가. 요괴가 바람을 뿜으니 온 산에 먼지가 가득하고, 손오공이 안개를 내뿜으니 구름이 해를 가리는구나. 수차례 공방을 주고받으니, 호 선봉은 허리가 꺾여 힘을 쓰지 못하네. 결국 패하여 목숨을 구하려 도망치려 하나, 손오공이 끝까지 몰아붙여 죽게 만드누나.

호랑이 요괴는 손오공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뒤를 돌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원래는 동굴 주인에게 보고하고 돌아가려 했으나, 감히 동굴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곧장 산비탈을 따라 달아났다. 손오공이 그를 놓아줄 리 없었다. 그는 여의봉을 짝 쥐고 쉼 없이 고함을 지르며 쫓아갔고, 결국 바람이 머무는 산골짜기까지 추격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팔계가 그곳에서 말을 돌보고 있었다. 저팔계가 갑자기 들려오는 고함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손오공에게 쫓겨 달아나는 호랑이

요괴가 아니겠는가. 저팔계는 즉시 말을 내팽개치고 쇠갈퀴를 들어 요괴의 머리를 비스듬히 내리찍었다. 가련한 호 선봉은 겨우 몸을 빼내어 황사망(黃絲網)으로 뛰어들려 했으나, 뜻밖에도 또 다른 함정에 빠진 격이 되어 저팔계의 갈퀴에 머리가 아홉 군데나 뚫리고 말았다. 피가 솟구치고 뇌수가 다 쏟아져 나올 정도였다. 이를 두고 시로 이르되,

삼오 년 전 불법에 귀의하여 재계하며 정진하여 참된 진리를 깨달았네. 성심으로 당삼장을 보살피고자 사문의 법을 받들어 이 공을 세우도다.

그 멍청한 놈의 등을 발로 짓밟으며, 저팔계는 양손에 든 쇠갈퀴를 휘둘러 다시 한번 내리쳤다. 그 모습을 본 손오공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형씨, 바로 이거야! 이놈이 부하 요괴 수십 명을 거느리고 감히 나한테 덤벼들기에 맞서 싸웠더니, 패배한 놈이 동굴로 도망치지 못하고 여기까지 죽으러 달려온 거야. 자네가 딱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또 도망갔을 게 뻔해."

저팔계가 물었다. "바람을 일으켜서 스승님을 잡아간 놈이 바로 이놈이야?"

손오공이 대답했다. "맞아, 바로 이놈이야."

저팔계가 다시 물었다. "그놈한테 스승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어?"

손오공이 말했다. "이 괴물 놈이 스승님을 동굴에 가둬놓고, 어떤 대왕인지 모를 놈의 식사 밑반찬으로 삼으려 하더라고. 내가 화가 나서

이놈이랑 싸우러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이놈 목숨을 끊어버린 거야. 형씨, 이 공로는 자네 덕분이야. 자네는 여기서 말과 짐을 지키고 있게. 내가 이 죽은 괴물을 끌고 가서 동굴 입구에서 한판 붙고 올 테니까. 저 늙은 요괴를 반드시 잡아야 스승님을 구할 수 있어."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말씀이 옳아. 어서 가 봐, 어서 가! 만약 그 늙은 요괴를 물리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그럼 이 저팔계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놈을 가로채서 죽여버릴 테니까."

손오공은 한 손에는 철봉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죽은 호랑이를 질질 끌며 곧장 황풍동 입구로 향했다.

시로 이르되, "법사께서 요괴를 만나 위기에 처하니, 제자들이 힘을 합쳐 마귀를 굴복시키네."

결국 이번 여정에서 요괴를 물리치고 삼장을 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